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집 고고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2집 전적1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3집 전적2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4집 전적 귀중본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5집 금속공예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6집 불교회화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7집 분청사기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8집 중국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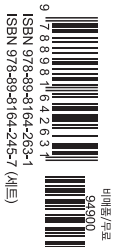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9집 청자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0집 묘지·지도 등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1집 불교조각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2집 목칠·기타 공예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3집 석조



제10집 묘지·지도 등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 Map · Royal Investiture Book · Seal · Letter

국립중앙박물관

##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 Map · Royal Investiture Book · Seal · Letter

제10집 묘지·지도·옥책·도장·글씨·편지



표지  
앞 권외1623  
윤사국(1728~1809) 묘지  
1809년(순조 9)

뒤 권외1650  
윤경용(1686~1743) 묘지  
1745년(영조 21)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 Map · Royal Investiture Book · Seal · Letter

제10집 묘지 · 지도 · 옥책 · 도장 · 글씨 · 편지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 Map · Royal Investiture Book · Seal · Letter

제10집 묘지 · 지도 · 옥책 · 도장 · 글씨 · 편지

기획 · 편집	김진실金珍實 서윤희徐兪希
조사 · 원고	김진실金珍實
조사보조	원혜진元惠眞 김영철金永喆
영문번역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韓國外國語大學校 通翻譯센터
교정 · 교열	서윤희徐兪希 김진실金珍實
촬영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國立中央博物館 遺物管理部 남기용南奇龍
Planning and Editing	Kim Jinsil, Seo Yunhee
Survey · Manuscript	Kim Jinsil
Survey Assistance	Won Hyejin, Kim Youngchul
English Translation	Center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Hankuk Universtiy of Foreign Studies)
Proofreding	Seo Yunhee, Kim Jinsil
Photography	Collections Management Divis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am Kiyong

일러두기

- 이 책은 고故 이견희 회장이 기증한 자료를 조사하여 국립중앙박물관 고고역사부(부장 윤상덕)가 제작한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10집 묘지 · 지도 등』이다.
- 묘지, 지도, 옥책, 도장, 글씨 · 편지, 기타로 나누고 각 분류 안에서 소장품번호순으로 배치하였다.
- 기본 정보는 소장품번호, 국문명칭, 한문명칭, 작가, 제작연대, 재료, 크기순으로 표기하였다. 크기의 단위는 cm이며, 수량이 2점 이상인 경우에도 크기는 첫 번째 사진에 대한 정보만 표기하였다.
- 수록품 중 지은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름과 생몰년을 적었다.
- 이 책에 수록된 자료의 국적 및 연대는 향후 조사 · 연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ote to readers

- This publication, entitled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Map, Royal Investiture book, seal, letter* was produced by the Archaeology and History Division(Head: Yoon Sangdeok) of National Museum of Korea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historical artifacts donated by the estate of the late Lee Kun-hee.
- The items in this volume are organized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epitaph tablet, map, royal investiture book, seal, letter, and miscellaneous, with items individually arranged by collection number within each category.
- Basic information on each item is presented in the following order: collection number, title(in Korean, in Chinese characters, in English), writer, production date, material, and dimensions. Dimensions are measured in centimeters. If there are two or more pieces, the dimensions given refer only to the item pictured in the first photograph.
- For items whose writer has been identified, the name and years of the writer’s birth and death are noted.
- The national origins and production dates of the items in this book could change with further research.

목차

Contents

발간사	004
Foreword	

I. 묘지	
Epitaph Tablet	006

II. 지도	
Map	048

III. 옥책	
Royal Investiture Book of the Joseon Dynasty	108

IV. 도장	
Seal	114

V. 글씨 · 편지	
Letter	130

VI. 기타	
The others	146

## 발간사

2021년 4월 28일 고故 이견희李健熙(1942~2020) 삼성 회장 유족은 그의 수집품 중 9,797건 2만 1,693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기증품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도토기, 금속, 전적, 서화, 목가구, 석조, 그리고 중국도자 등으로 폭넓고 다양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여러 분야로 나누어 『고故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을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제10집’에서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묘지, 지도, 옥책, 도장, 글씨·편지와 기타자료 52건 180점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개인의 삶과 당시 생활상을 생생히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록으로부터 조선왕실에서 펴낸 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자료들이 관련 학술 연구와 전시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문화유산을 수집한 고 이견희 회장님, 그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낌없이 기증한 유족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기증품 목록집을 발간하여 기증의 높은 뜻을 알리고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도록 힘쓰고자 합니다.

2023년 11월  
국립중앙박물관장  
윤 성 용

## Foreword

On April 28, 2021, the bereaved family of the late Samsung Group chairman Lee Kun-Hee (1942–2020) made a gift of 9,797 items (21,693 pieces) from his estate t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e donated items are extensive and diverse, encompassing ceramics, metalwork, books, calligraphy, wooden furniture, and stone sculptures dating to the Neolithic Period through the Joseon dynasty, and even Chinese ceramic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has conducted a systematic survey of the items and is presenting the results by category in a sequential series of publications under the title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This *Volume 10* is a catalog of a total of 52 items and 180 pieces, including epitaph tablets, maps, royal investiture book, seals, letters, and other materials created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y range from records that provide a vivid glimpse into the everyday lives of individuals at the time to books and documents published by the Joseon Royal Family. We hope that these valuable items will contribute to academic research and exhibitions related to the Joseon Dynasty.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 gratitude to the late Lee Kun-Hee, who acquired this collection based on his exceptional interest in and affection for cultural heritage, and his bereaved family for their generous gifting of the collection. Through the publication of the series of volumes on the donated items,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ims to support the noble intentions of the donation and widely share the results of the survey.

November 2023  
Yoon Sung Yong  
Director General  
National Museum of Korea



明朝鮮贈貞夫人安東權氏墓誌  
有明朝鮮處士贈吏曹判書清風金公  
之配贈貞夫人安東權氏之藏也始祖太

I.  
묘지  
Epitaph Tablet

長亦然蓋其天性然也故家人相戲謂白  
謂清白可與休菴侔也逮其有行事姑安  
母處娣姒如姊妹安氏嘗有疾沈淹長子  
須臾不離側判書公幹醫藥夫人主中饋  
人處隔壁小室而叱咤之聲未嘗聞逐日  
力匕具甘旨不委婢使如是者三歲人不  
勞而終無倦意安氏每有事必召夫人相  
夫人衣服飲食必歎賞曰手品不當如是  
人在親家遇俗節吳氏欲具時食為夫人  
姑夫人力止之輒於私室率一婢自為具

鍾愛諸子而至見有過失則必嚴責曰此  
嫉汝乃所以仁汝也暇日為諸子從容言  
行實語及於親則必涕泣曰昔我先夫人  
兄子滿吾意者滿於人意吾不敢忘也家  
奉祀必豐潔菜盛魚菓宿辨而謹儲之不  
用遇人誠意款厚人亦靡不親服客至必  
奉饌撤必省其所食多寡祀饗殺牛則惻  
忍食其肉媵從兄李延平貴嘗判銓曹屢  
人而夫人絕口無一言干囑其廉潔皆類  
人生長外家習見豪華及歸士人家朝夕

世春秋六十有九判書公墓在廣州王  
雲山下碭山庚向夫人之喪有年忌不  
葬于判書公墓西三里五峯山下卯向  
以孫曾貴累贈判書公官夫人如例從贈  
男長益礪仲克亨季克亨工曹正郎贈左

議政大提學出也曰興魯得魯都事益魯  
牧使出也曰迪魯檣出也曰詹魯櫓出也  
魯述魯郡守恒魯升魯為樞後者樞出也  
魯進士鳴魯判官為樞後者枋出也曰淵

出也曰文魯續魯武科章魯橈出也曰垂  
出也此為夫人之子若孫曾玄而侍直致  
使致一承旨致仁致彥司評致良進士致  
使致溫致問正郎致恭生員致恪進士致  
福致祿致禧致祺致誠致敬致健致信致  
澤致益致舜夫人之五代孫也洗馬鍾厚  
鍾秀鍾高鍾詰鍾竅鍾協六代孫也至若  
名者庶出者外孫及曾玄以下女壻又極  
能盡書嗚呼夫人之淑德懿行雖古圖書  
無以加焉而一生寤寐中歲寡居長仲二

甚賢有文而不幸短命未得終孝天之報  
若是舛也雖然李子正郎公克承先規以  
為世名儒子孫蕃衍門戶顯赫馳贈累  
塗官僕不絕於享祀向非判書公暨夫人  
委社垂訓啓慶則焉能有此天道久而乃  
不信然哉是為誌

玄孫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



1. 묘지墓誌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중 묘지는 18건 126점이다. 이 목록집에서는 2022년 발간한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제7집에서 다룬 분청사기 ‘성화팔년’명 묘지(건희882) 등 5건을 제외하고 13건 96점을 수록하였다.

묘지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하다. 죽은 사람, 즉 무덤 주인의 이름과 생몰년, 행적, 신분 등 기본 인적 정보를 알 수 있고 더러는 무덤의 방향이나 위치를 기록한 묘지도 있다. 또 묘지 찬자撰者(글 지은이)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는데, 찬자는 대개 피장자와 각별한 사이인 경우가 많다. 이 목록집 대상 중 하나인 김집金集(1574~1656)의 묘지(건희2125)를 지은 사람은 김집의 제자인 송시열宋時烈(1607~168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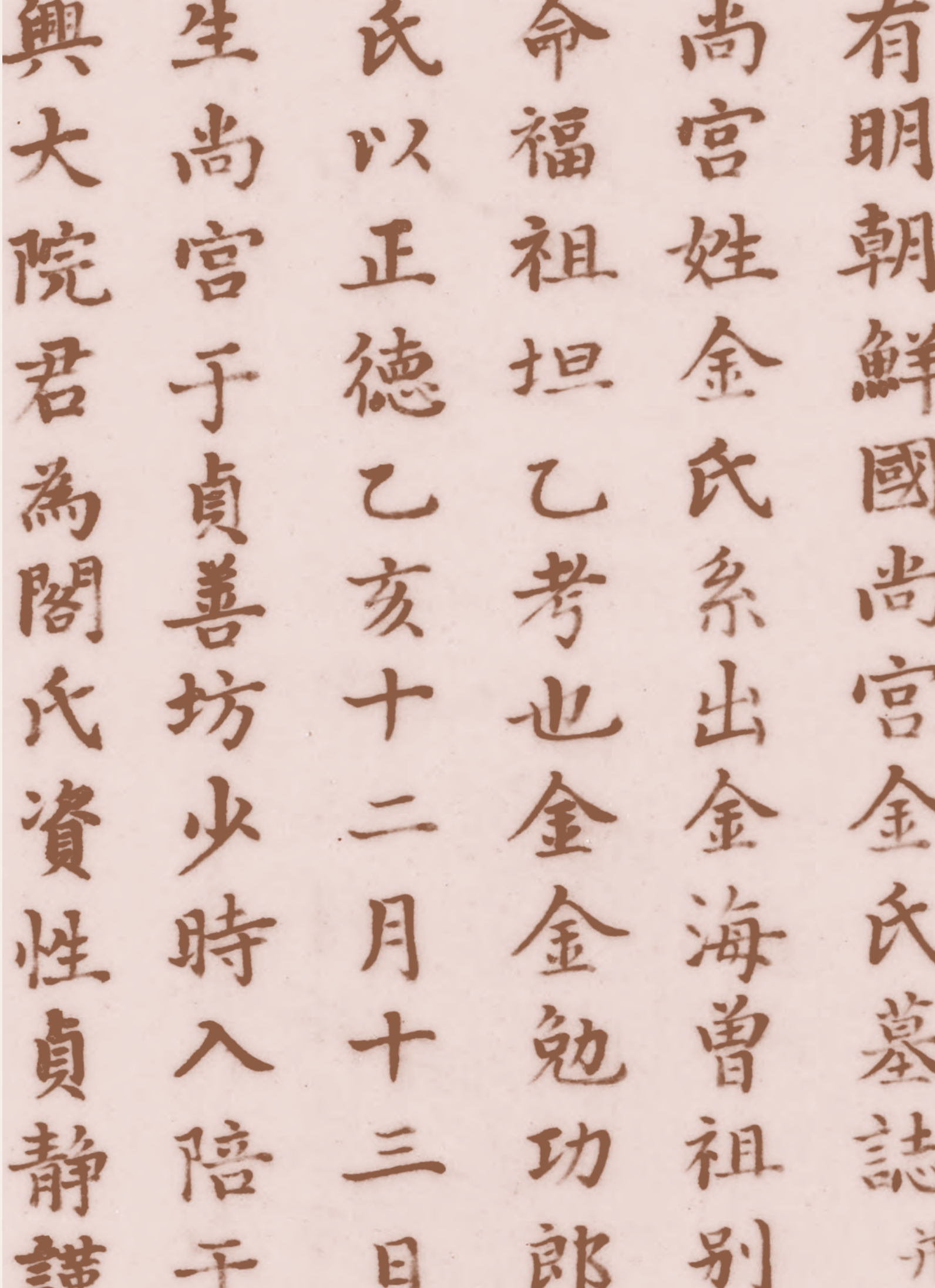
묘지는 개장改葬 혹은 이장移葬을 할 때에 새로 제작하기도 한다. 김유金樸(1653~1719) 부인 전주이씨의 묘지(건희2562)에는 부인을 경술년(1670)에 광주廣州 백운산白雲山 아래에 부장했다가 정유년(1717)에 남양南陽 자양촌紫陽村으로 이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묘지는 역사서에 잘 남아있지 않은 여성의 삶을 살펴 볼 수 있는 기록물이기도 하다. 이 목록집에 수록된 여성의 묘지는 총 3건인데, 이 중 상궁 김씨尙宮金氏(1515~1586)의 묘지(건희1922)가 주목된다. 깨끗한 백자 위에 선명한 푸른색 안료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눈에 띄는 묘지이다. 묘지에 따르면 상궁 김씨는 본래 선조宣祖(재위 1567~1608)의 아버지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을 모시던 나인이었는데, 선조가 태어난 후에는 보모역할을 하였다. 선조가 왕위를 잇게 된 뒤에는 상궁으로 봉해지고 입궐하여 선조를 보필하였다. 1586년(선조 19)에 상궁 김씨가 죽자, 선조는 내시에게 상을 치르도록 명하였다.

목록집 수록 대상 묘지들의 연대는 16~19세기로, 대체로 조선후기의 묘지들이다. 시기로 보면 약 4세기 정도에 걸쳐 있고 합, 접시, 원통형 등 다양한 형태의 묘지가 있다. 이는 조선시대에 매장 문화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목된다.

제10집 수록 묘지 목록

소장품번호	무덤 주인	수량	형태	글 지은이
건희1566	김유(1653~1719)	32		김간(1646 ~1732)
건희1623	윤사국(1728~1809)	2	합	신위(1769 ~1845)
건희1650	윤경용(1686~1743)	21	접시	오수채(1692~1759) 이종성(1692~1759) 조하망(1682~1747)
건희1756	뫼자리 지도가 그려진 묘지	1	접시	
건희1922	상궁 김씨(1515~1586)	4		
건희2125	김집(1574~1656)	20		송시열(1607~1689)
건희2450	정부인 청풍 김씨	1		
건희2465	김인백(1561~1617) 부인 안동 권씨(1564~1632)	7		김재로(1682~1759)
건희2493	권결(1534~1605)	3		조희일(1575~1638)
건희2517	김방행(1738~1793)	1		
건희2533	한흥조(?~?)	1	원통	한학주(?~?)
건희2562	김유(1653~1719) 부인 전주 이씨(1651~1670)	2		김유(1653~1719)
건희2570	안종탄(1490~1538)	1	원통	안종무(?~?)





001 건희1566  
김유(1653~1719) 묘지  
金樛 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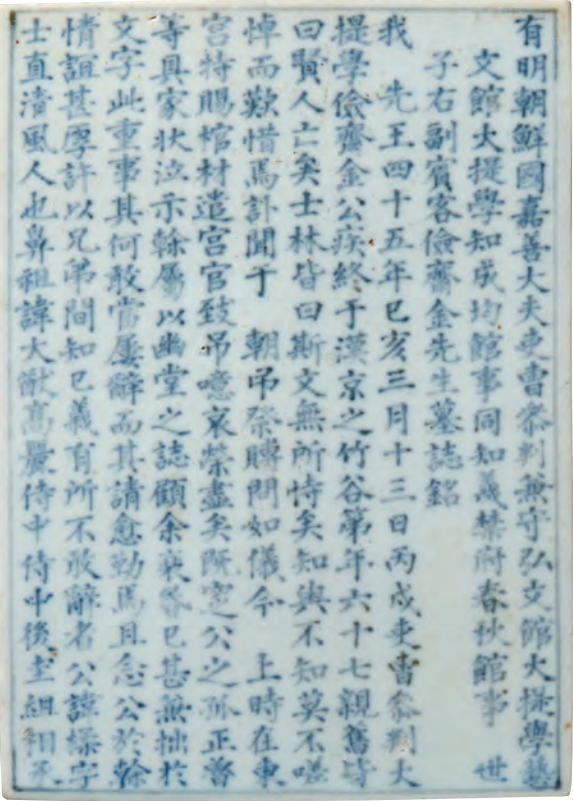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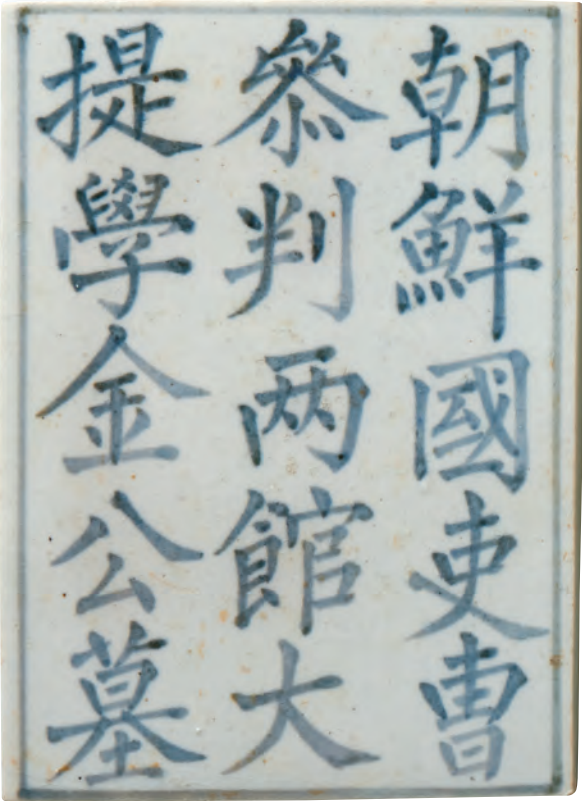
글 지은이 김간金幹(1646~1732)  
1720년(숙종 45) | 백자청화 | 32점  
합 두경 높이 7.7 입지름 20.4 바닥지름 5.1  
묘지 세로 18.8 가로 13.5

LKH1566  
Epitaph Tablets of Kim Yu(1653~1719)

Written by Kim Gan(1646~1732)  
Joseon dynasty, 1720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18.8 W.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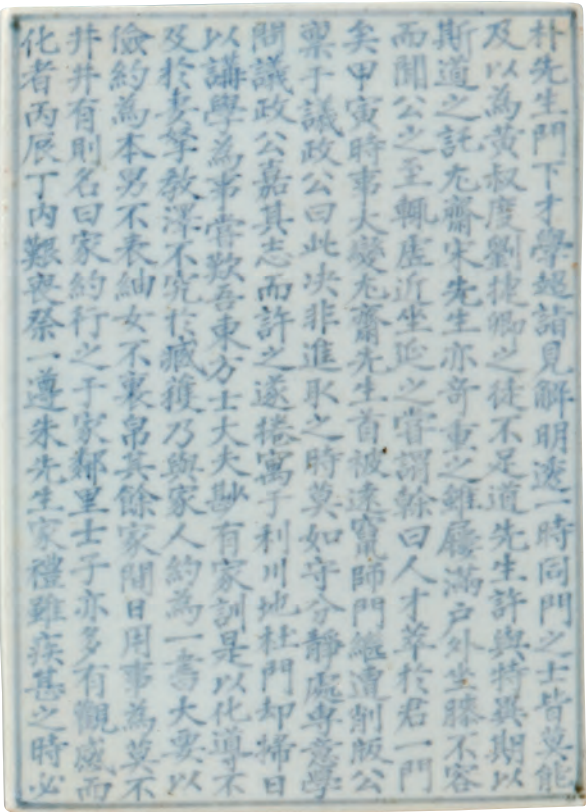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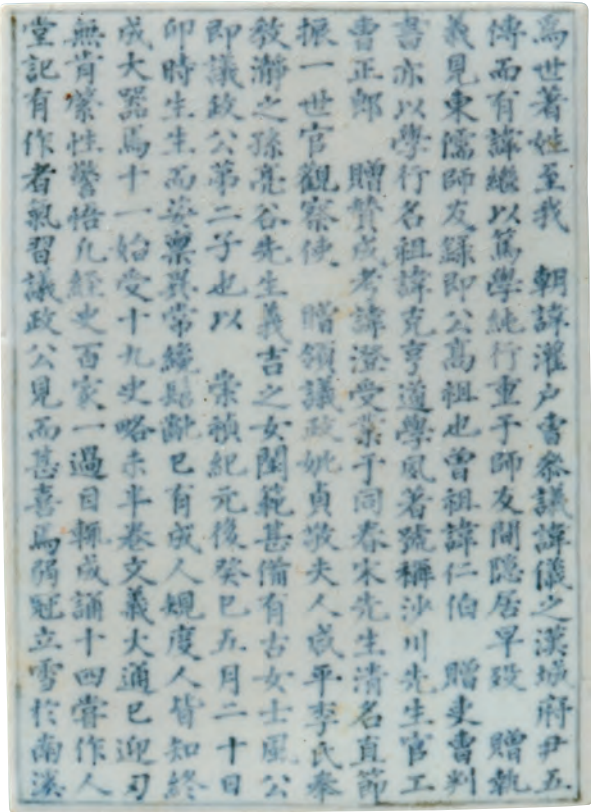
1판



2판



3판



4판



之本也大抵公之進講每於本文言意之外必推演別意而引譬曉諭皆此類也又因召對講蘇軾策略公曰軾之學本出於申韓多為功利之說無可取者故朱子嘗攻其學術矣又曰即今芻蕘之禍將至於亡國願聖上以至公至明之道建極于上勿論彼此惟賢與才是取焉又陳刑法不嚴之弊問閣借踰之害縷縷百餘言切中時病上皆嘉納焉上嘗問於公曰三代以後軍制唐之府兵最近古矣公曰三代之時兵農合而為一後世兵自兵農自農遂為莫大之弊唐太宗因宇文周蘇綽之議制為府兵深得古者寓兵於農之義我國五衛之法無異於府兵而士辰以後廢不行近日所遵用乃戚繼光御倭之法其法粗率而陣亦無活法矣上頗傾聽曰無活法云者

10

為君德成就責在經筵七日玉署入侍者僅六而以輔導聖學為已任敷奏之際諄諄勸勉每至日異乃出時上方講禮記月令公必因文推意遂章寓戒講至仲冬令母得淫貴戚近習毋不禁公曰李春孟冬兩月只言毋作淫巧以蕩上心而此又并貴近而言者必也人君躬先儉約無淫巧蕩心之事然後方可以禁貴近而推及於群下矣至山林藪澤曰先王之時山林藪澤與民共之近來各衙門諸官家折受之弊固有紀極民生將何以保存存至君子處必掩身曰此與義易至日開閣之義略同扶陽抑陰之意未嘗不存於其間而其下所謂安形性之說尤為要切也諫李冬令畢曰此書月各異政而勸課農事之意十二月月中無不言之蓋國以民為本民以食為本而農又是食

9

謝絕世事日與學徒講論不輟至甲戌上心大悟坤位復安命下之日一二宰臣倉皇趨御舉措驚異時南領相九萬承召到殿遲回不入國人問其去就於公公以書復之曰此時領按一日留滯則坤殿復位又將還了一日當受一日之罪又曰人心隔隔義理晦塞當今第一務莫如扶植名義南相終不能用而倡為深長慮之說又於臨中有降號之惑之語凡屬後日者皆動焉公心絕痛之深亦其無狀及南溪先生以左相入朝首扶名義其時喉司及倡議宰臣俱被罪於是倫紀復明人心大定以此左袒於帝者大生猜忌而憾公又深矣公自被已已誣辱之後決意自廢時有進臣白其狀者上曰向來慶啓之誣予所洞知開釋備盡特下敕命仍命儒臣

6

躬從讀史雖平居之間一不暇衰經庚申更化以親命始就公車前後發解輒居前則然非其志也公以文章是餘事不甚用力而吐而為詞平鋪典雅如冠冕珥玉聲容節度可敬而儀馬尤齋先生嘗見公作曰令人發望洋之歎南判書二星一見公諷製曰文詞渾暢學識該博深喜今世有此文也癸亥中司馬甲子以後連登薦剡已丑遂除昌陵參奉丁卯拜禁府都事戊辰遷典設司判檢已巳陞六品再為禁府都事時釐黨因帝載復入將反庚壬逆案忌公在禁府點為利仁察訪甫十日權璫者發逮竄之落而極意誣讒上只命削職其後忌者猶不已又加公禁錮及壹殿遜位朴定齋諸人被慘禍公欲上章言之大夫夫人泣挽而止之每語及朴事輒為之悲咽涕淚自垂

5

其輕侮之恥坐薪嘗膽之意告戒其君近日彼之優厚我者莫知其何意而今乃動色相喜曾不却顧而深慮憂秋者狡有餘必非偶然願殿下視其優厚為輕侮深省於富弼之言而無忽焉北使入城之日大雨暴注接待之際儀貌不成寒暑沾濕百僚水立公上劄歷叙漢唐宋水災之由以為鑑戒且曰水者至陰之氣在類為小人為夷狄也即今虜使在城望天示警況當此一陰始生之時大水用事凌逼陽氣此為一小人欲乘眾君子之象也執象移義厥類惟彰金瓶貞吉之道尤不可不念仍備論周舍賞罰之道陰陽淑慝之義總攬權綱之方奮發自強之策上優答焉副使稽克登屢至我國遣臣請密贈銀參以示特待之意公陳疏曰密贈之名瞞昧而不宜彼若據義

12

果然矣公曰臣雖固聖教略有仰對而講筵之上不宜談兵也公平日未嘗留意於戰陣之事而還席所對談通無碍雖老於兵家者莫之過焉人皆以禁中頗牧稱之而其隨事存規者久謂深得講官之體焉嘗進館中故事引宋儒真德秀無逸則壽親賢則壽之說陳戒而告之曰今以常情言之安肆逸樂者似為壽考之道而周公以無逸為壽國永年之本者誠以習為勤勞莊敬日強則心志堅定培養完厚必能克去戕賊之累而自底於壽考至於親賢則壽之說與無逸之義相為表裏蓋人君處崇高之位而逸欲易生茲人拂士處於左右誨之以正言引之以正道保養其身體禁其嗜欲則自可以無損壽之患願殿下留意焉又曰昔宋與契丹增幣結好而富弼尚以思

11

延安以政最一道賜表裏腹之戊子拜戶曹正郎已丑崔相禮記類編書出以庸學二書還入于四十九篇之內而變易朱子章句至於奏御而刊行公曰此斯文之變也力斥其毀經誣聖之罪於是多士叫閭鳴鼓致討其黨並怒公臺官尹會者承其旨大肆詬辱公知人心世道無可恃遂辭官閑居以自適庚寅朝家火其板即拜公禮賓寺正不就夏因公論特命復已卯科已丑舍憾之類與一二怨家合勢開慶舉執至壬辰除成均館司藝侍講院司書癸巳拜司憲府掌令無三字銜弘文館校理皆力辭不就問以司僕寺正拜司諫移校理俄又拜修撰疏批愈懇至別下備忘諭以分義趙中下教辭旨又嚴公益惶遽始出拜命仍陞副校理兼南學教授公以

8

諭意馬實異數也適有司僕主簿之除公慮而即出轉左水運判官冬移戶曹佐郎乙亥哭南溪先生服九月之制是春出宰龍潭丙子還歸丁丑又除戶佐依陞正郎戊寅除長興庫主簿旋以地部郎出監果川已卯擢大科唱第皆賢得人適榜中有弄奸盜占者事發罷榜人皆為公冤之夏還幕修郎廳增補典地賸覽秋拜司宰監掌樂院主簿辛巳拜高陽時值仁顯王后因山之役周旋策應不煩民力一境大頌焉壬午拜司導寺食正冬遞拜掌隸院司評未久轉漢城府庶尹癸未陞繕工監副正兼管鑒正軍役出為富平縣監甲申遭外艱時公年踰五十居憂之禮一如前喪冬伯相公以哀毀過制竟至於不勝喪見者皆為公危之終不變而或服闋拜司僕寺判官丁亥出宰

7



秋館事與往提舉公以爲身既在京屢辭不得當此君  
父病劇之日不宜一向辭退龜勉出前連赴 候班未嘗  
以疾病一日暫休翌年三月初自試院扶病而歸至十日  
之前患腦瘧之症復發連三日寅時竟至捐館以是年五  
月十八日葬于廣州沙川白雲山西麓礪山先塋側抱未  
之原公天稟絕異長身瘦面秀眉疏鬚溫粹如精金美玉  
洞澈如水臺秋月眼如曙星能辨細字於數丈之外書於  
內外詩禮之家而幼饒庭訓長服師教發軔正路德器夙  
成人望之知其爲粹然君子人也其爲學也夙興夜寐  
襟抱素用力於窮格之工加意於存省之方真知實踐妙  
悟默契凡天人性命之奧陰陽屈伸之變經曲常變之制  
古今理亂之跡靡不融會貫穿焉少時與伯相公語曰聖

18판

即達察任用副委寄之眷公自丁酉上書後屢蒙切齒  
至是正言李明誼者爲尼爲教仇地詆毀無數至以貪養  
誣之公再章自辨乞 賜查明 批曰危險之言何足掛  
齒貪養之目專出搆捏卿所遭之至寃不待查明而 聖  
明業已洞燭公閑閣累月乞解蓋懇六月用大臣言始  
許還公素操廉潔及莅西藩尤爲致慎比歸府庫盈溢較  
舊簿不翅十倍人以此益知明誼之誣罔焉未幾營繕等  
司有司堂上之任路拜兵曹參判同知義禁府事 世子  
右副賓客歸到城外令稿裨納符欲直返鄉庄適聞 上  
候加重爲入城承 候之計未果連有弘文館副提學司  
憲府大司憲司諱院提舉之除皆不就俄而由漢城府右  
尹拜吏曹參判兩館大提學兼如舊又兼同知義禁府春

17판

傳還還拜副提學兼輔德乙未陞通政拜水原府使秋後  
拜黃海道觀察使 陞辭時 上引見下教曰近來西路  
多艱海防疎虞今得卿委寄予無憂矣公至則秋後蘇  
大興儒化治績最著海西舊有泉谷先生鄉約而中閑廢  
弛者久公即修潤而申明之一道爲之興起丁酉拜司諱  
院大司諱未還 朝陞拜嘉善大夫平安道觀察使關西  
一路寇盜如織又連值凶荒百事凋弊公廉以自持恩以  
濟歲饑便修築宿弊盡革矣嗚呼國民用大和規模制度  
比前一新焉李世德尼徒也是冬稱以爲師仲枉擊斃供  
辭多誣引師門語以爲證公乃上章逐條辨明自痛快  
實懷尼是非一大公案仍論近世大義不明之害曰楊鄭  
之餘人心大變尊周之義殆於泯滅懷非我 孝宗大王

14판

却之則是自取辱於夷狄也彼既不受則其勢必彰言於  
行中以著其廉歸告於其主以固其信天下聞之當以我  
爲何如也且只給副使猜疑之端必生於其間亦不可不  
慮也克登累不受言于上价遂生疑怒屢爲層出一如公  
言公雖迫於 嚴旨未免乍出供仕而不欲久居清要旋  
即引入未久掌令徐命遇者上疏復提復科事肆意誣捏  
公益知時事不可爲連有 除命并不就公之在 經筵  
也所陳多觸忌諱至是 上意亦與前稍異無甚勤摯公  
遂求外以兼文學除谷山谷是海西嚴邑士習質實不知  
爲學公聚境內年少子弟爲之誘掖日月刮磨儆近之士  
聞風來會振衣趨隅者日進文教大闢儒風蔚興遂變  
椎樸之俗終爲絃誦之鄉甲午陞義州府尹以前尹仍任

13판

弘華遇逆意之事未嘗有忿激峭厲之舉故一家稱其和  
鄉黨稱其德朋友稱其善儉素淡泊不喜華靡晚歲位顯  
年老衣冠如寒士其立朝也引君當道隨事格非奉職惟  
勤彈竭心贊前後 遼奏大小疏劄無非直君至謀經國  
遠猷也茲外爲政專尚教化斯文興起士林贊勳故所至  
輒有去後思或鑄石以頌或建祠以享曾自迨安歸時境  
內人士爭來送別於一宿之外坐中至有涕泣者谷山時  
嘗以事至營下連近士子翼瞻風儀刺紙雲集舍館不能  
容或隨至於中路者亦以百數其在海營擇控扼可守之  
處條列狀 聞以備陰雨衆土之策而 朝家不省焉識  
者恨之以爲他日必思公言冀營例有官貨散殖之規出  
入之際吏緣爲奸公一無所動益以廉約自勵所排席子

20판

人亦有優劣否相公曰也似有優劣伯夷之清下惠之和  
孔子之時豈無優劣公曰既云聖人則寧有優劣後者程  
子語曰聖人無優劣有則非聖人也朱子曰聖人本無優  
劣堯舜之揖遜湯武之征伐伯夷之清下惠之和孔子之  
時其道一也又嘗侍坐師門先生曰朱子大全有可考文  
字而卷秩浩穰未易搜出公即於坐上記而得之其見處  
之高明性之敏有人不可及者平日用工尤深於小大學  
晚又嗜讀中庸又惓惓於春秋大義如見其排擯者嫉之  
如私讐焉其居家也事親極其孝奉祭致其敬事伯氏如  
嚴父視諸姪如已子待宗族一以敦睦爲主平居必終日  
危坐造次無疾言遽色惰慢之氣不設於身鄙俚之言不  
出於口樸樸矣甚未嘗經手異端雜書亦嘗寫目性又涵

19판

豐區宇幹旋黃道而大義之說又不得存諸心而發諸口  
則挫之所謂真實者果何事耶惜乎其八十年工夫只做  
得大義虛假之說以誤世而已也乞令詞臣別爲一書如  
大詰多方推闡大義揭示遠邇使既晦之人心復明將陞  
之國脉復迨時 上久在靜攝使 王世子代理批辭優  
答之戊戌春諸道多士發尤春西先生及師門從祀之請  
時有正言鄭宅河者年少無識人也受媚嫉師門者之陰  
啖公肆詆誣不遺餘力且疑公鼓成此舉排擊并及於公  
子之居藏館者宅河先發成震齡者繼之至有煥燦氣勢  
等語公大駭俱曰書力辭 不許又下別諭曰當賑政方  
張之日以卿體國之誠不當一向引入且朝家若因意外  
人言變通此時重任則其損國體而誤民命也大矣卿其

16판

儒獨於上一二先正闡明於下則禮義之邦幾乎淪於左  
社矣雖天不助順 弓劍遽遺而然其遺風餘韻亦足以  
淑人心而明天理 宗社賴以靈長倫綱賴以不墜者是  
誰之力歟頃者公排大義以爲空言高論者忽發於巨室  
之筆昨春尹拯擬書出然後始知有所傳授嗚呼傷爲此  
說者是欲驅一世於長夜而擯人類於禽獸也自古聖賢  
不得切潤當世則寄諸言語文字者由周公以下皆是也  
若以其無成功而謂之虛假則春秋之作不足誅亂賊楊  
墨之闢不足比夏禹矣嗚呼世遠人亡大義寢微於斯時  
也號爲山林之賢者倡此說於其間而排之曰此假托  
也此空言也此高論也半世之人靡然從之綱淪法斁之  
禍豈料其肆行於 聖明之世也噫國少力弱既不能滌

15판



樊不堪處人有請改之者公曰吾嘗謁上於便殿殿中鋪席亦有補綴虞吾之居此已踰布衣之今何必新之終不許焉愛君憂國之誠根於天賦先王累歲遠豫公每見朝紙憂形于色今上久在侍湯講筵稱適及為賓客上書論為學之要又請取進朱子語錄朝夕觀覽仍令刊行以廣其傳蓋其書多是語類所不載而分門類記最切於學問治道故也其事師也尊慕服事如七十子之服孔子嘗曰生三事一之義至重且大自有懷尼事後師生之道盡為廢壞竊看近世子弟之於父兄少者於長老亦無行誼不知尊敬者率由於師道不明故也同門之士或有流於異論者或有息於致隆者各主私見專失師旨公曰此真所謂不待七十子喪而大義已壞者輒引義切責

21판

幾少撓焉從祀之議蓋宅河所沮敗公每急形于言曰此退堂牛諸先正所不免姑當靜而俟之豈無他日之公議乎凡有來學者必以隆師敬長之說反復曉諭提撕激勵人皆覺輻焉其引進後學也隨人才品詳擇善誘先以小學次及大學論孟中庸以為循序漸進之地常悲近世學者徒事口耳不務實學每戒曰學問非別件物事只是日用當行底道理苟考古人言行體驗於心身上可以有得矣或有以疑義來質者公隨問斯應若取諸袖中而與之無不由常聽者皆滿望焉其待人接物也開心見誠色笑可親和氣藹然表裏洞澈雖平日不悅者一見公儀容一承公德奇莫不心悅而誠服焉至其義利公私之分未嘗不嚴辭辯斥毅然難犯榮辱禍福立判於前而不顧焉

22판

女月山大君婢之後甚有婦德早世無子公實為慕記後配宋氏礪山大姓鄭守樸之女鄭承旨時吉之孫生五男三女男正魯佐郎取魯校理省魯若魯尚魯女鄭錫祚縣監黃在河俞與魯奉正魯娶生負韓碩佐女無子有一女以取魯子致良為後女沈錫取魯初娶判書李基夏女生二女洪啓稱趙正達再娶士人鄭鎬女生一子即為正魯後者三娶士人洪重琛女皆魯娶都事趙尚連女生二子一女若魯娶監司李海潮女生一子尚魯娶院正趙正萬女生一女并幼鄭一子二女子慎儉女李山培次幼黃一子三子女韓始大餘皆幼俞二子幼銘曰雲山鬱鬱雲水沄沄秀氣鍾靈世有聞人 有承其後公乃挺特 英爽之姿溫厚其德 詩禮家業黼黻我文

25판

崇祿紀元後再庚子秋謹埋 撰 罕休溪門正學有源 闡發理奧默契道妙 齊儀味腴 精詣深造 孝友內備敦睦脩行 出為世需實于王 庭 都俞一堂爾有嘉謨 啓心沃心志唐志虞 屢試 於外百里獨春 再按藩節文教不新 詞垣赤幘士林 山斗 時有屈伸進退隨遇 聲味雖香我義惟安志 與世違壽又天慳 瞻彼礪山松柏蒼蒼 彼高四尺君 子之藏 埋文殉地匪彼伊實 有來百世無毀無缺 通政大夫前承政院同副承旨兼 經筵叅贊官金幹

26판

雅有高趣不忘丘園平日所咏八懷詩所以誌其志也半世蹭蹬晚始知過而不幸時象險巇師門泥扼并居爭下腹刃潛懷平生蘊抱未展其萬一而天不慙遺又靳其壽嗚呼豈命歟屬續之日神氣泰然少無怙化之色子正魯等問後事答曰吾獲蒙 洪造致位卿班而尚不能立一言行一事所負者多何暇及於家事揮婦人出門外招弟姪諸子次第告訣即令屏去簾衣易布淨席遂正枕整衾而卧翛然而逝平日定力於此益可見矣嚴欽不用錦帛亦遵遺命也門人持服者六十餘人及葬千里冒雨而來赴者甚多間有徒步而至馬鳴呼公以清明之姿加篤實之學本源渾厚充積深廣規模極其大而不驚於高遠節目盡其詳而不滯於一隅沈潛反復於四書五經以求其

23판

實用博考旁通於子史諸書以訂其得失毀譽不累於靈臺喜怒不形於色辭一內外顯微而本之於誠質體用動靜而主之以敬工夫雖繁不為躐等以進期限雖寬未嘗少有間斷衆務盤錯而必知其要領群議紛紜而不惑於近似盡究諸儒之同異而謹守程朱之成法可謂篤志好學通才大儒也伯相公一時偉人也嘗曰吾弟心曾通達廓然無滯吾所不及也閔老峯鼎重李西河敏叔公之先執也年高位重公時尚少而數委訪咨以國事其主文垣也金三洲昌翁貽書於宋尚書相琦曰大硯歸於寶才可賀其致也大學士李公觀命誅之曰天地間氣公稟其精溫乎玉潔皎若冰清襟抱灑落鄙吝絕前時出緒餘觀者乃驚此皆記實非夸辭也公元配完山李氏護軍鳴震之

24판



002 건희1623  
윤사국(1728~1809) 묘지  
尹師國 墓誌

글 지은이 신위申緯(1769~1845)  
1809년(순조 9) | 백자청화 | 2점  
뚜껑 높이 6.7 지름 26.3  
접시 높이 8.1 입지름 26.3 바닥지름 13.6

LKH1623  
Epitaph Bowl of Yoon Saguk(1728~1809)

Written by Shin Wi(1769~1845)  
Joseon dynasty, 1809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H. 6.7 D. 26.3



뚜껑 뒷면



뚜껑 앞면



접시 안쪽



글 지은이 오수채吳遂采(1692~1759), 이종성李宗城(1692~1759),  
조하망曹夏望(1682~1747)  
1745년(영조 21) | 백자청화 | 21점  
높이 4.1 입지름 24.5 바닥지름 11.8

(1) 오수채가 지은 묘지



1판 앞면



1판 뒷면



2판 앞면



2판 뒷면

Written by Oh Suchae(1692~1759), Lee Jongseong(1692~1759),  
Jo Hamang(1682~1747)  
Joseon dynasty, 1745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H. 4.1 D. 24.5

(2) 이종성이 지은 묘지



1판 앞면



1판 뒷면



2판 앞면



2판 뒷면





3판 앞면



3판 뒷면



5판 앞면



5판 뒷면



4판 앞면



4판 뒷면



6판 앞면



6판 뒷면



(3) 조하망이 지은 묘지



7판 앞면



7판 뒷면



1판 앞면



1판 뒷면



2판 앞면



2판 뒷면





3판 앞면



3판 뒷면



5판 앞면



5판 뒷면



4판 앞면



4판 뒷면



6판 앞면



6판 뒷면





7판 앞면



7판 뒷면



8판 앞면



8판 뒷면



7-1판(중복) 앞면



7-1판(중복) 뒷면



9판 앞면



9판 뒷면



004    건희1756  
 밋자리 지도가 그려진 묘지  
 山圖銘墓誌

조선 | 백자청화  
 지름 16.9

LKH1756  
 Epitaph Plate with a Map of Graveyard

Joseon dynasty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D. 16.9



9-1판(중복)



9-1판(중복) 뒷면



9-2판(중복)



9-2판(중복) 뒷면



005    건희1922

상궁 김씨(1515~1586) 묘지

尙宮金氏 墓誌

1586(선조 19) | 백자청화 | 4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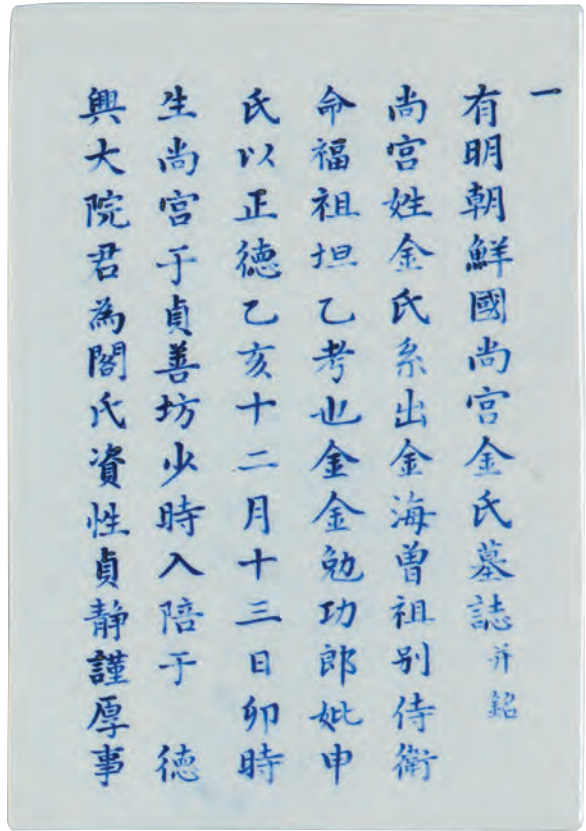
세로 25.6 가로 17.8

LKH19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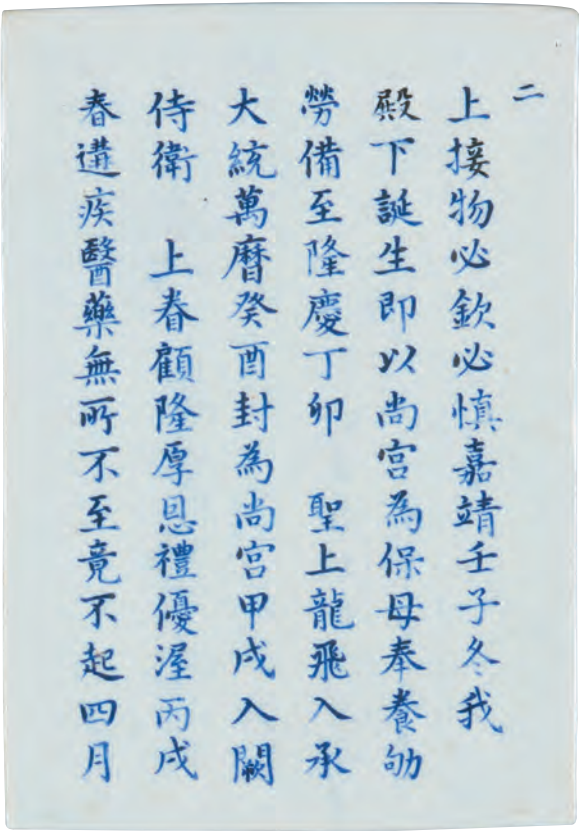
Epitaph Tablets of a Court Lady Kim(1515~1586)

Joseon dynasty, 1586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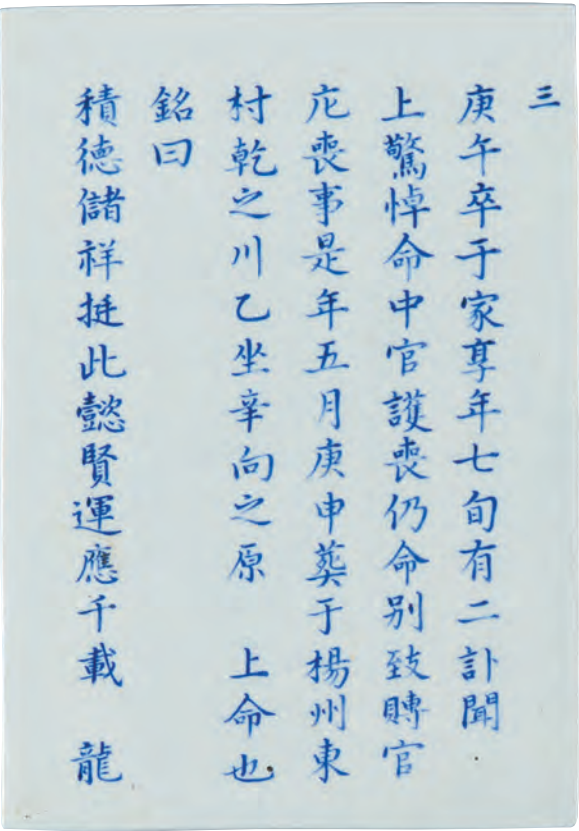
L. 25.6 W. 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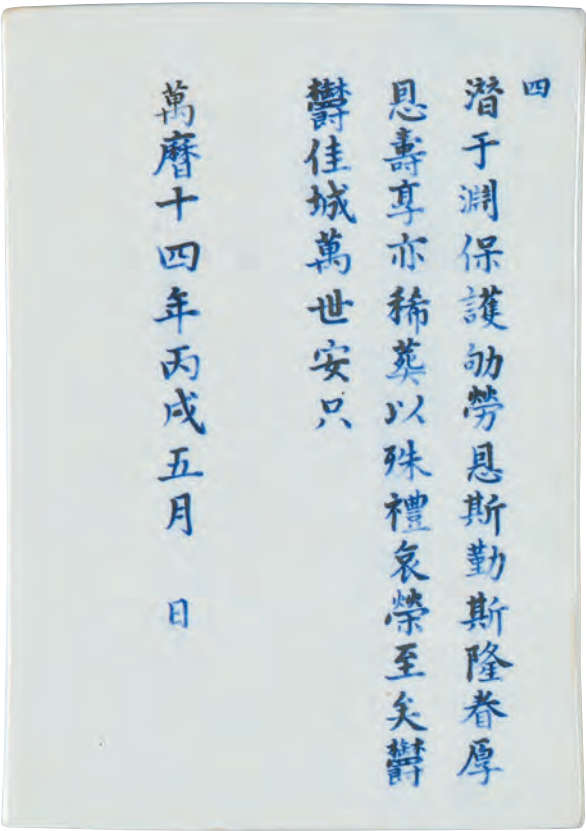
1판



2판



3판



4판



건희2125  
김집 (1574~1656) 묘지  
金集 墓誌

글 지은이 송시열宋時烈(1607~1689)  
1673년(현종 14) | 백자청화 | 20점  
세로 21.8 가로 14.4

LKH2125  
Epitaph Tablets of Kim Jib(1574~1656)

Written by Song Siyeol(1607~1689)  
Joseon dynasty, 1673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21.8 W. 14.4

有明朝鮮國崇政大夫判中樞府事 贈謚文敬公  
慎獨 兩金先生墓誌銘并序  
慎獨齋先生歿余撰作銘文其說蓋炯竝煉與門人  
尹宣舉等刻而揭諸神道矣既而其二廩及尹公相  
復論及余其諸孫萬里萬城等謂余曰此誌其具復  
以爲清鳴呼先生之門聲發者多而至於今日存者  
惟余矣雖老且病亦何敢辭謹按先生諱集字士剛  
沙溪老先生之弟二子也妣曹夫人會樞大乾女萬  
曆甲戌六月六日先生生漢陽貞陵洞里第安性絕  
異學語時豎一指于其口曰此中字也五歲而知讀

1판

書作大字言動不妄稍長從泉谷李公象賢宋龜峰  
翼弼學崔簡易並見所作詩語曰將為大手筆也壬  
午老先生守制在廬舍先生所以侍奉助奠無不如  
禮丙戌曹夫人歿先生致哀有羸疾中辛卯進士庚  
戌用館薦授齋郎不就癸丑誣告獄閣門幾不免遂  
奉先生歸湘西之連山時廢朝政亂倫常殺絕先  
生養親諸學外乃然靡他癸亥 仁祖大王御極老  
先生首被 徵命建議以先生學行出類特擢實臺  
職先生丐免甚力爲養得除扶餘縣監務法樂政施  
以教化日與士子討論經籍丁卯 宣祖大王御極碑頌

2판

金某一生沈潛性理之學使侍東宮則必有薰陶之  
益 台昔甚懇丙戌春尼山賊柳淮等謀亂伏法其  
爰辭有不最近金永旨廬下之語 上數曰雖賊徒  
猶知畏憚賢者之有益於人國也如是矣 上以清  
陰金文正公言別置 世子贊善屢 召道有工曹  
之命蓋自己卯退歸之後除命頗繁而一以病辭曰  
世道之責自有其人矣已丑 孝宗大王副位特召  
曰此間極之日益思得古讀書之人爾在 先朝  
猶未嘗一日在朝况予諱諱焉能上來先生即入臨

5판

仍謝 新命使賜米饌持拜禮曹參判銓曹以指外  
爲言 上曰格古無書之人何可拘於常規先生四  
疏懇辭又再召則 上曰強其所不欲亦非待賢之  
道遂移工曹上封事論吏治及時務其略曰臣竊惟  
天親天秩自有典章古經國制曰事相承當初急遽  
未免放過前頭節大槓宜講究全略論其梗概爲一  
冊以進翼 殿下特賜指揮以爲一王之制又曰天  
下之大木 殿下之一心是也今日之急務振紀綱  
嚴宮闈用賢良任民隱實教是也又論大行易名  
及自強之道求言安寘諸孫早宜致選蓋 昭顯世

6판

德戊辰除臨陂縣令未幾謝歸自後仍有翊衛司衛  
率全羅鄙事之 命皆辭辛未秋老先生易簀先生  
尚能以筋力為禮克誠克慎極致情文甲戌春拜繕  
工僉正夏以司憲府持平 召上辭狀翌年復拜丙  
子春由掌令再為執義間為宗親府典籤宗簿寺正  
皆以病免丙子冬虜至先生星夜赴亂未及 行朝  
賊已塞路遂退與同志糾合義旅將北上勤王俄而  
聞嫌成先生入都進慰戍寅秋浪 徵以執義呈狀  
邇冬有人上變先生庶弟景被逮事將不測先生昇  
疾入京與弟參判公樂席蓐待命 上特命安心退

3판

去仍曰景固有妄言之罪而特為其父兄原之已卯  
復有 台命先生以前冬事無微一謝 隆恩遂造  
朝陞拜承政院同副承旨再辭不許既入侍 上慰  
諭備至講說經義日進規戒 上甚傾聽曰可悉陳  
所懷先生曰人主一心萬化之源誠能存養察其所  
幾則人欲退聽天理流行矣 上曰此先舜心法予  
當體念又問治心為政以何為要先生曰治心當以  
敬為主而為政則貴在誠實矣 上稱善改右副辭  
以疾 上問以醫藥先生乞遯蓋力遂許之後累除  
元孫輔養官曰經明行脗實合此任甲申秋拜工曹

4판

子三子嘗坐其母窻外也 上手批曰所上諸事數  
服其切實第皆引而不發願更明以教我仍命訂定  
小學註說及中庸或問句讀以進拜司憲府大司憲  
時儒臣忤旨有 嚴批先生諱職仍進啓曰人主聽  
言之道惟在虛心客容諫諍令之間必須從容平穩絕  
不可暴怒不平使蒙下議其淺深也 御批卿言至  
此予亦悔焉三拜令該曹讀諭而賜對 上曰微相  
見久矣卿今上來竹簪可喻國無所寶惟卿是寶先  
生曰臣嘗於 先朝只以人主一心為言誠以此外  
無他道也為治之道在於得人而得人之要又不外

7판

於一人之精微矣 上皆虛心嘉納 上欲於 山  
陵及魂殿並祭 王妣先生曰吉凶不可並行先正  
臣李滉已有所論矣又欲於返哭後設安神祭先生  
又曰於禮無可據之文旋拜都憲又進言曰近日除  
拜之間或失聖人平蕩之義如此則國事無復可望  
伏願克去已私務循至公焉 批曰卿之愛予如此  
深用嘉歎時有一種人不悅於金文正公頗無遜言  
先生又論之 御批以為小官侵侮元老無乃予之  
尊敬未至而然歟 上以先生懇辭不已遽拜工曹  
參判 山陵既復土先生屢乞退不許以特進入侍

8판



之興 上即命加資同拜吏曹判書時先生年七十有九先生辭以年未卒格至於四疏 上竟許之代而 教曰金某年既耆艾餘日無幾其令不道顯給食物以養予意先生又辭謝 批曰予之慕卿齒德容有極乎以不能朝暮得暇德音為士林矜式為恨顧此薄物何足云喻先生乃與宗族鄉黨共享之矣已申前 命陞正憲有大臣言起加崇政連拜議政府左參贊判中樞府事先生前後請辭至於七疏並不許朝有大議論 上遣官就問先生自數年前有微恙至丙申轉劇而端莊檢束無異平日謂諸生曰

14판

何以哉日後如得相見當談笑如平生矣若臣之當還不但此一事而已臣年迫病劇消埃無補豈宜漁然於旅鮮以貽千古之譏乎先生既去而時事益不可收拾矣又敵入日謁求竭將不測類 上親為編縫事幸得已先生益無意於世 仁祖初薨力疾赴班 上欲引見而先生已歸矣拜大同憲時俞公榮有遠寬之命先生辭職曰臣嘗言俞榮之賢請同被體疏再上 批曰連見疏章悅若對面意世道至此思用老成誠切乎中也自後連辭 命俞去辰是臣李泰淵啓言金某乃一代儒宗自 上特加優老

13판

金某王清而不激介而不矯承累世積美之餘開詩禮淵源之訓以孝悌忠信為立身之本窮理居敬為進修之方其規模節度一以家學為準幼有華藻稍長即不屑也惟專心性理之書早夜孜孜操存踐履恭敬退讓其言談舉止無一毫放過中遭道消廢困而亨日侍鯉庭凡事親之道必竭其力終始如一日老先生亦深加愛重父子間自謂知己老先生既歿一遵其法雖以氣質之稟而造德各異其道則未嘗不同也嘗曰所貴於學者為其言行相顧幽顯一致不然則鸛鵲之能言耳古人所謂獨行不愧影獨寢

16판

知死生之理而無所動於心此則吾無愧於古人又戒從子益熙曰文衡銓長萃於一身吾為汝懼可十分慎之五月十三日啓手足訖聞 上曰金某儒林領袖朝廷重望其特賜禮葬近臣致祭後賜諡文敬及 孝宗大王稱 大廟以先生配食墓在連山天設山孤雲僧舍之址金氏出自光州新羅末王子興光知國將亡自為庶人遁于光其後子孫益顯連八代為高麗平章世彌其居為平章洞我朝國光官左議政有諱繼輝 宣祖朝名臣是生老先生先先生諱長生謚元元公先生端方審密溫雅和粹如精

15판

如何哉即拜都憲而曰勿拘常規每入講筵俄陞拜吏曹判書曰不與之共天位治天職則非王公之尊賢也先生遂出謝恩竭誠心以答知遇朝野爭相想望先生入對曰 殿下嗣服已半年而治體不立國勢愈蹙嚴咎安在 上曰非不勉勵才實不逮先生曰 先王反正者俊在朕非今日少而奇無底績之盛可為千古之恨或慮今日復如前日臣不勝私憂也且如符堅固不足道然必得一時 才以做事切又如秦穆公用飯牛者為相苟知其賢何資殺之可拘 上曰卿言甚好先生又曰人主之量貴於恢弘

10판

練然不能自定臣何敢一刻淹留乎即出江外 上勉留甚至先生行且陳疏 上下手批曰卿之不念國事潔身長往何至於此國事雖危所恃者唯一二大臣與卿耳廉頗戰國之士尚能忍辱相下以濟國事以卿之賢豈不知此須念國事之重速為入來於是金文正公復劄請召還館學諸生亦上疏先生行三日史官退及敦諭 上知先生不可回特遣右相以慰輿情先生既還上疏曰臣與金瑋有久要之好無相失之嫌特以大同論議不合而有一場之闢在下辭避道理當然初非廉頗相隙之比也然右相亦

12판

進講中庸曰言耆俊之弊已而歸意益去政府王堂太學諸生交章請留金文正公曰昔司馬公謂國事付之呂晦叔今日付之誰遂上劄曰汝伏見金某儒門宿望老成端亮士林莫不嚮仰聖明得致同朝臣以為不宜苟簡其去以輔時化也 上再遣近侍留之先生辭謝遂出 上接台先生從子承旨益熙于寢殿曰爾其任職乎意將以遠爾者冀其善論也先生不得已入 遣侍使賜起居先生又再疏乞許退 上曰亦慮其勞天數要為年行役之為難也為余暫留則國家之補益士林之矜式為

9판

而近來忤旨之人顯有疎外底意思且大同之法要皆老成可喜先生遠遭喪威且有疾三疏請肆 上慰諭間疾既行大政後又乞免不許時右相金瑋力主大同之議與先生不合願優先生先生自劄曰頃者右相來問大同便否臣以為重難於前帶略陳見昔司馬光范鎮志同道合而至論樂律則終始參差韓琦范仲淹上殿未嘗言同下殿未嘗失色古之君子和而不同如此何嘗一言不合而使 不平相加哉至其所謂觸忤時忌救死不贖之語臣請來

1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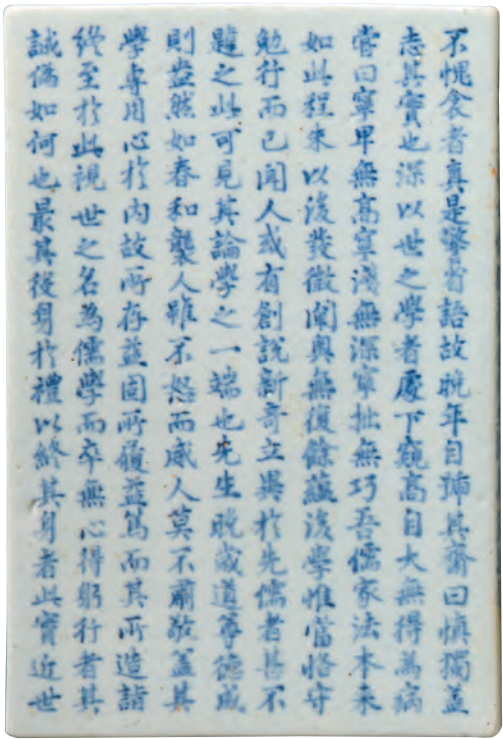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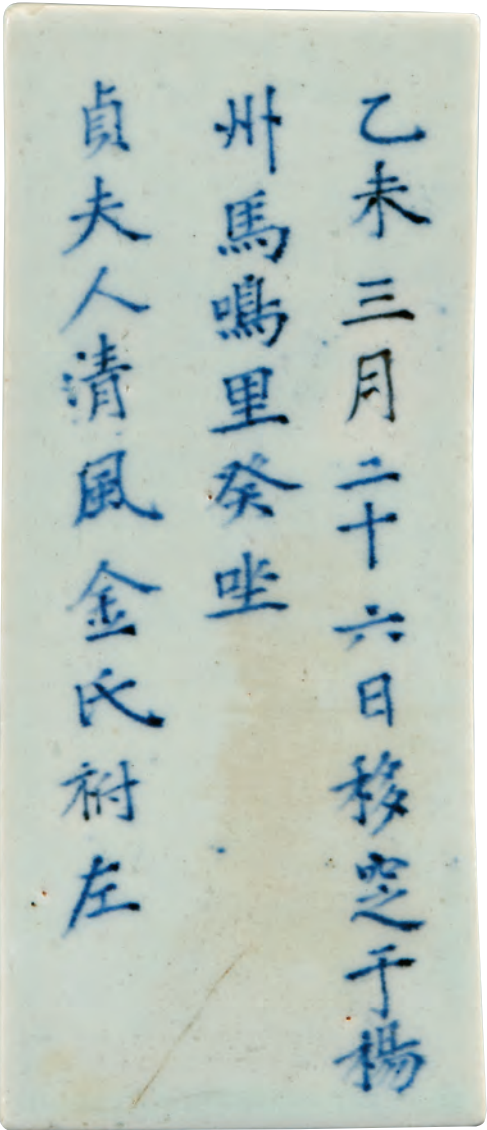


007    건희2450  
정부인 청풍 김씨 묘지  
貞夫人 淸風金氏 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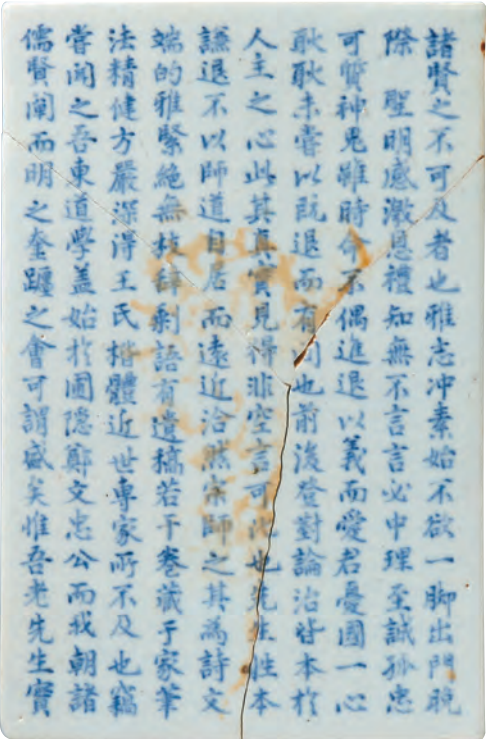
조선 | 백자청화  
세로 18.3 가로 7.9

LKH2450  
Epitaph Tablet of Lady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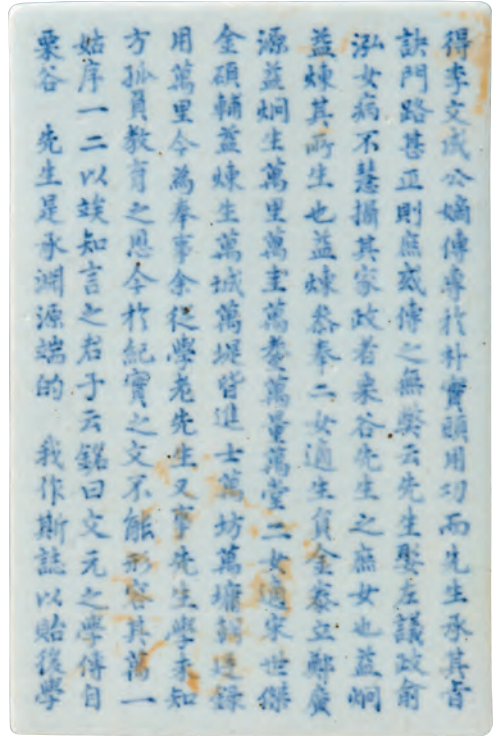
Joseon dynasty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18.3 W.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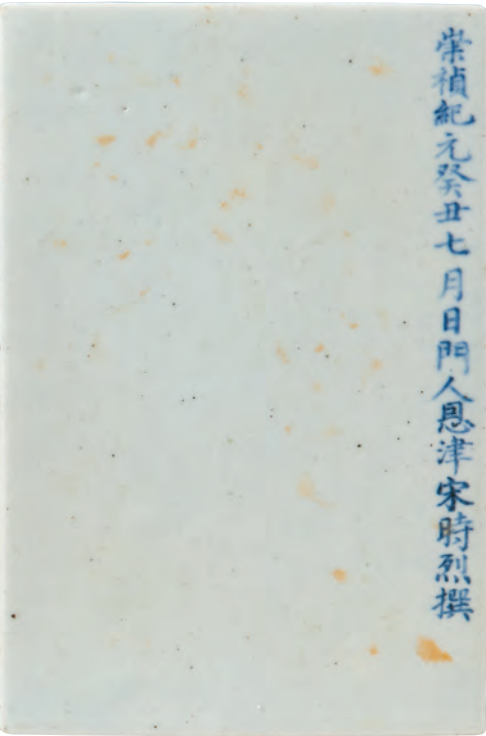
17판



18판



19판



20판



김인백(1561~1617) 부인 안동 권씨(1564~1632) 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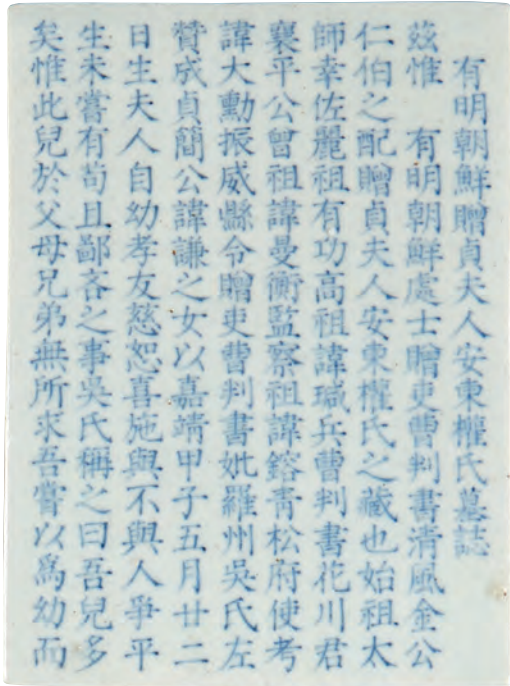
金仁伯 夫人 安東權氏 墓誌

글 지은이 김재로金在魯(1682~1759)  
1753년(영조 29) | 백자청화 | 7점  
세로 18.2 가로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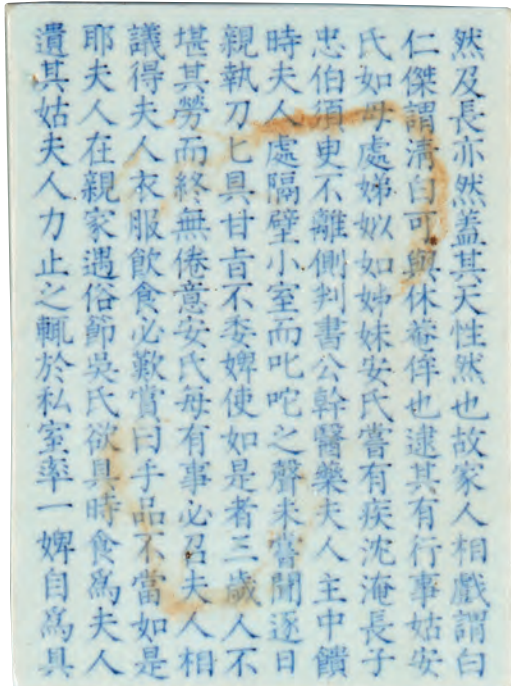
Epitaph Tablets of Kim Inbaek(1561~1617)'s

Wife Mrs. Kwon(1564~1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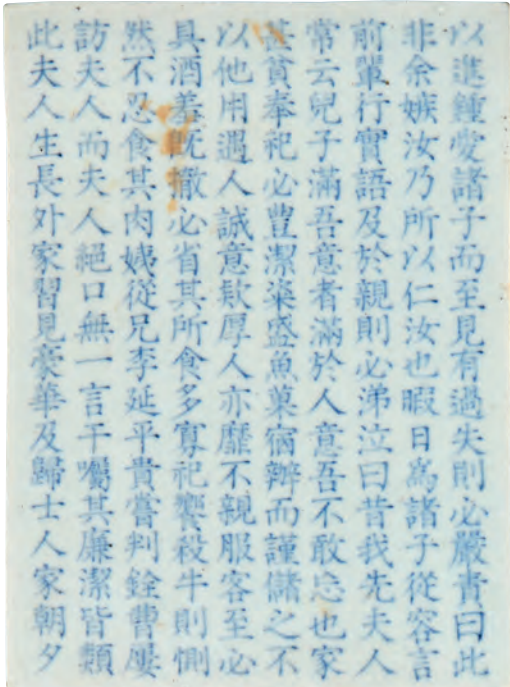
Written by Kim Jaero(1682~1759)  
Joseon dynasty, 1753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18.2 W. 1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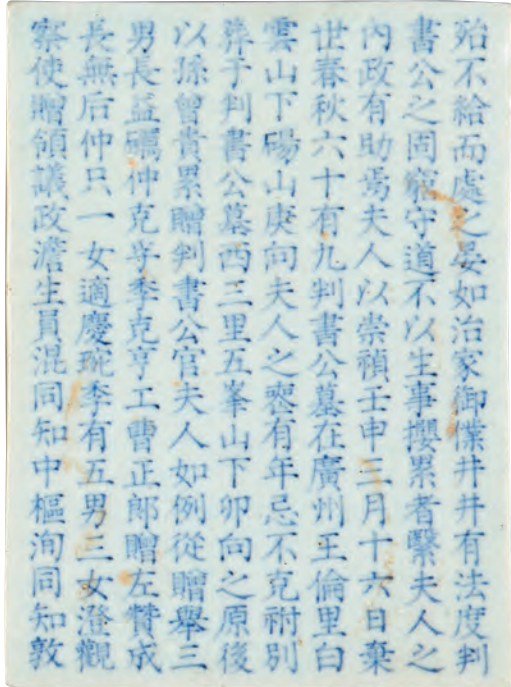
1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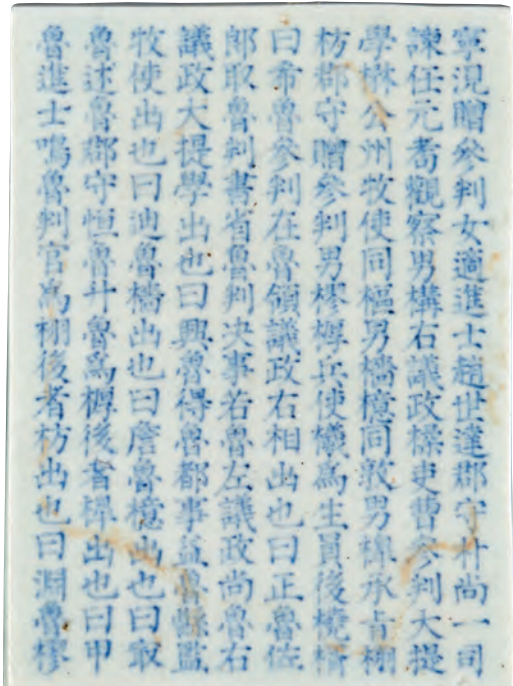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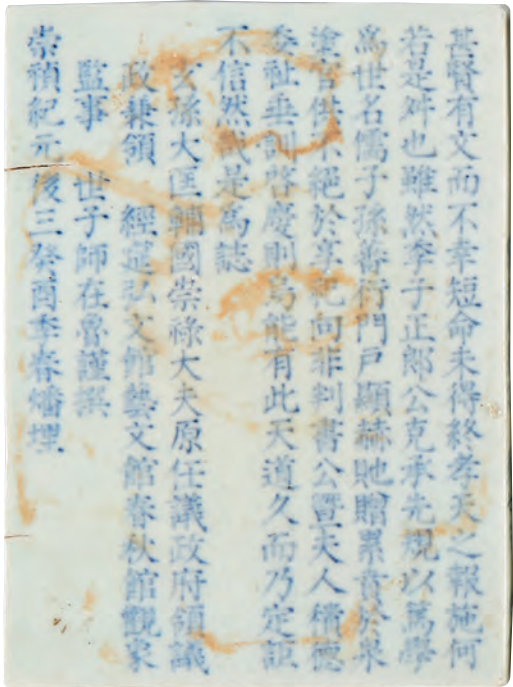
3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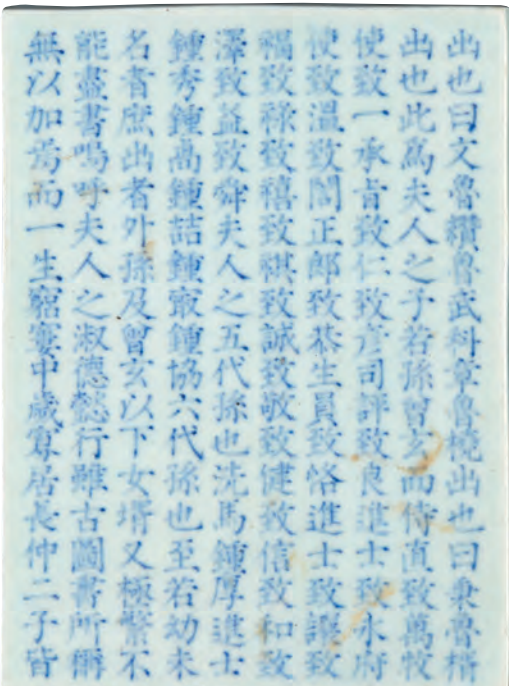
4판



5판



7판



6판



009    건희2493

권결 (1534~1605) 묘지

權潔 墓誌

글 지은이 조희일趙希逸(1575~1638)  
1605년(선조 38) | 백자철화 | 3점  
세로 22.2 가로 20.2

LKH2493

Epitaph Tablets of Kwon Gyeol(1534~1605)

Written by Jo Huil(1575~1638)  
Joseon dynasty, 1605 | White porcelai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L. 22.2 W. 20.2

010    건희2517

김방행 (1738~1793) 묘지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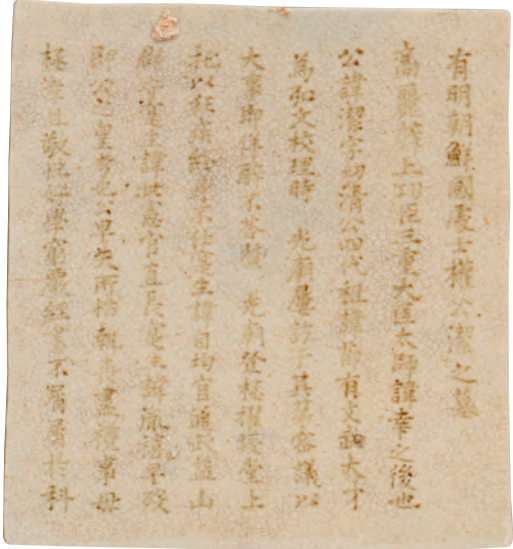
金方行 墓誌

1793년(정조 17) | 백자청화  
세로 21.4 가로 17.5

LKH2517

Epitaph Tablet of Kim Banghang(1738~1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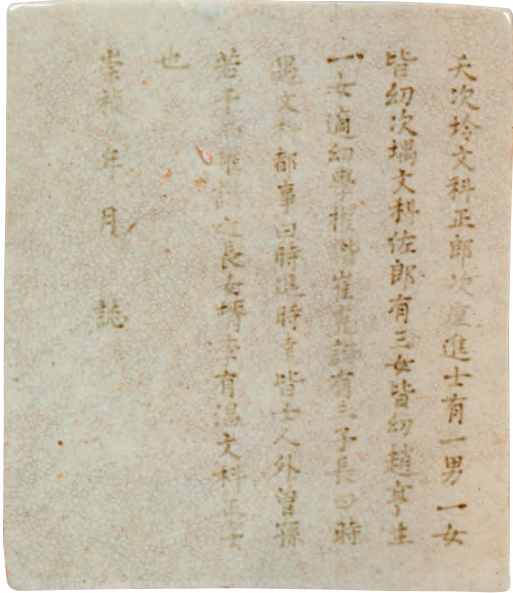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793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21.4 W. 1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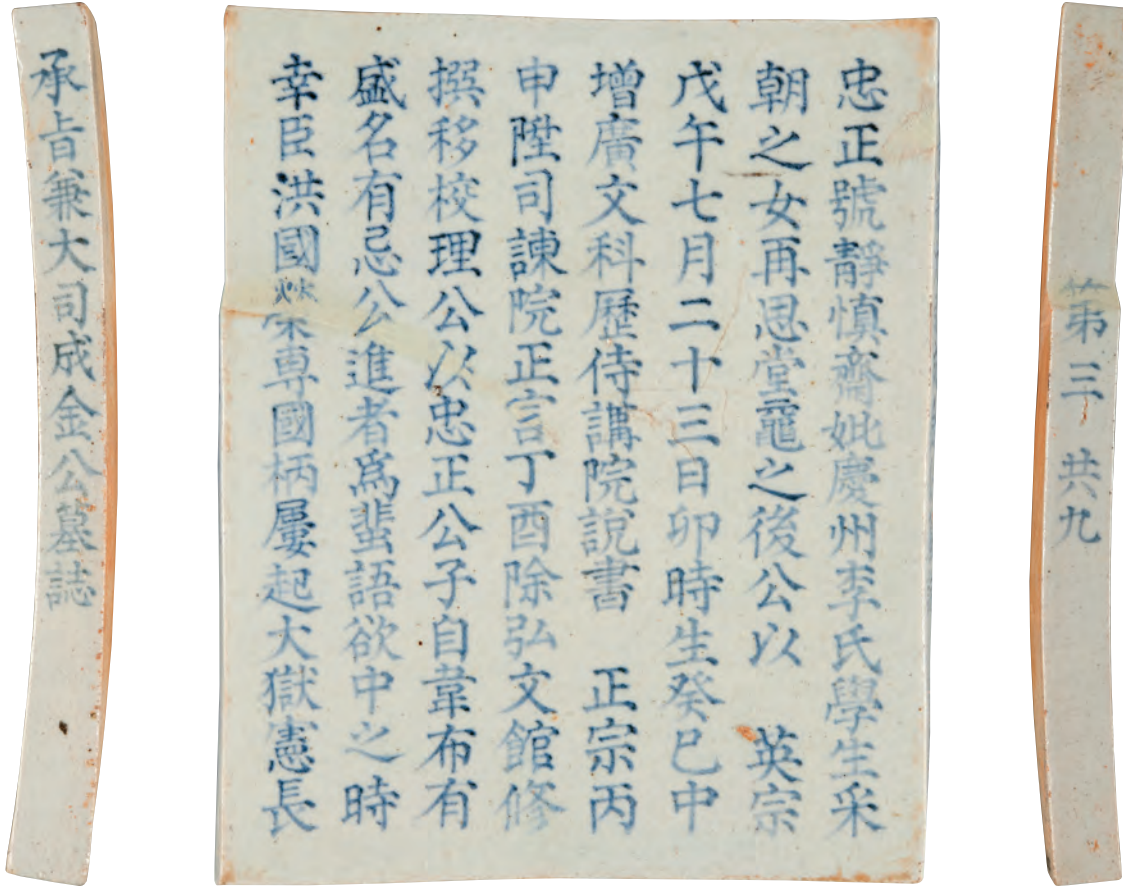
1판



2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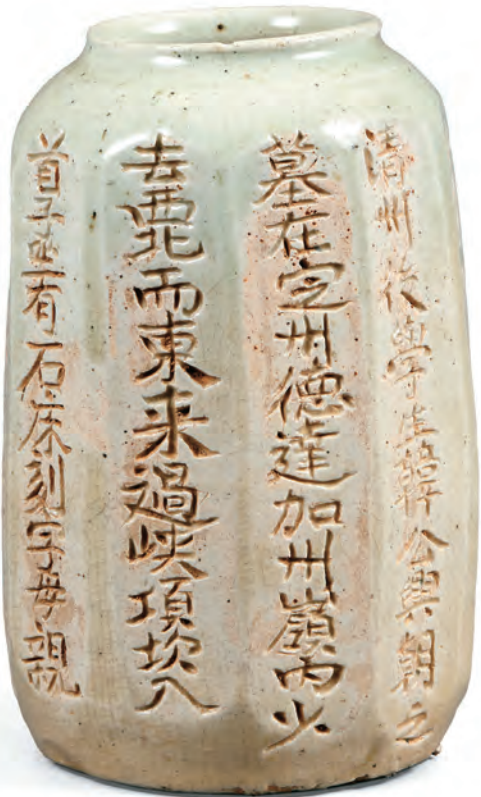
3판





011 건희2533  
한흥조(?~?) 묘지  
韓興朝 墓誌  
글 지은이 한학주韓學周(?~?)  
조선 | 백자  
높이 19.8 입지름 7.7 바닥지름 13.0 최대지름 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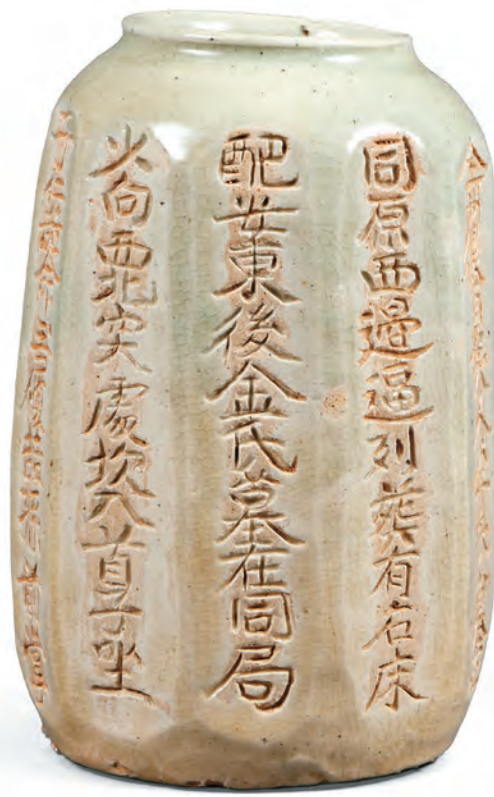
LKH2533  
Epitaph Cylinder of Han Heungjo  
Written by Han Hakju(?~?)  
Joseon dynasty | White porcelain  
H. 19.8 D. 13.0



1



2



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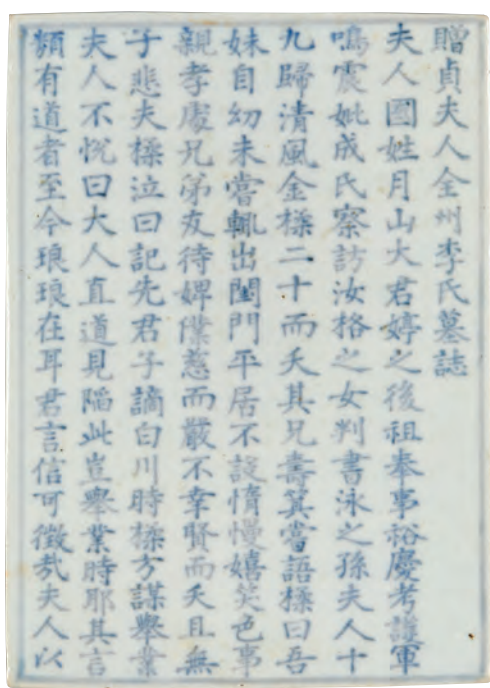


012    건희2562

김유(1653~1719) 부인 전주 이씨(1651~1670) 묘지

金樛 夫人 全州李氏 墓誌

글 지은이 김유金樛(1653~1719)  
1721년(경종 1) | 백자청화 | 2점  
세로 19.1 가로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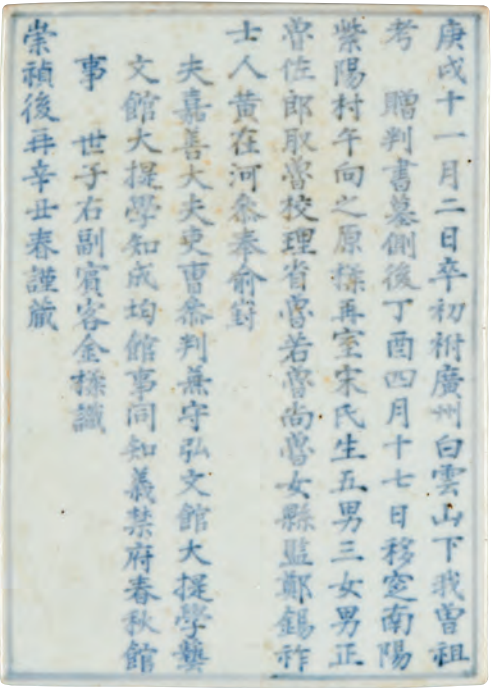


1판

LKH2562

Epitaph Tablets of Kim-Yu(1653~1719)’s  
Wife Mrs. Lee(1651~1670)

Written by Kim Yu(1653~1719)  
Joseon dynasty, 1721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19.1 W. 13.6



2판



013    건희2570

안종탄(1490~1538) 묘지

安從坦 墓誌

글 지은이 안종무安宗茂(?~?)  
1761년(영조 37) | 백자철화  
높이 20.5 입지름 13.4 바닥지름 11.4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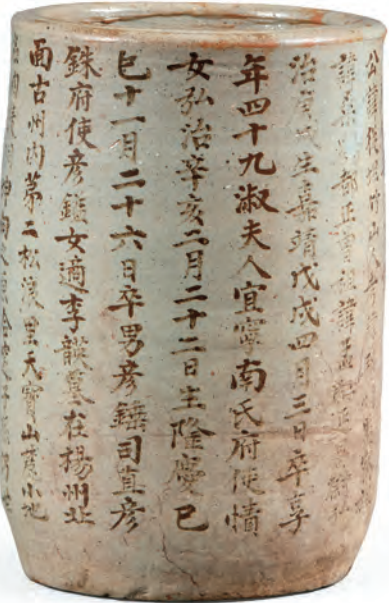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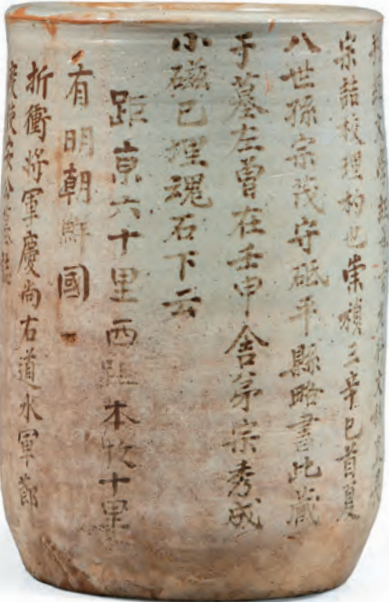
LKH2570

Epitaph Cylinder of An Jongtan(1490~1538)

Written by An Jongmu(?~?)  
Joseon dynasty, 1761 | White porcelain painted in underglaze iron-brown  
H. 20.5 D.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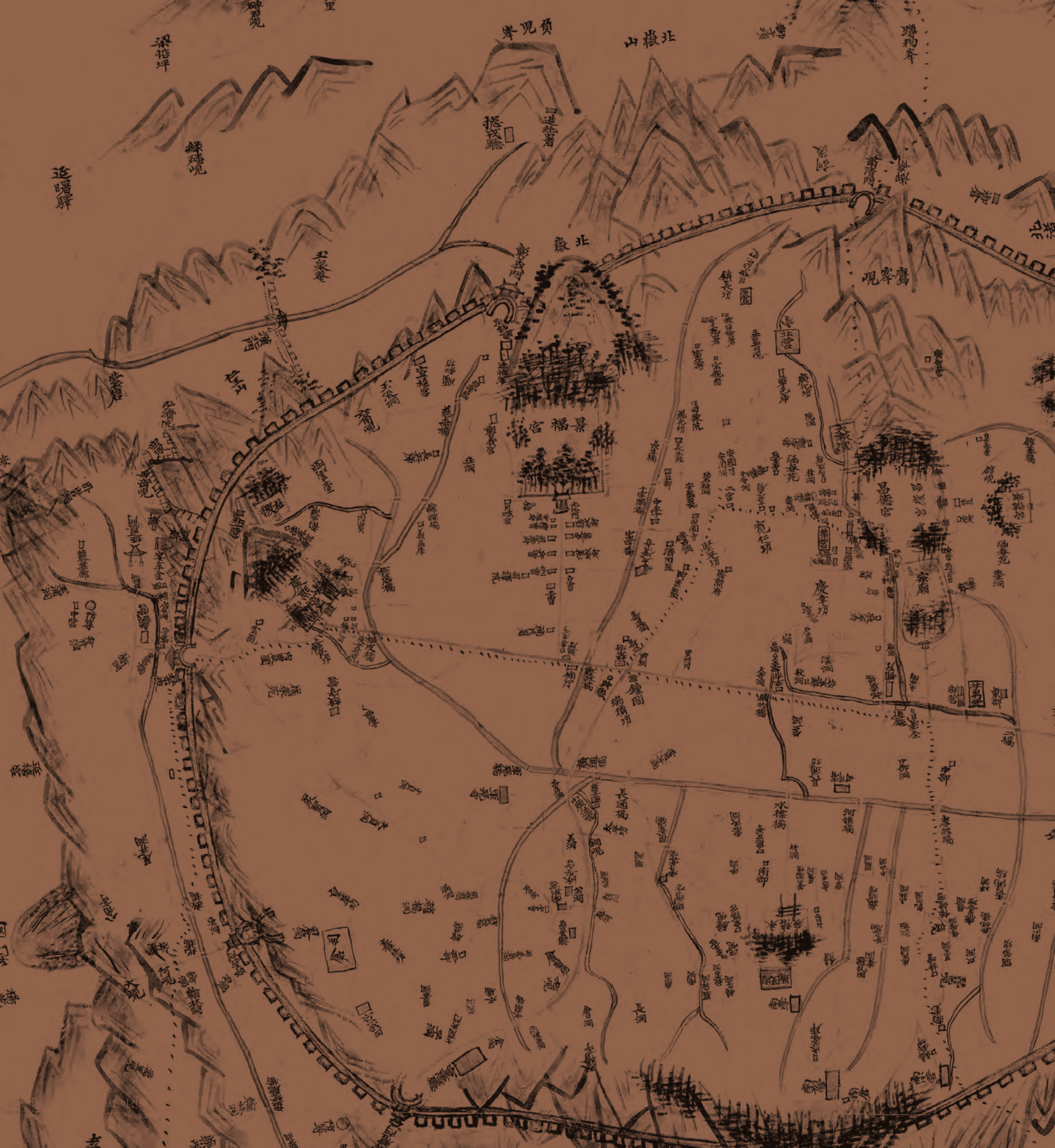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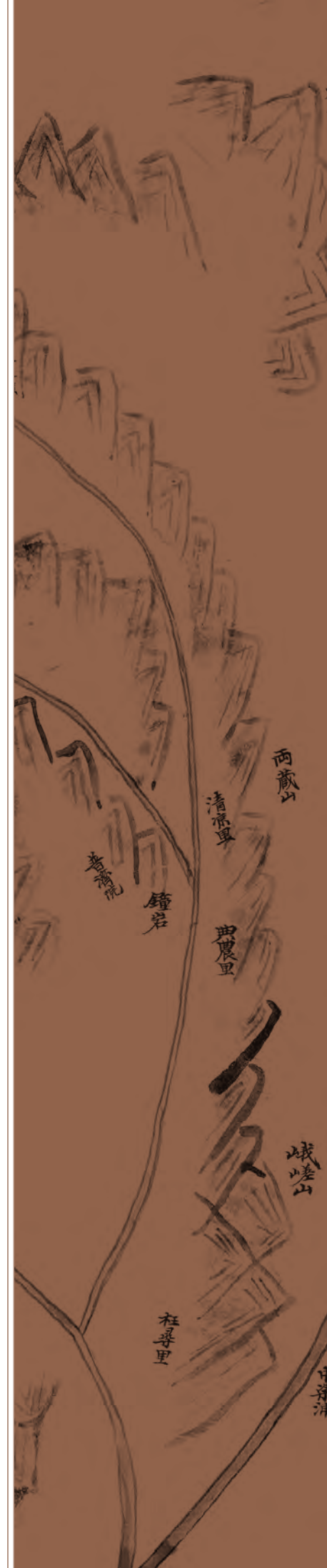


4





## II. 지도 Map





## 2. 지도地圖

고 이건희 회장 기증품 중에는 고지도古地圖 14건이 있다. 모두 조선시대 만들어진 지도로, 우리나라 지도뿐 아니라 인접 국가인 중국, 일본, 류쿠 등을 함께 그린 지도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를 대표하는 정상기鄭尙驥(1678~1752)가 제작한 동국지도東國地圖 계열의 지도와 김정호金正浩(1804?~1866?)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가 주목된다.

동국지도 계열의 지도는 4건(건희3949·3950·3951·3956)이다. 정상기가 백리척百里尺을 활용하여 각 도별 지도를 제작한 이래로 비슷한 체제의 지도첩들이 만들어졌다. 이들 지도들은 한반도 전체를 묘사한 전도全圖와 도별 지도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여백의 주기사항들이 각각 다르다. 정상기의 발문 내용이 적혀 있는 지도(건희3956)도 있지만, 고대사와 관련한 내용을 빼곡히 주기한 경우(건희3949)도 있다. 구성에서도 그 차이가 확인된다. 보통은 경기도와 충청도를 함께 그리지만, 각각 따로 그린 경우(건희3950)가 있고, 전도 대신에 천하고금대충편람도天下古今大總便覽圖라는 세계지도와 천하국도를 각각 포함하고 있는 지도(건희3951)도 있다. 18~19세기 도별 지도의 제작 양상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대동여지도는 2건이 확인되는데, 건희3946은 본래 목판으로 인쇄하였던 대동여지도를 필사筆寫하여 이어 붙인 뒤 배접하고 큰 축으로 장황한 것이 특징이다. 펼치면 세로가 약 685cm, 가로가 약 400cm에 이르는 대형지도가 된다. 건희3947은 목판인쇄본 대동여지도이다. 대동여지도는 총 22첩으로 이루어진 지도첩인데, 1첩(표제, 도리표道里標, 지도표地圖標 등 수록)과 2첩(백두산, 함경북도 등 수록), 13첩(강원도·경기도·인천·강화도 등 수록)과 22첩(제주도 수록)이 결실되었다.

이 외에도 조선후기 지도제작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들이 있다. 건희3948은 중국과 한반도를 크게 표현하고 일본과 류쿠를 포함한 세계지도이다. 영토에 대한 자세한 정보 수록을 넘어 주변국가, 세계로 그 관심이 확장되었던 양상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도별 지도 중에서도 경상도 지역의 산 이름을 기재한 산명도(건희3958), 지명을 한글로 적은 지도(건희4183), 영월 장릉莊陵의 위치를 그리 지도(건희3953)과 왜관倭館 내부의 건물 위치를 그린 지도(건희3952) 등이 확인된다.

제10집 수록 지도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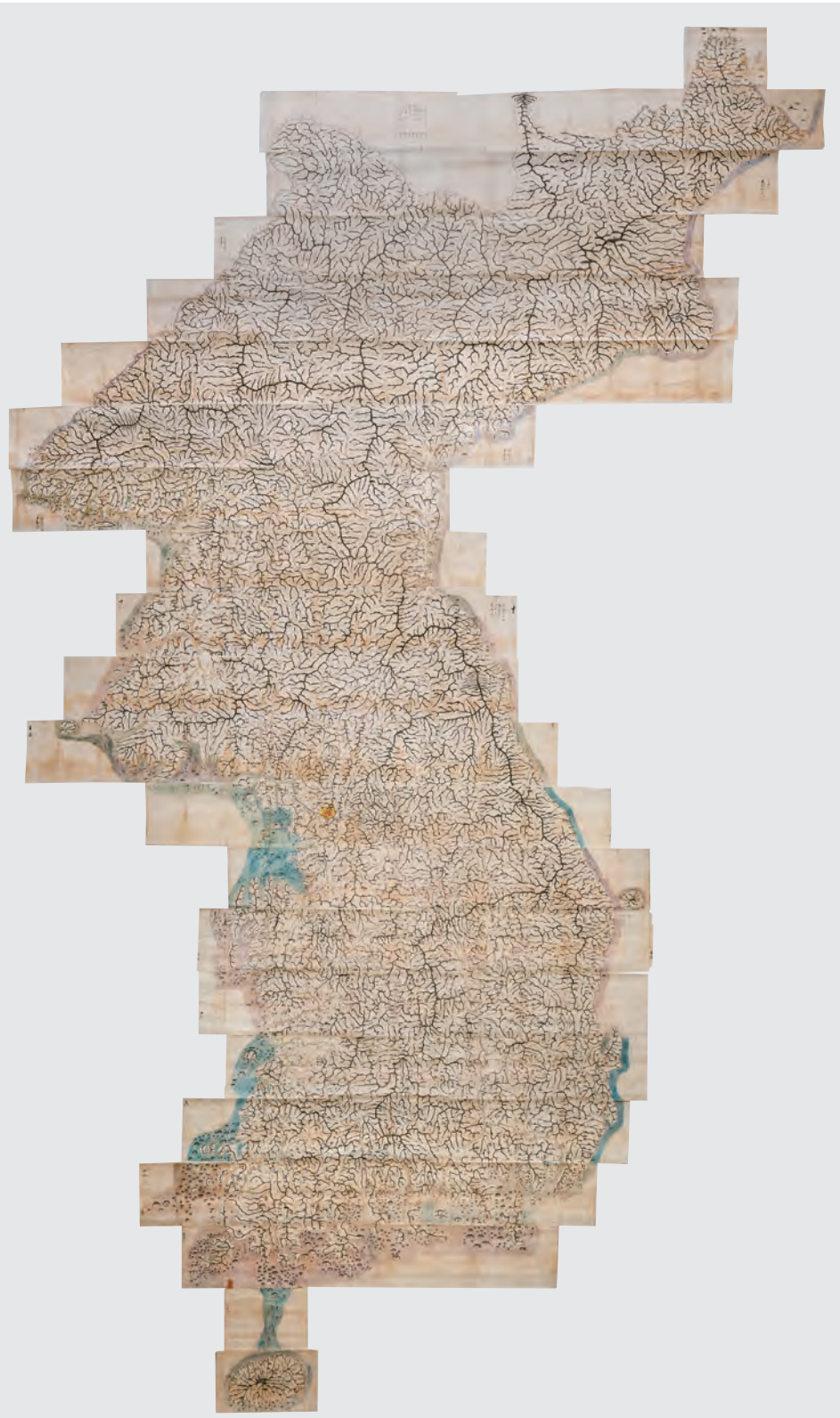
소장품번호	명칭	수량(면수)
건희3946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
건희3947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18
건희3948	동아시아 지역을 그린 지도天下地圖	1
건희3949	동국지도東國地圖	8
건희3950	전도와 도별 지도가 수록된 지도첩海東圖	9면
건희3951	도별 지도와 세계지도가 수록된 첩 天下古今大總便覽圖	10
건희3952	동래부의 초량 왜관을 그린 지도草梁倭館圖	1
건희3953	장릉莊陵(단종의 능)의 위치를 그린 지도寧越莊陵圖	1
건희3954	한양 도성을 그린 지도漢陽京圖	1
건희3955	한양 도성을 그린 지도都城圖	1
건희3956	동국지도東國地圖	8
건희3957	팔도의 고을 지명을 적은 지도八道地圖	1
건희3958	경상도 지역의 산과 지명이 적힌 지도山名圖	1
건희4183	한글로 지명이 적힌 세계지도와 도별 지도地圖帖	19면





014 건희3946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목서, 채색  
세로 685.0 가로 400.0

LKH3946  
Territorial Map of the Great East[Korea]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and color on paper  
L. 685.0 W. 400.0



015 건희3947  
대동여지도  
大東輿地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목판 인쇄 후 채색 | 18첩(1, 2, 13, 22첩 결실)  
1첩 세로 30.5 가로 20.0

LKH3947  
Territorial Map of the Great East[Korea]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Woodblock print on paper  
L. 30.5 W.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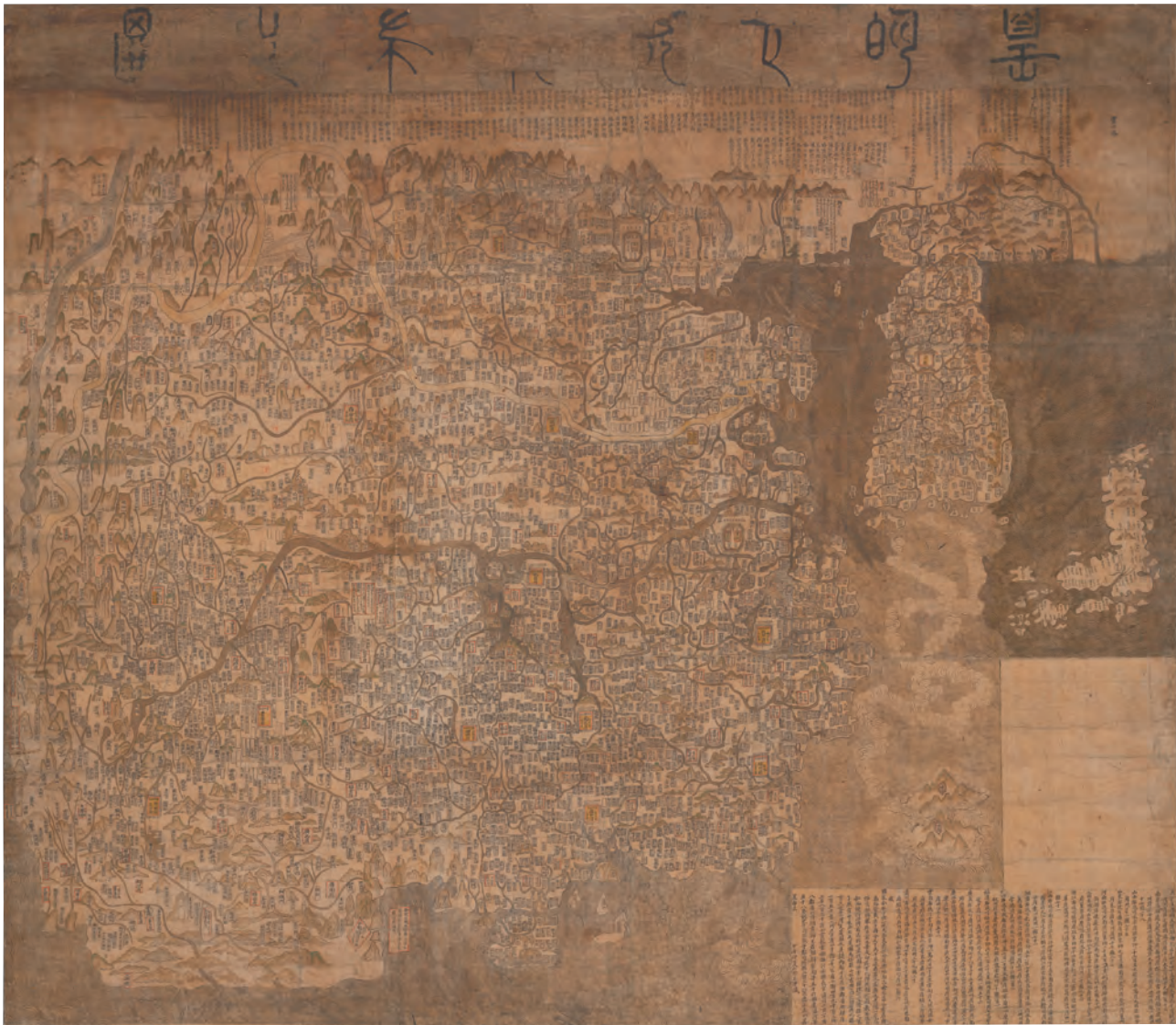
3첩 일부 펼침



동아시아 지역을 그린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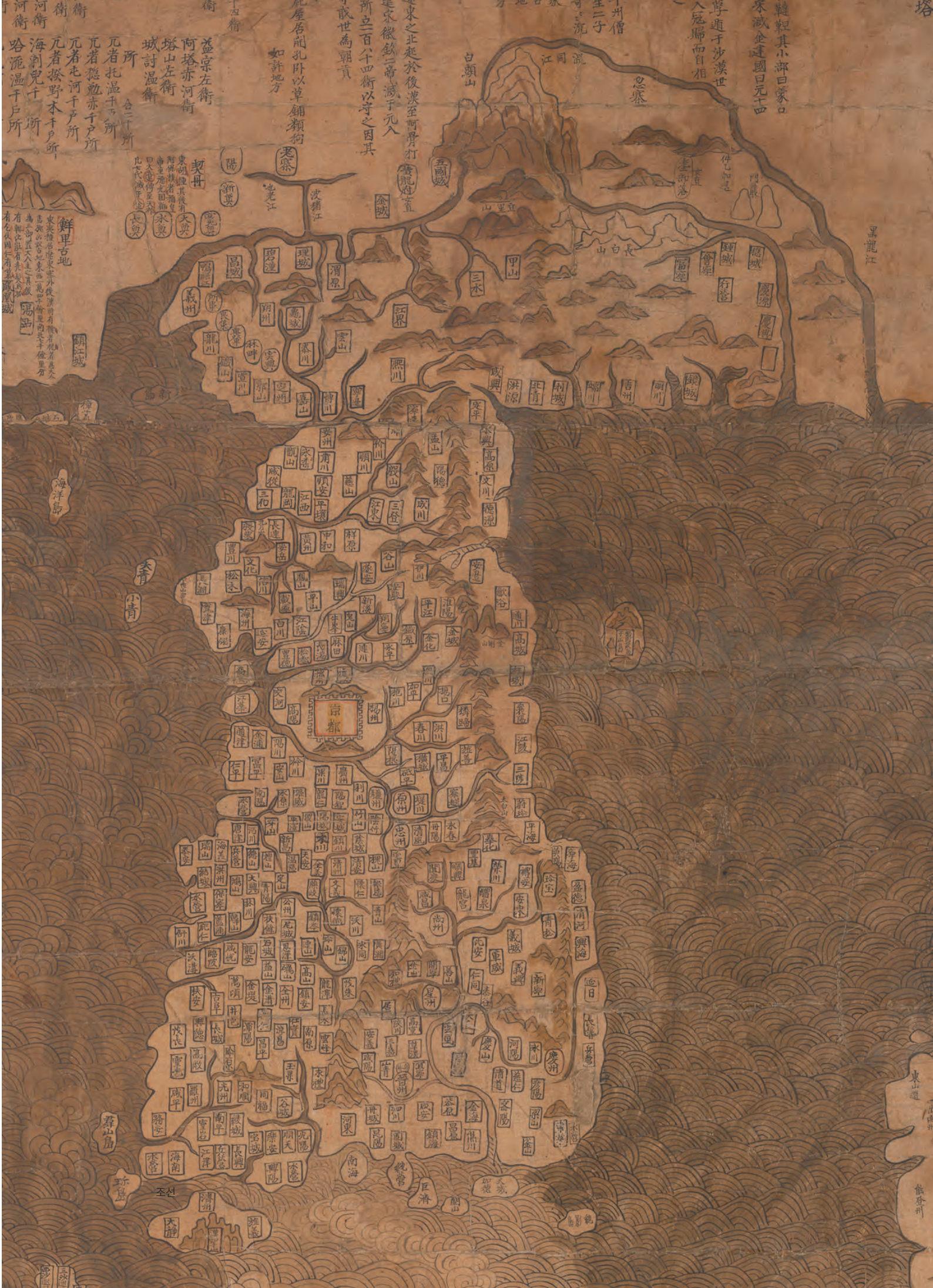
天下地圖

조선 18세기 I 중이에 목서, 채색  
세로 187.0 가로 214.0



Map of the Estern Asia

Joseon dynasty, 18<sup>th</sup> century I Ink and color on paper  
L. 187.0 W. 214.0





동국지도  
東國地圖

조선 19세기 I 종이에 묵서, 채색 I 8점  
세로 98.7 가로 61.8

Map of the Eastern Country[Korea]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I Ink and color on paper  
L. 98.7 W. 61.8

(1) 동국전도



(2) 함경도





(3) 평안도



(4) 황해도





(5) 강원도



(6) 경기도 · 충청도





(7) 전라도



(8) 경상도





전도와 도별 지도가 수록된 지도첩  
海東圖

조선 18세기 I 종이에 목서, 채색 I 9면  
세로 107.0 가로 62.0

(1) 전도



Map of the Eight Province in the Eastern  
Country[Korea]

Joseon dynasty, 18<sup>th</sup> century I Ink and color on paper  
L. 107.0 W. 62.0

(2) 경기도





(3) 충청도



(4) 황해도



(5) 강원도





(6) 전라도



(7) 경상도





(8) 평안도



(9) 함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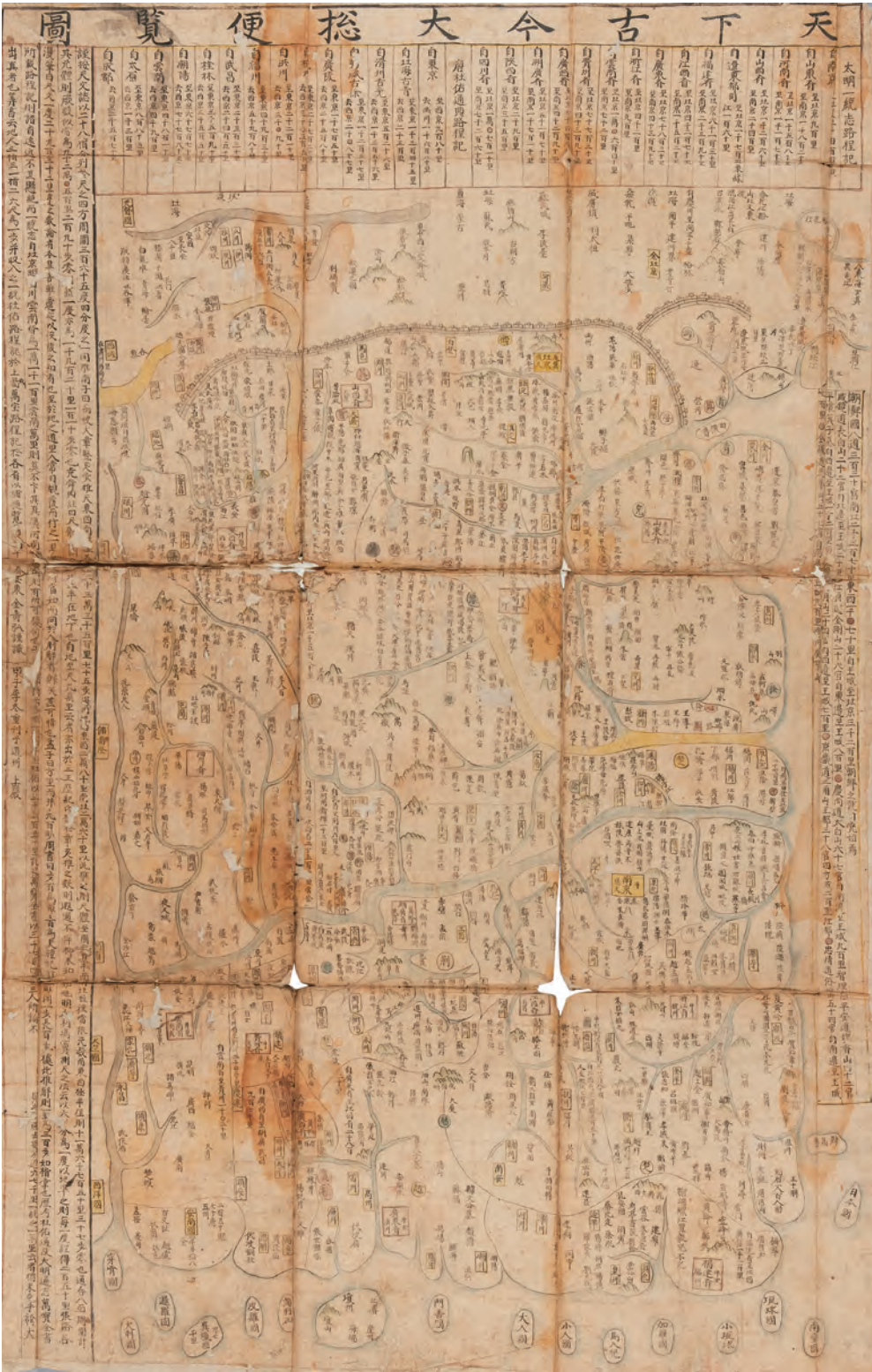


도별 지도와 세계지도가 수록된 첩

天下古今大總便覽圖

조선 18세기 | 종이에 묵서, 채색 | 10점  
세로 113.0 가로 78.0

(1) 천하고금대총편람도



Map of the World and Eight Province in the Eastern Country[Korea]

Joseon dynasty, 18<sup>th</sup> century | Ink and color on paper  
L. 113.0 W. 78.0

(2) 경상도





(3) 충청도



(4) 황해도





(5) 경기도



(6) 전라도





(7) 강원도



(8) 함경도





(9) 평안도



(10) 천하국도





## 동래부의 초량 왜관을 그린 지도

草梁倭館圖

조선후기 | 종이에 묵서, 채색  
세로 123.4 가로 88.0

## Map of the Japanese House in Choryang[Busan]

Late Joseon dynasty | Ink and color on paper  
L. 123.4 W. 88.0





021    건희3953    LKH3953

장릉(단종의 능)의 위치를 그린 지도    Map of the Jangneung[Tomb of King Danjong]

寧越莊陵圖

조선후기 I 종이에 묵서, 채색    Late Joseon dynasty I Ink and color on paper

세로 110.0 가로 73.0    L. 110.0 W.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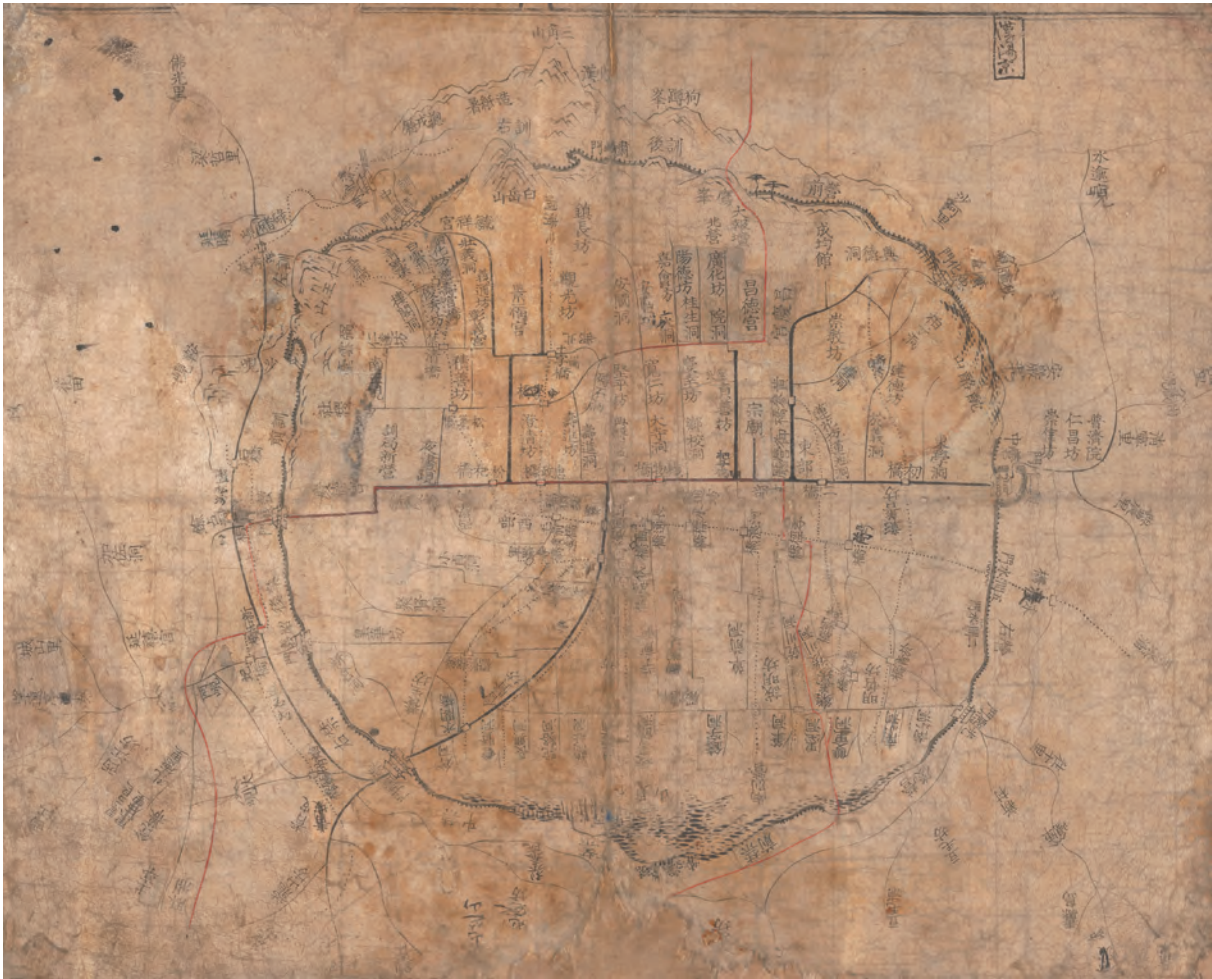
022    건희3954    LKH3954

한양 도성을 그린 지도    Map of the Capital[Han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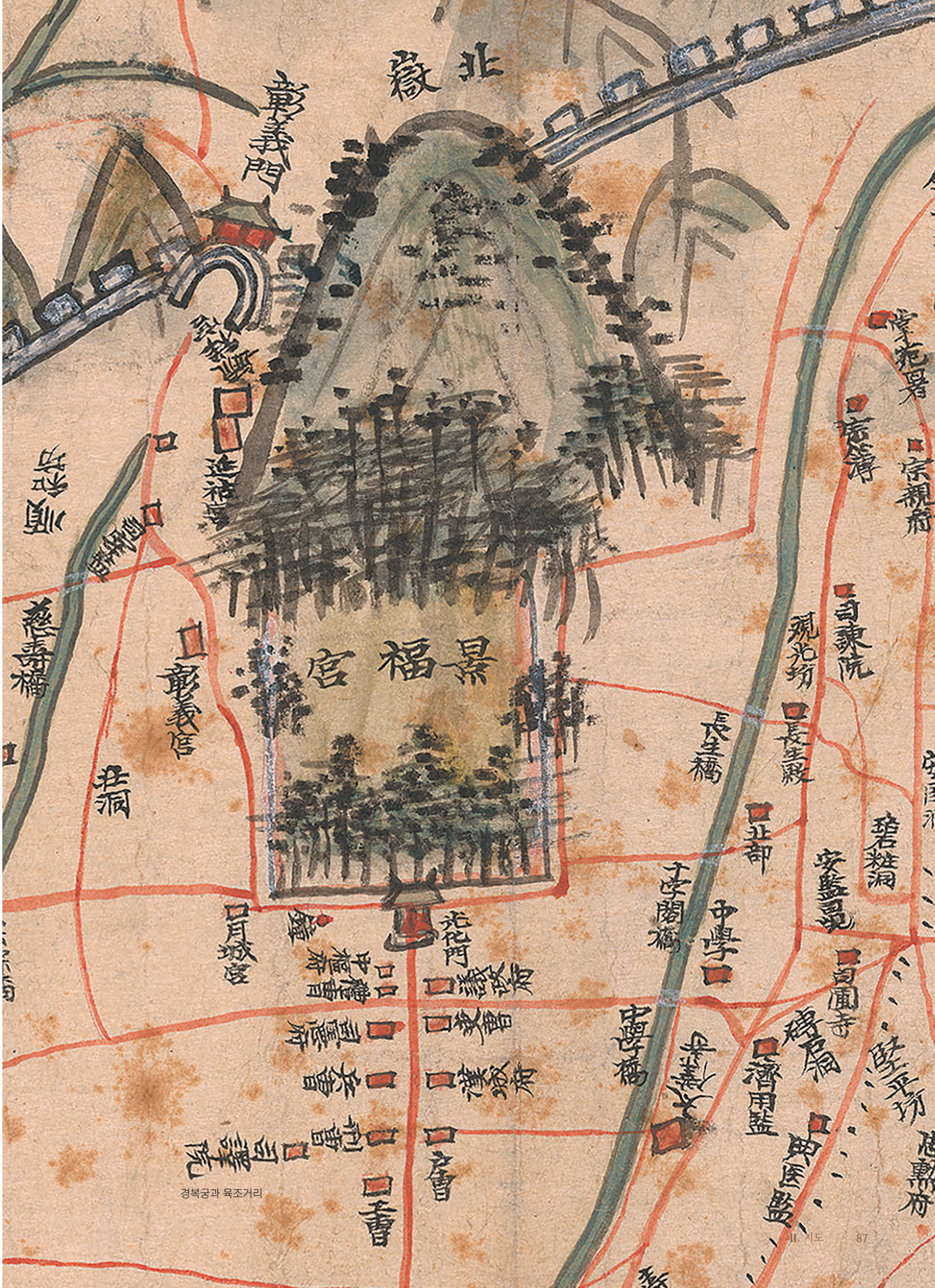
漢陽京圖

조선 18세기 I 종이에 묵서, 채색    Joseon dynasty, 18<sup>th</sup> century I Ink and color on paper

세로 30.5 가로 36.5    L. 30.5 W. 36.5









동국지도

東國地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묵서, 채색 | 8점  
세로 107.0 가로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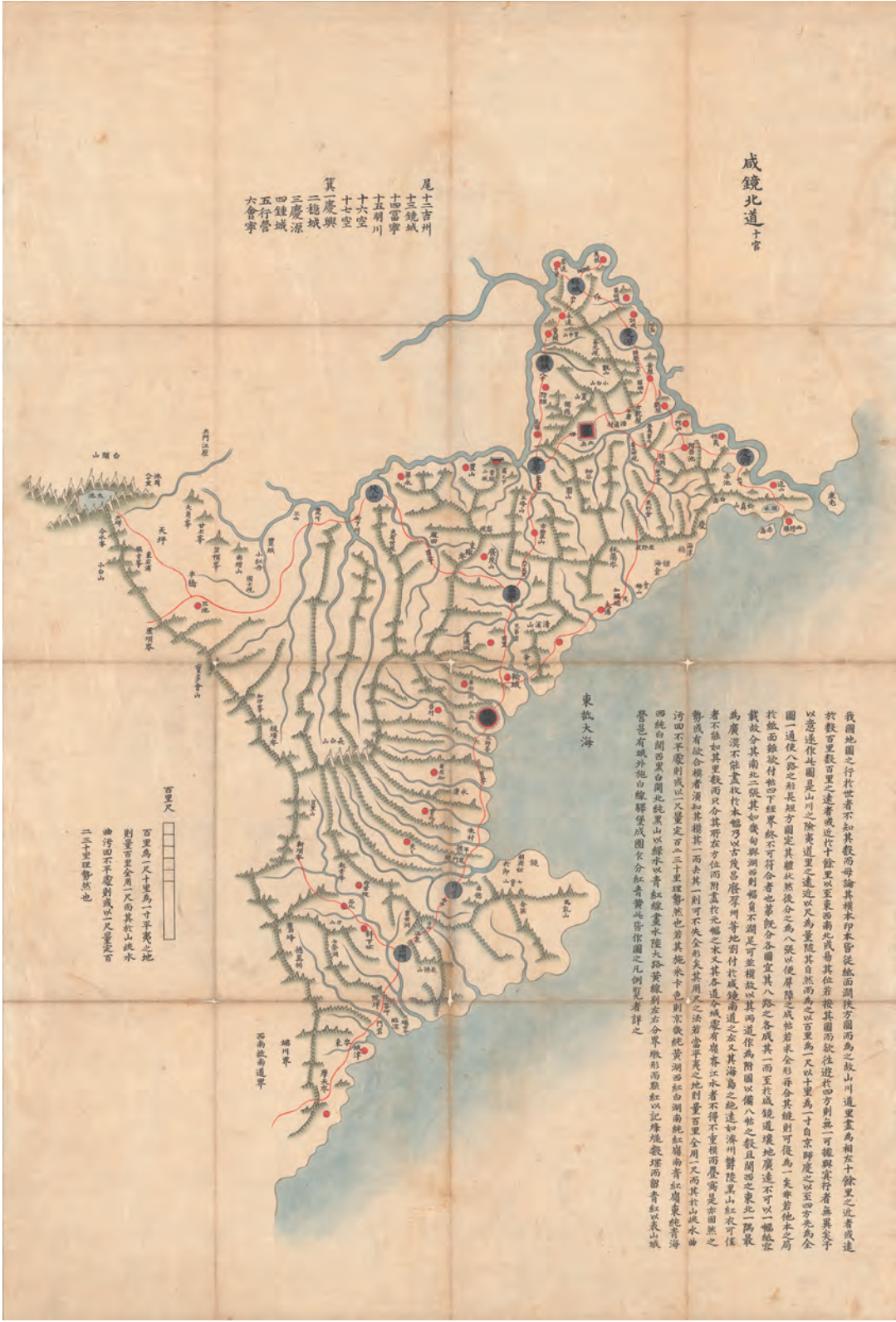
(1) 강원도



Map of the Eastern Country[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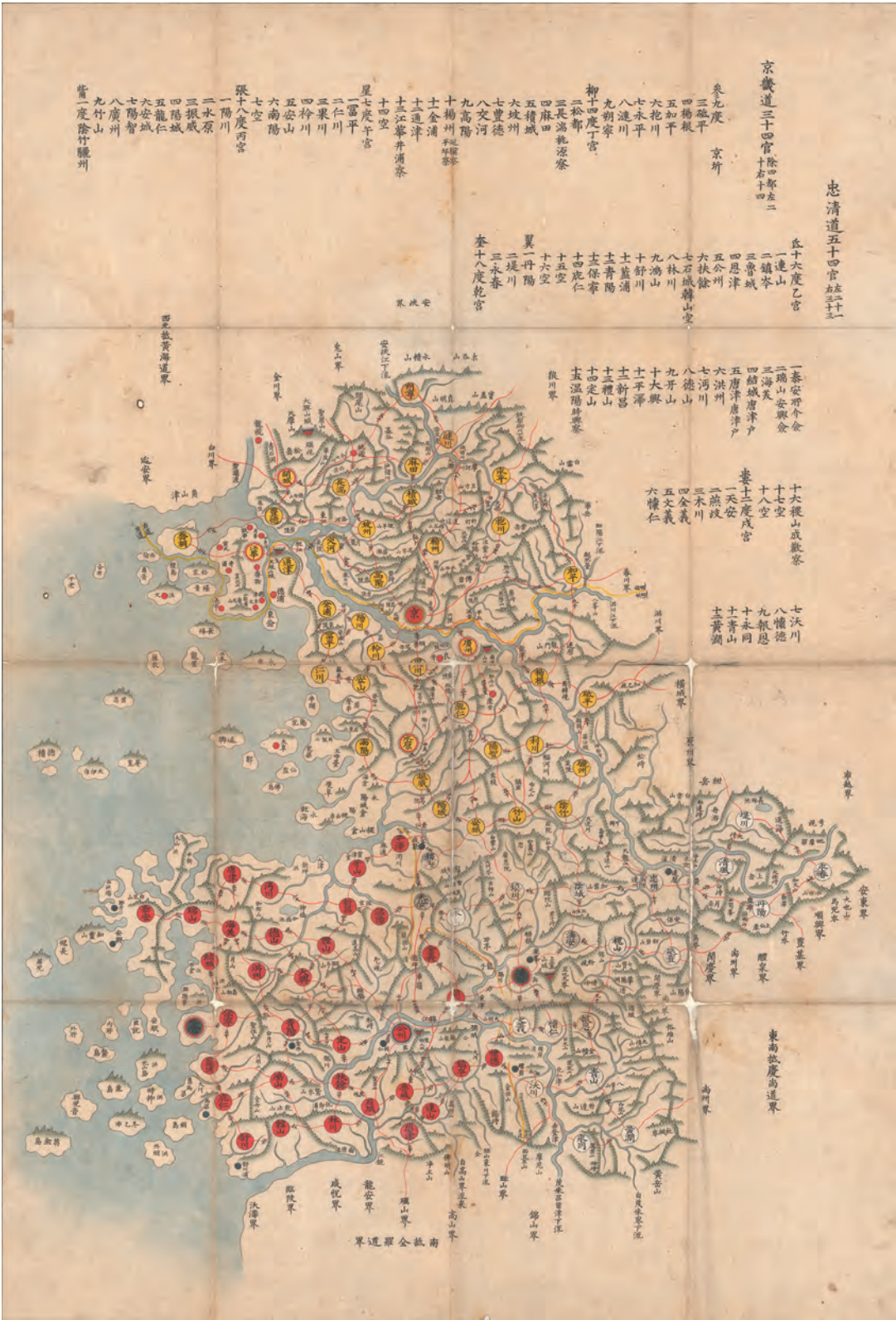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and color on paper  
L. 107.0 W. 73.0

(2) 함경북도





(3) 경기도·충청도



(4) 평안도





(5) 경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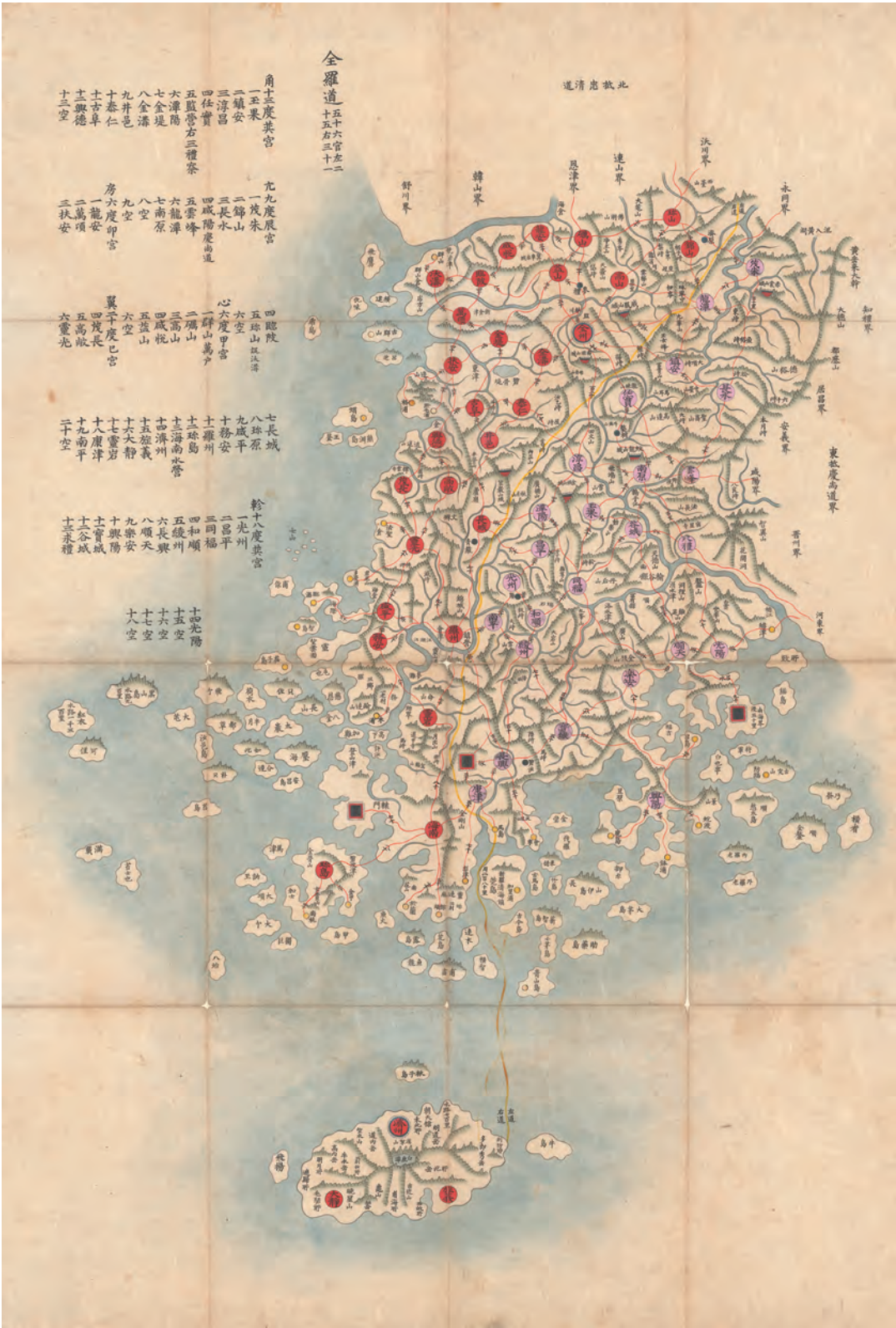


(6) 함경남도





(7) 전라도



(8) 황해도









027건희4183LKH4183

한글로 지명이 적힌 세계지도와 도별 지도첩

地圖帖

조선후기 | 종이에 묵서, 채색 | 19면  
세로 55.7 가로 28.6

Late Joseon dynasty | Ink and color on paper  
L. 55.7 W. 28.6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4면



15면



16면





17면



18면



19면



二南永基於

文正公名

III.  
옥책

Royal Investiture Book of the Joseon Dynasty

燕翼之裕昆遠

寵辱之攀馭業承艱大思述

傳心之謨恤宅亮陰莫嚴繼

體之義括雲入望慨

聲澤之寢遐星霜易嬗慟禮

制之奄闕屬茲



### 3. 옥책玉冊

1851년(철종 2) 신해년辛亥年에 신정왕후神貞王后(1809~1890)의 존호尊號를 올릴 때에 만들었던 옥책이다. 옥책은 조선 왕실에서 왕과 왕비(혹은 왕대비)를 존송하기 위한 의례를 치를 때에 제작했다. 옥으로 옥간玉簡을 만들고 그 옥간에 덕을 칭송하는 책문冊文을 새겼다. 옥간은 넝쿨무늬 등으로 장식된 변철邊鐵로 덧대어 고정하는데, 대개는 5~6개의 옥간을 1첩으로 하고 전체 10~12첩으로 구성된다.

신정왕후 가상존호 옥책(건희3474)은 1851년(철종 2) 철종이 신정왕후에게 ‘선경宣敬’이라는 존호를 더해 올리면서 만든 옥책이다. 5개의 옥간을 1첩으로 하였고, 총 10첩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10첩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분리되어 5첩씩 나누어져 있다.

흔히 조대비로 알려진 신정왕후는 헌종憲宗(재위 1834~1849)의 어머니이자, 추존 왕 문조文祖(1809~1830)(효명세자孝明世子)의 비妃이다. 1830년(순조 30) 효명세자가 대리청정 중에 사망하여 왕비로 즉위하지는 못했지만, 아들인 헌종이 즉위한 뒤 왕대비가 되었다. 신정왕후는 시어머니인 순조의 비 순원왕후純元王后(1789~1857)가 1857년(철종 8)에 승하한 뒤 조선 왕실의 최고 어른이 된다. 이후에 철종哲宗(재위 1849~1863)이 후사 없이 승하하자, 신정왕후는 흥선군興宣君 이하응李昰應(1821~1898)의 차남(고종高宗)을 왕위 계승자로 결정하였다.

신정왕후는 살아있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존호를 받았다. 이 옥책을 포함하여 현재 남아있는 신정왕후의 가상존호 옥책은 19건으로 파악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시기가 이르다. 특히 이 옥책이 마지막으로 봉안되었던 장소는 강화도 외규장각으로 파악된다. 외규장각에 봉안된 책보冊寶 및 도서의 보관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인 『(외규장각)형지안形止案』(1857년, 외규297)에 당시 왕대비인 신정왕후의 신해년辛亥年(1851년, 철종2) 옥책玉冊과 옥보玉寶가 각 1건씩 정간봉안장正間奉安繼에 봉안되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 이건희 회장이 이 옥책을 소장하게 된 경위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866년(고종 3) 병인양요 때에 프랑스군에 의해 약탈되었거나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었던 이 옥책을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으로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2018년, 이 옥책과 함께 외규장각에 봉안되었던 신정왕후의 세자빈 책봉 축책이 프랑스에서 그 소재가 확인되어 환수 노력을 통해 돌아온 바 있다.

이 옥책을 만들었던 도감에서 만든 의궤인 『(순조순원후문조신정후효정후)존송도감의궤(純祖純元后文祖神貞后孝定后)尊崇都監儀軌』(1851년, 규13385)에 따르면, 이 때 왕대비의 옥책문을 지은 제술관製述官은 병조판서兵曹判書 서기순徐箕淳(1791~1854), 글씨를 쓴 서사관書寫官은 수원부유수水原府留守 조병준趙秉駿(1814~1858)이다.





건희3474  
신정왕후에게 존호를 더하여 올리면서  
만든 옥책  
神貞王后 加上尊號 玉冊

글 지은이 서기순徐箕淳(1791~1854)  
글씨를 쓴 사람 조병준趙秉駿(1814~1858)  
1851년(철종 2) | 옥, 금속, 직물  
길이 89.5 세로 25.2

LKH3474  
Jade Investiture Book of the Bestowal of Honorary  
Title upon Queen Sinjeong

Written by Seo Gisun(1791~1854)  
Calligraphy by Jo Byeongjun(1814~1858)  
Joseon dynasty, 1851 | jade, metal, fabric  
L. 89.5





## Seal

且龍耳且鼓目

卷之七

禍止於此

十一

醉后

司馬公

花草



4. 도장圖章

도장은 신분이나 신용을 증명하는 용도로 문서 등에 찍도록 만든 것이다. 다양한 서체로 새기고, 돌이나 금속, 나무, 뿔 등 여러 재질로 만들어 외형을 아름답게 조각하였다. 도장은 그 본래의 기능 이외에도 하나의 예술품으로 사랑받았다.

이 목록집에는 여러 서체로 새긴 도장 5건 7점과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종이)을 모은 인보印譜, 병풍 1건을 실었다. 도장의 경우 사용하였던 인물이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인영을 모은 인보와 병풍에 주목하여 형태사항과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절첩折帖 형태의 인보(건희3841)는 조선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인보印譜’란 인영을 잘라서 모아서 만든 것으로, 중국에서 옛 도장을 모아 편집한 데에서 유래했다. 조선후기에 인보로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고금인장급화각인보古今印章及華刻印譜》(1825년, 한貴古朝81-19-35) 10책이 대표적이다. 이는 책의 형태로, 제작자인 정육화鄭堉和(1975~?)의 발문, 신위申緯(1769~1847) 등의 발문이 붙어있어 제작경위 등이 확인된다. 건희3841의 경우 절첩식으로 제작되었는데, 앞 뒷면에 모두 인영을 붙여 편집하였다. 낭선군朗善君 이우李愬(1637~1693)의 장서인藏書印으로 시작된다. 첩 뒷면에는 <소석산방인보錄小石山房印譜錄>이 필사되어 있는데 이 인보첩의 목록은 아니다. 마지막에는 ‘道光戊子孟春石墩山人顧湘自述’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광道光은 청나라 선종 때의 연호로, 도광연간의 무자년戊子年은 1828년이다. 석돈산인石墩山人 고상顧湘은 청나라 사람으로 《소석산방총서小石山房叢書》, 《소석산방인보小石山房印譜》 등을 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건희3934는 인영으로 구성된 10폭 병풍이다. 병풍에는 ‘보소당인존寶蘇堂印存’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 보소당은 현종憲宗(재위 1834~1849)이 창덕궁昌德宮 낙선재樂善齋 동쪽에 걸어놓은 현판으로, 현종의 당호堂號이다. 《보소당인존》은 현종의 사인私印을 모아 간행한 인보이다. 자하紫霞 신위申緯(1769~1847)와 심암心菴 조두순趙斗淳(1796~1870)이 그 편집을 맡았다. 여기에는 현종 본인의 자호 등을 새긴 도장부터, 소장하고 있던 각종 도장 약 600여 과顆를 수록했다. 이 병풍에는 《보소당인존》에 수록된 도장들이 날인되어 있다.

1폭 화면의 세로는 132.5cm, 가로는 32cm이다. 각 폭에 가로로 3칸 세로로 12칸의 격자를 그려서 그 안에 인영을 실었다. 1폭에 36종, 총 360종의 인영을 수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 병풍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현종대왕 보소당인존 병풍(고궁1882)이 전하는데 이것은 총 12폭으로 제작되었다. 1폭에 36개의 인장이 날인된 것은 동일하다.

제10집 수록 도장의 인면에 새겨진 문자

소장품번호	인면	수량	재질
건희3359	關·帖	1	나무
건희3450	반야심경 구절	1	옥
건희3464	匪懈堂印 / 安平大君印	2	돌
건희3471	孫爾準印 / 字曰瑤溪	2	돌
건희3473	咸柔新土之印	1	돌





029 건희3359  
양면에 ‘관關’과 ‘첩帖’이 새겨진 도장  
關帖銘印章

조선 | 나무  
높이 9.0 세로 9.5 가로 9.0



LKH3359  
Seal engraved with ‘Gwan(關)’, ‘Cheop(帖)’  
關帖銘印章  
Joseon dynasty | wood  
H. 9.0 L. 9.5 W. 9.0



030 건희3450  
반야심경 구절이 새겨진 도장  
般若心經銘印章

조선 | 옥  
높이 9.8 세로 8.1 가로 8.2



LKH3450  
Seal engraved with Heart Sutra  
般若心經銘印章  
Joseon dynasty | Jade  
H. 9.8 L. 8.1 W. 8.2



031 건희3464  
‘비해당인匪懈堂印’·‘안평대군인安平大君印’이  
새겨진 도장  
匪懈堂印銘印章 · 安平大君印銘印章  
20세기 | 돌 | 2점  
높이 7.9 세로 3.8 가로 3.7



LKH3464  
Seal engraved with ‘Bihaedangin(匪懈堂印)’·  
‘Anpyeongdaegunin(安平大君印)’  
20<sup>th</sup> century | stone  
H. 7.9 L. 3.8 W. 3.7





032 건희3471  
 ‘손이준인孫爾準印’·‘자왈요계字曰瑤溪’가 새겨진 도장  
 孫爾準印銘印章·字曰瑤溪銘印章  
 19세기 | 돌 | 2점  
 높이 7.3 세로 3.3 가로 3.3

LKH3471  
 Seal engraved with ‘Sonyijunin(孫爾準印)’·  
 ‘Jawalyogye(字曰瑤溪)’  
 19<sup>th</sup> century | stone  
 H. 7.3 L. 3.3 W. 3.3



033 건희3473  
 ‘함유신사지인咸柔新士之印’이 새겨진 도장  
 咸柔新士之印銘印章  
 19세기 | 돌  
 높이 4.1 지름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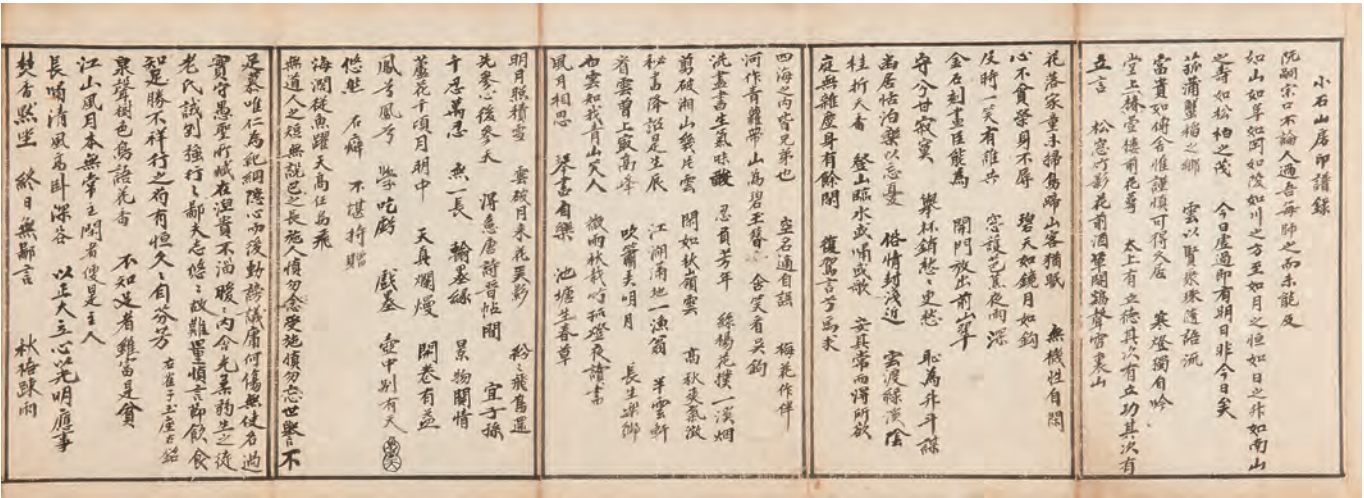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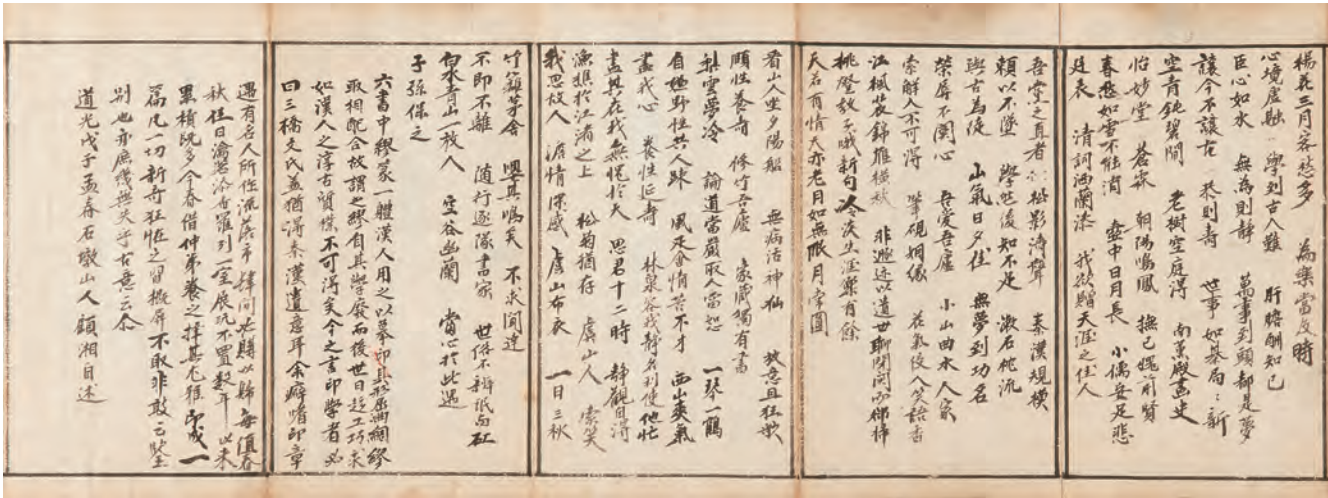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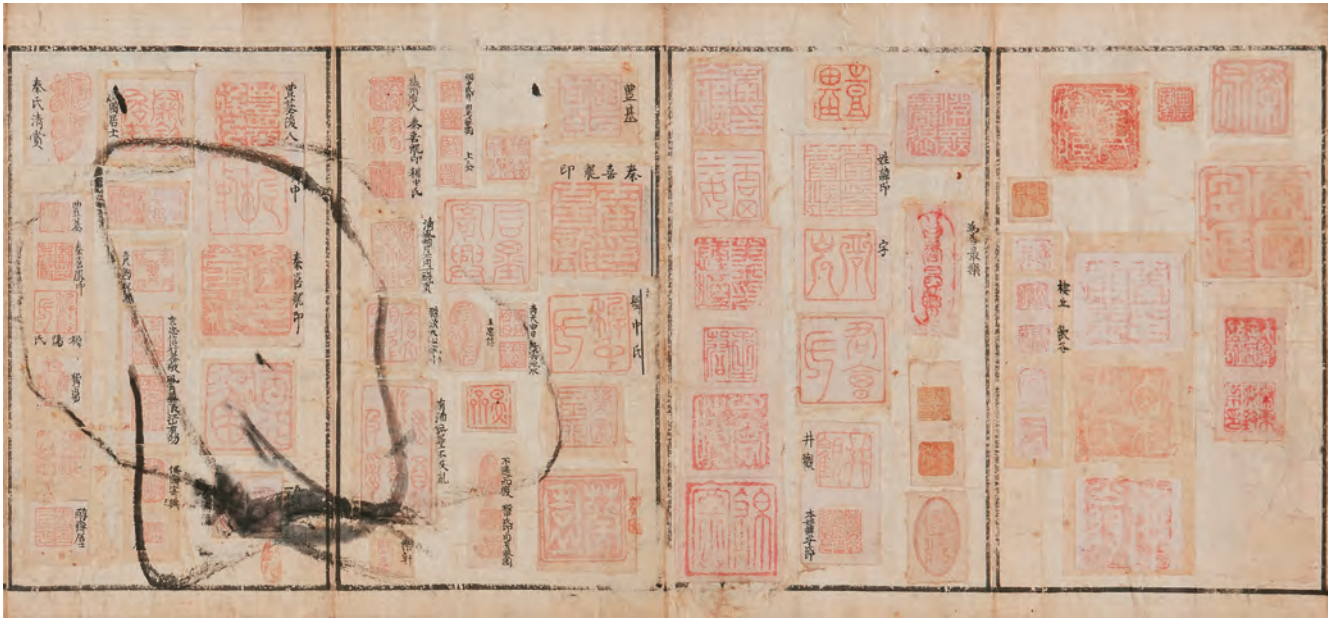
LKH3473  
 Seal engraved with ‘Hamyusinsajiin(咸柔新士之印)’  
 19<sup>th</sup> century | stone  
 H. 4.1 D. 3.7





조선 19세기 | 종이  
세로 24.0 가로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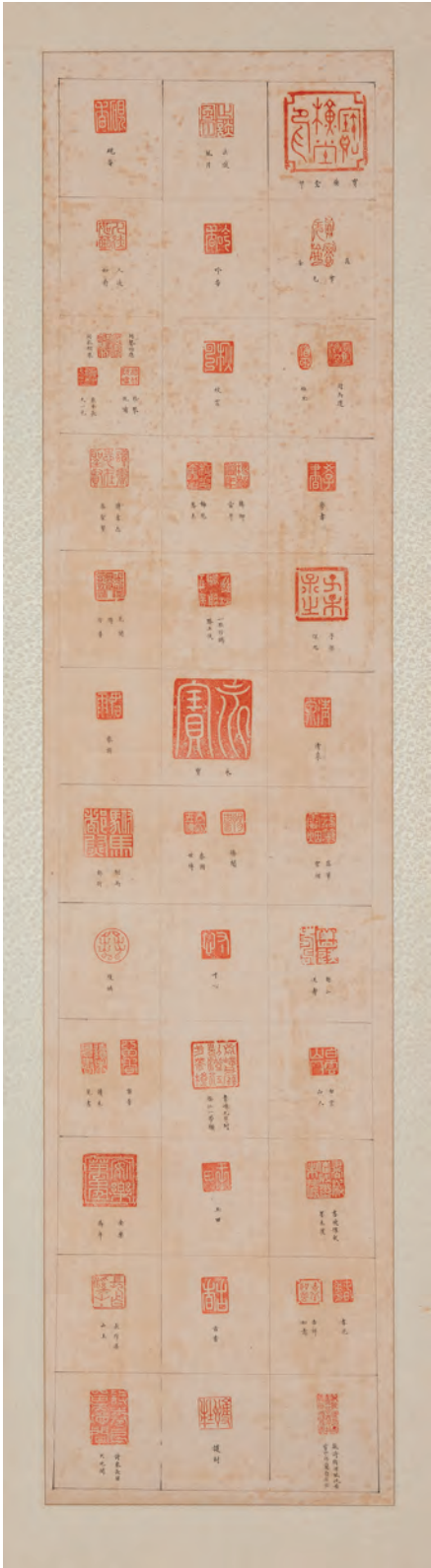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paper  
L. 24.0 W. 8.1





035 건희3934  
보소당인존 병풍  
寶蘇堂印存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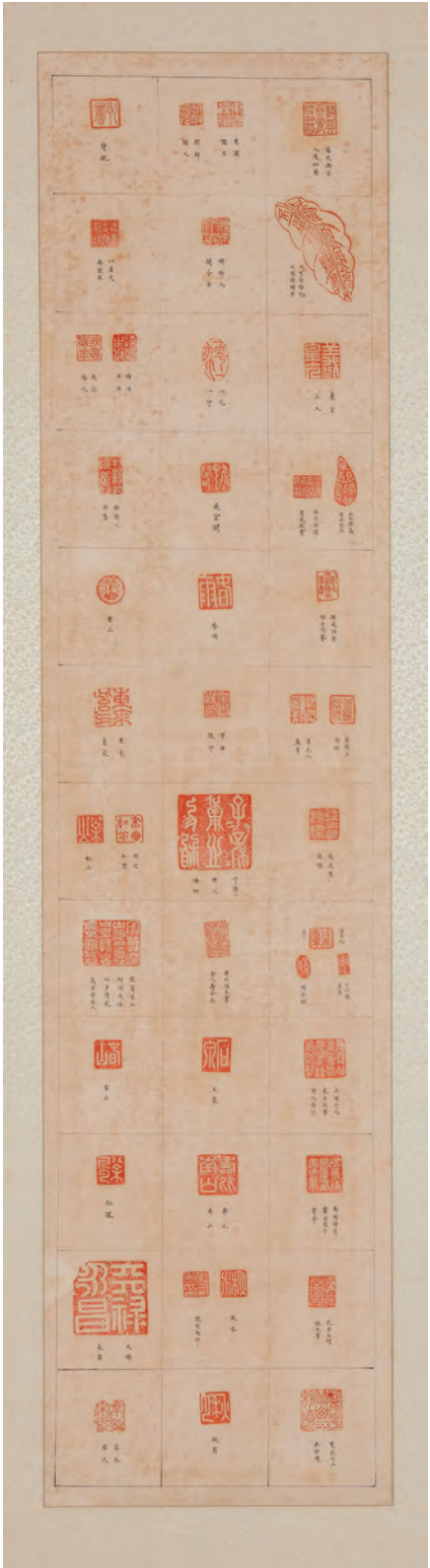
조선 19세기 | 종이 | 10폭  
세로 132.5 가로 3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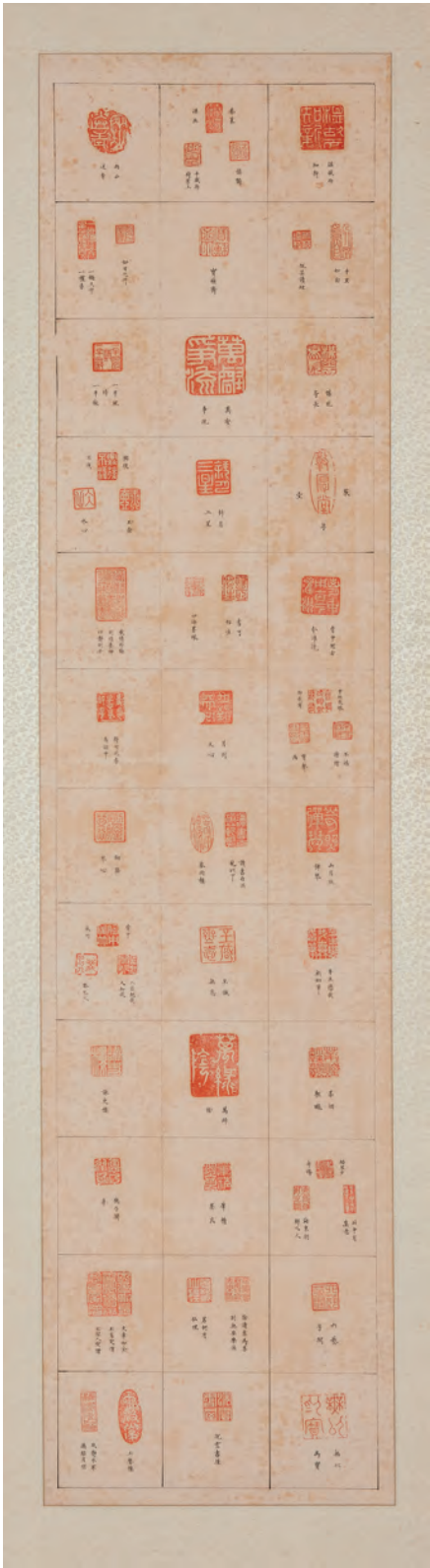
1폭

LKH3934  
Folding screen with imprints of S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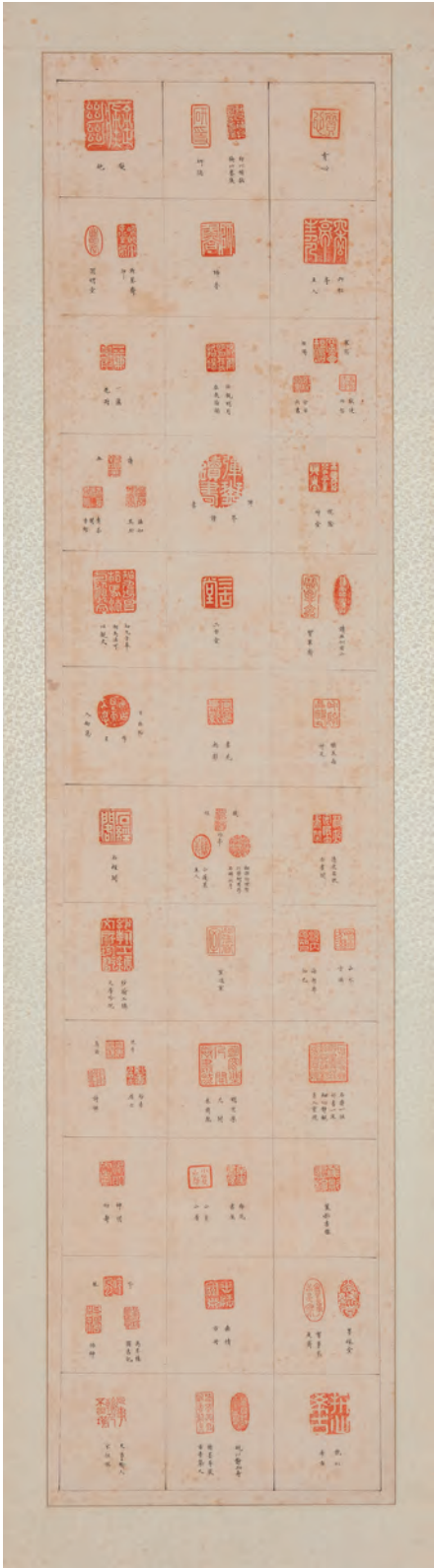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paper  
L. 132.5 W. 32.0



2폭



3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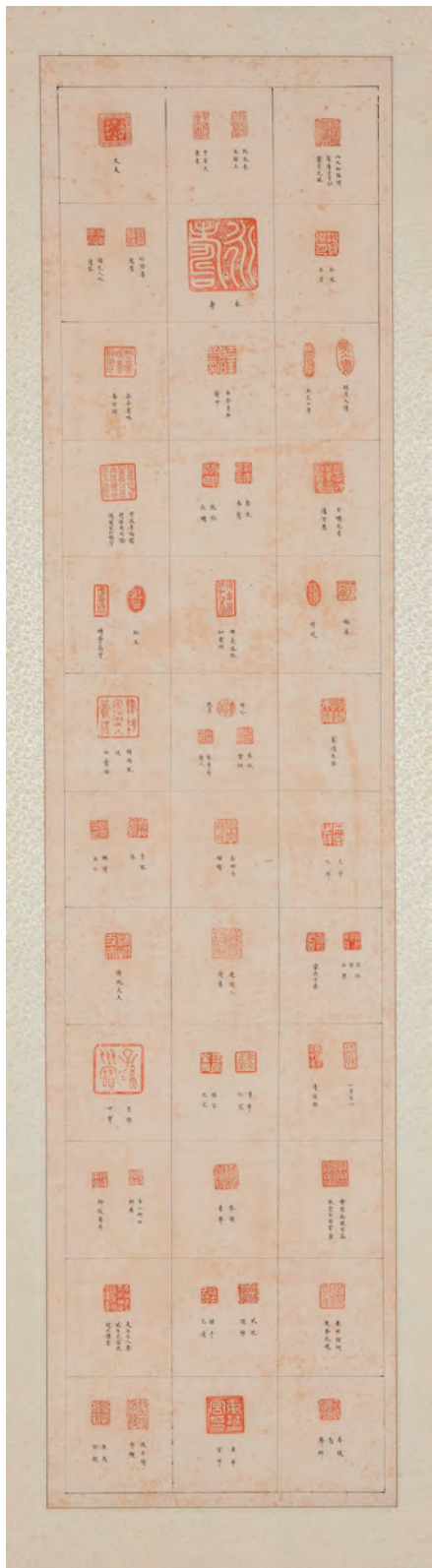


4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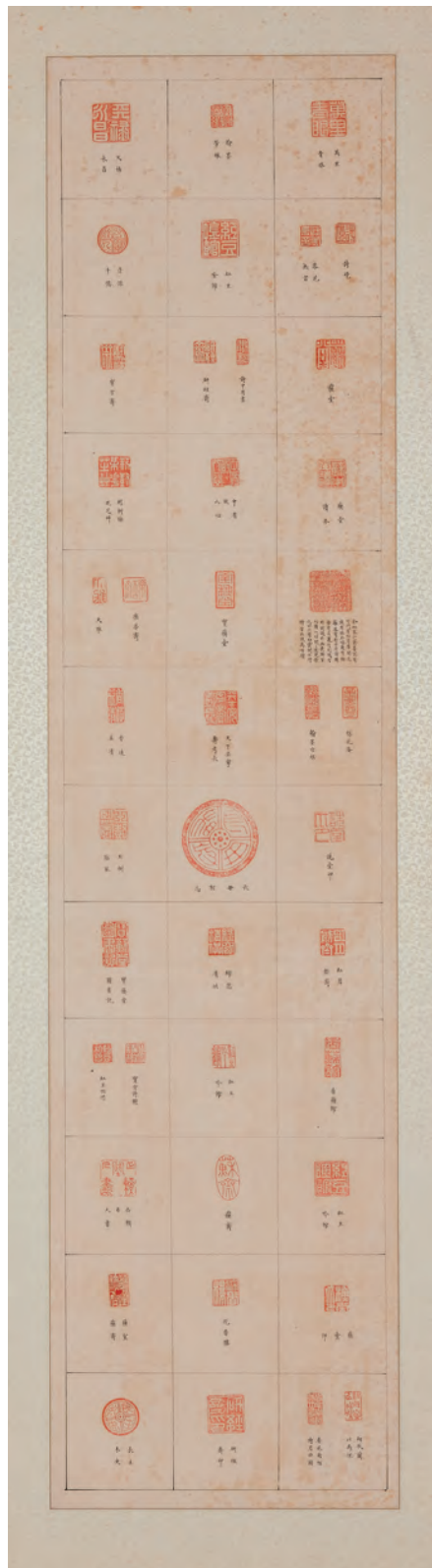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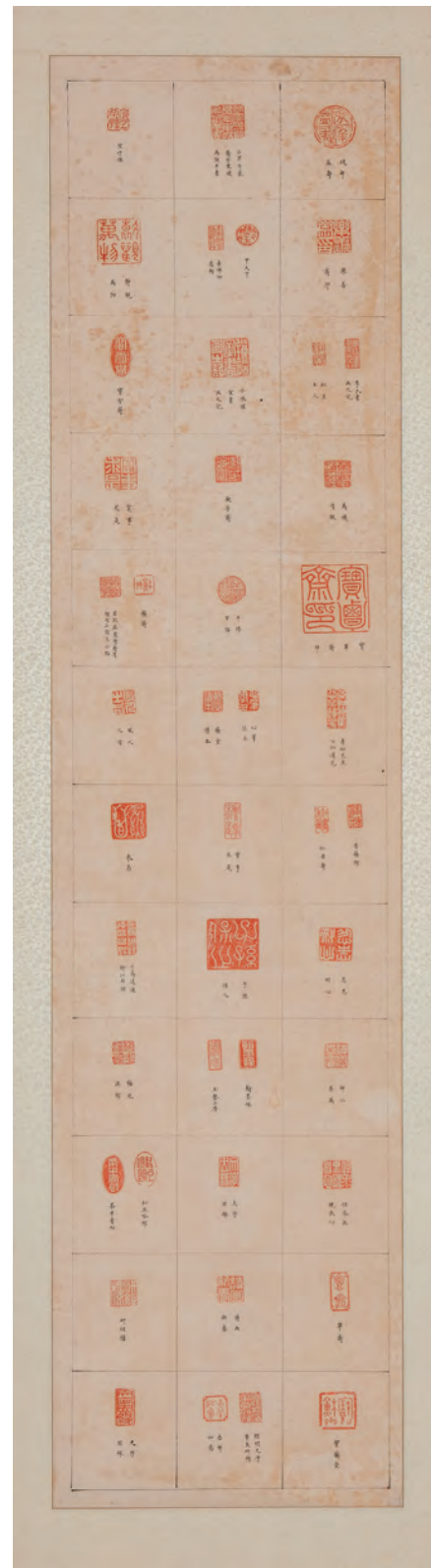
5쪽



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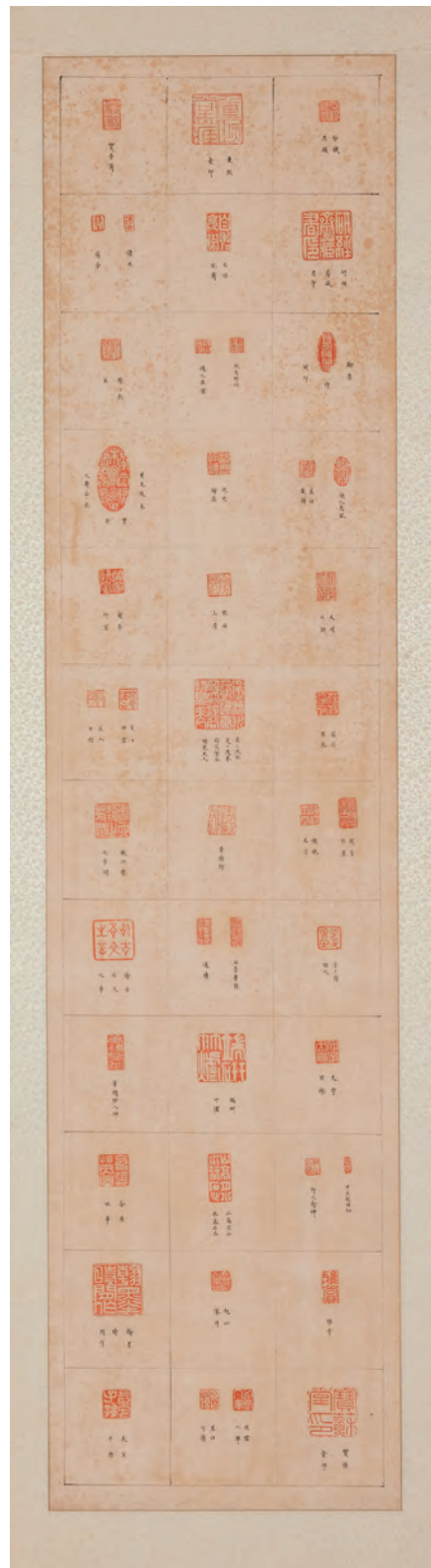


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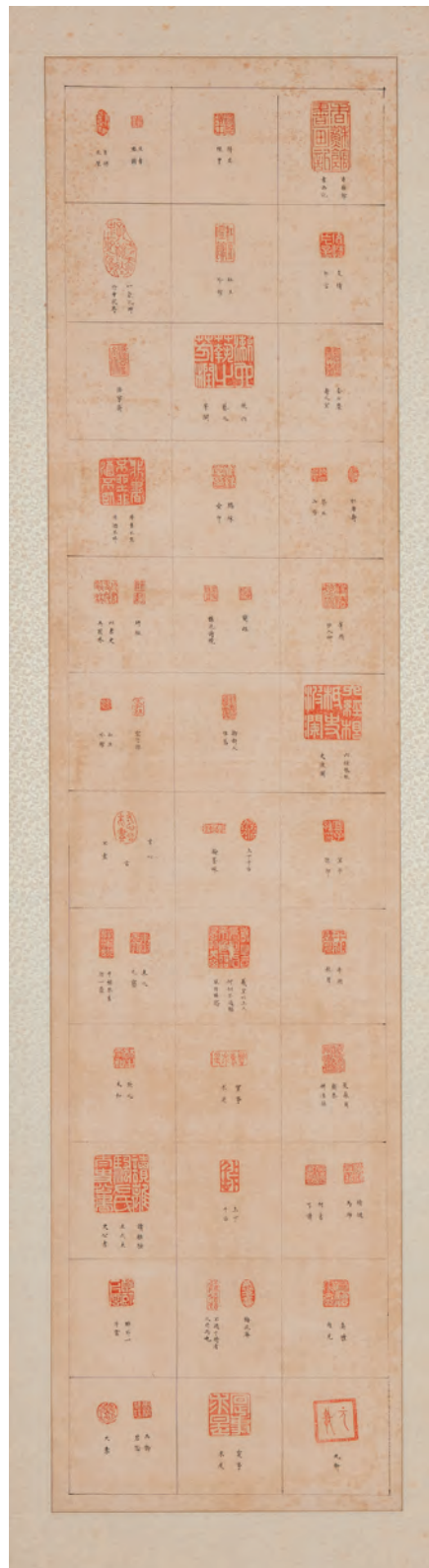


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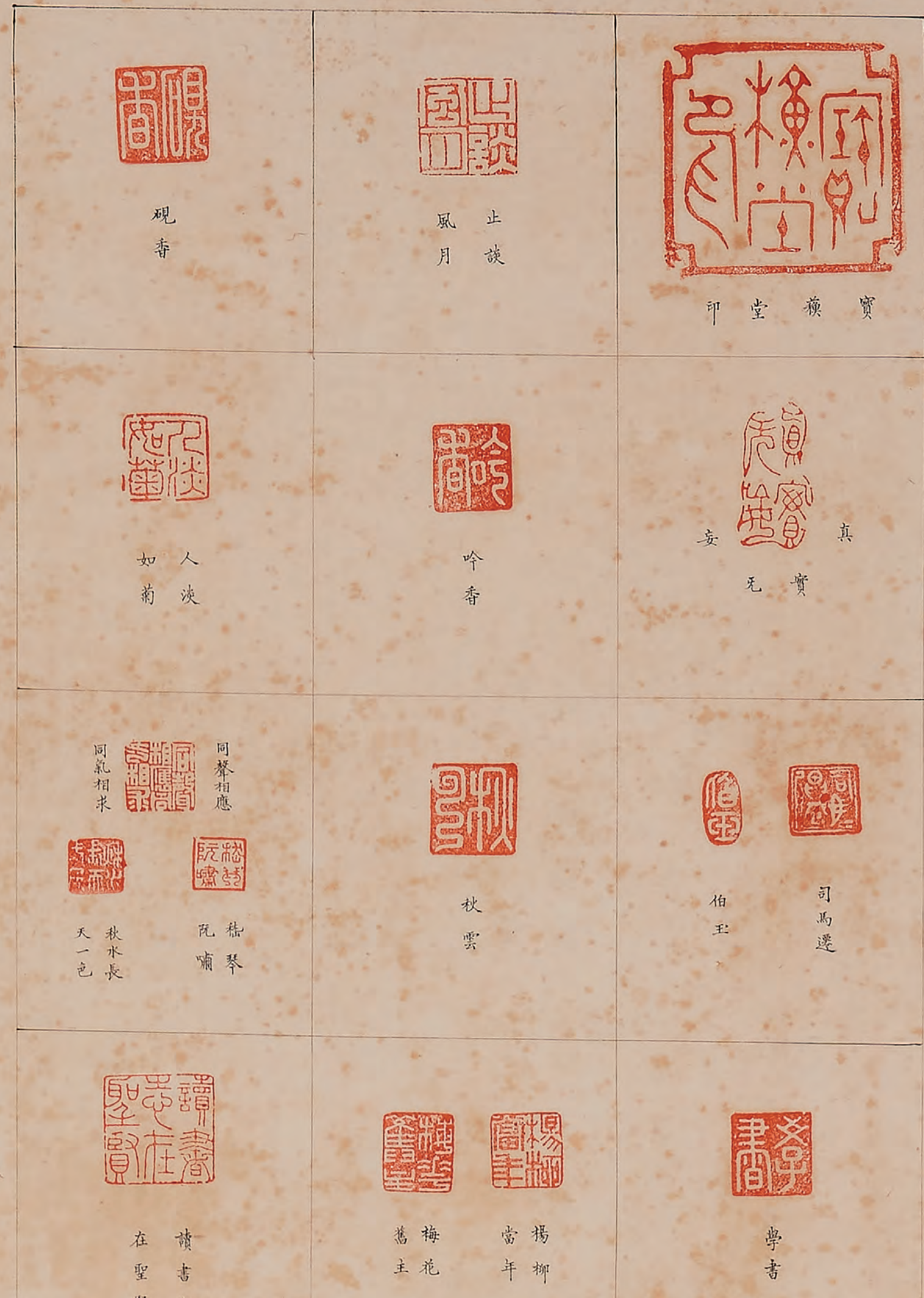




9쪽



10쪽





新月初四、南朗過次

V.  
글씨 · 편지  
Letter

宿夢相親在紫芽峯下

履清真僕且馳且驅來抵

還塔尚餘九箇日子等其

才金參判書奈不二法門映

地法臣遍金方無恙錫蘭山

當江回轉之借多少當精擅

一後即一為壁元矣既承

一狂一以何矣當面不宣



5. 글씨 · 편지

고 이견희 회장 기증품 중에는 조선시대 학자와 관료들의 글씨와 편지가 12건이 확인되었다. 퇴계退溪 이황李滉(1502~1571)의 글씨로 전해지는 글씨첩(건희3531)의 마지막 장에는 위창韋滄 오세창吳世昌(1684~1953)의 감정평이 붉은색 세필로 쓰여 있어, 오세창의 수집품으로 추정된다. 총 10면으로 편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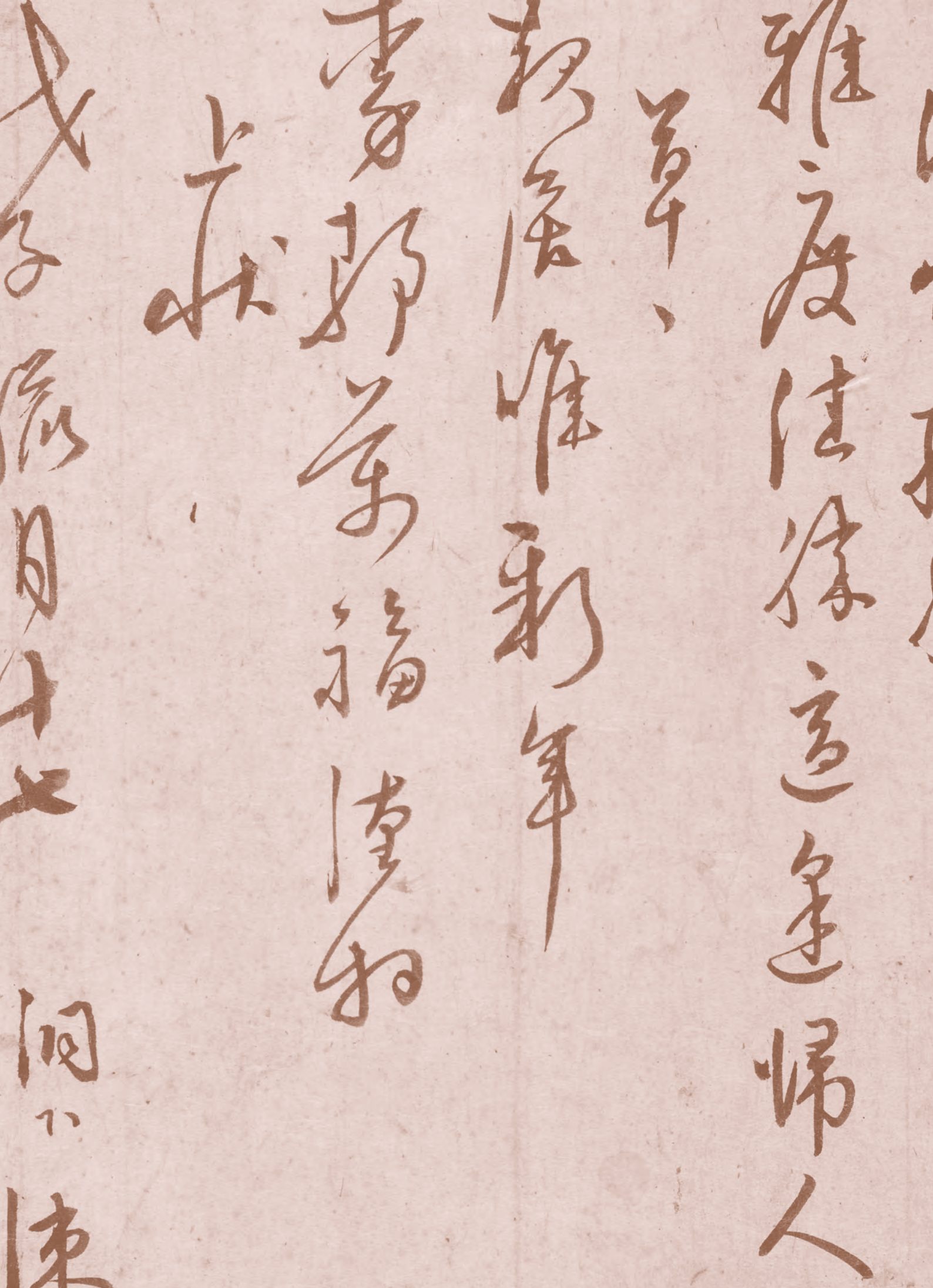
해동서독海東書牘이라는 표제가 있는 첩(건희3535)은 천天·지地·인人 3첩으로 구성된 편지이다. 고려시기부터 조선후기까지 학자와 관료의 편지를 모아서 정리하였는데 위작僞作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다. 이 첩은 20세기 들어 만들어지던 방대한 규모의 편지첩, 예를 들면 위창 오세창의 《근묵繼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친필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첩은 앞뒤로 모두 편지가 편집되어 있는데, 천에는 66건, 지에는 59건, 인에는 68건이 수록되어 있다.

정약용丁若鏞(1762~1836)이 1814년(순조 14)에 직접 쓴 〈정효자전鄭孝子傳〉(건희3752)과 〈정부인전鄭婦人傳〉(건희3769)은 정약용이 강진에 유배 중이던 때에 효자 정관일鄭寬一과 그 부인에 대하여 쓴 글이다. 비단에 먹으로 정성스레 쓴 글씨에서 정약용의 필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중한 인연과 주고 받은 편지를 첩으로 만들어 두고 간직하려고 했던 편지첩도 있다. 건희10322·10323·10324·10326·10327이 그것이다. 이들 편지에서 드러나는 인명은 누구나 아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개인과 가사家事의 안부를 묻고 답하였던 옛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록물로 의미가 있다.

제10집 수록 글씨와 편지

소장품번호	명칭	글쓴이
건희3531	퇴계 이황의 친필로 전해지는 글씨첩傳退溪先生遺墨	이황(1502~1571)
건희3535	고려·조선시대 학자와 관료의 글씨를 모은 첩海東書牘	
건희3752	정효자전鄭孝子傳	정약용(1762~1836)
건희3769	정부인전鄭婦人傳	정약용(1762~1836)
건희3824	김정희가 쓴 편지簡札	김정희(1786~1856)
건희3932	조속이 쓴 편지簡札	조속(1595~1668)
건희10322	편지첩簡札帖	
건희10323	편지첩簡札帖	
건희10324	편지첩簡札帖	
건희10325	글씨첩筆帖	
건희10326	편지첩簡札帖	
건희10327	편지첩簡札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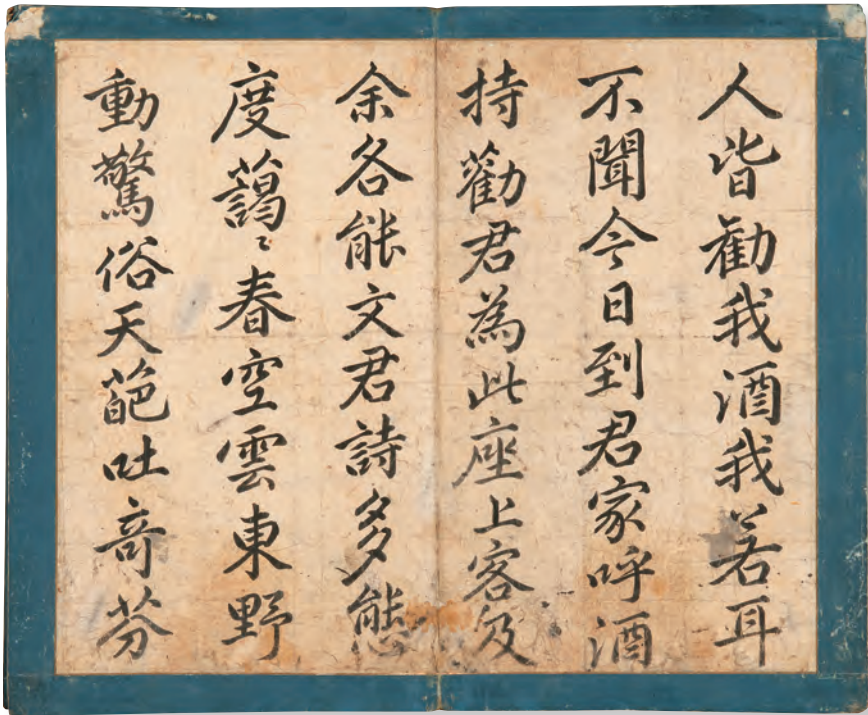


조선 16세기 I 종이에 묵서 I 10면

세로 42.5 가로(펼침) 71.5

Joseon dynasty, 16<sup>th</sup> century I Ink on paper

L. 42.5 W. 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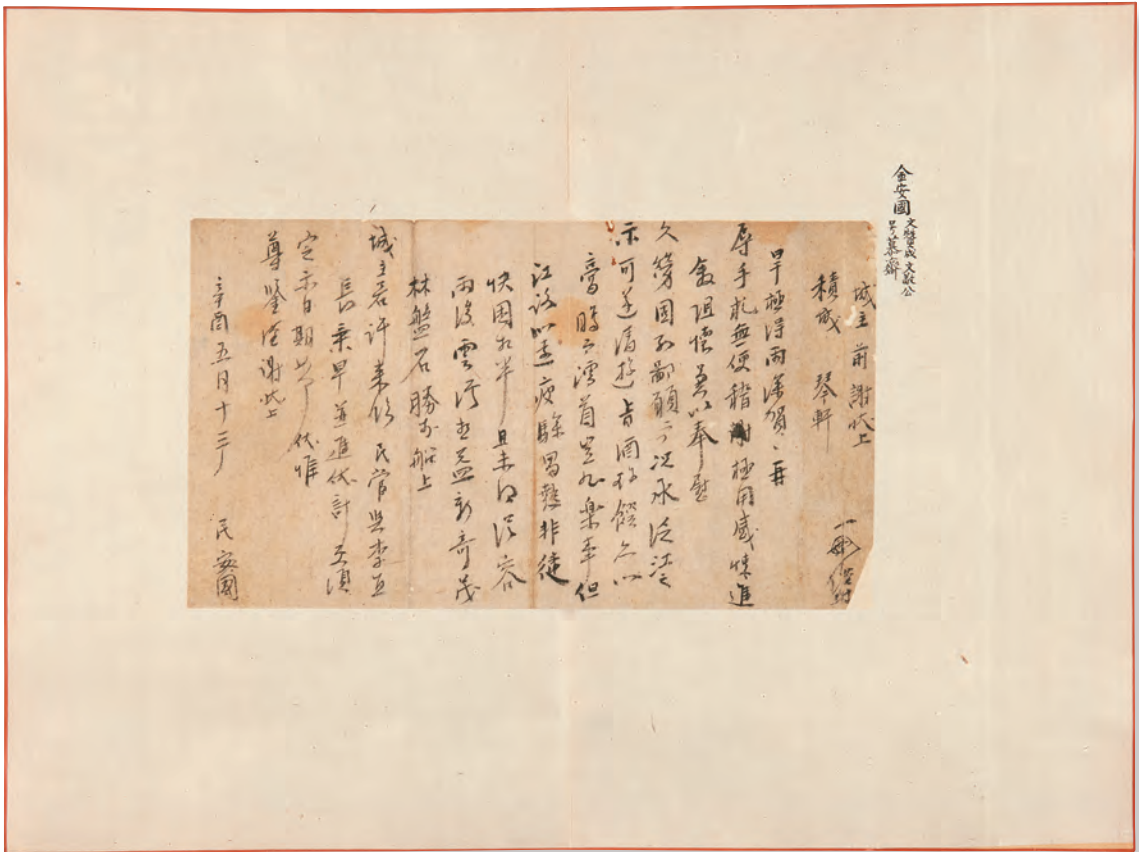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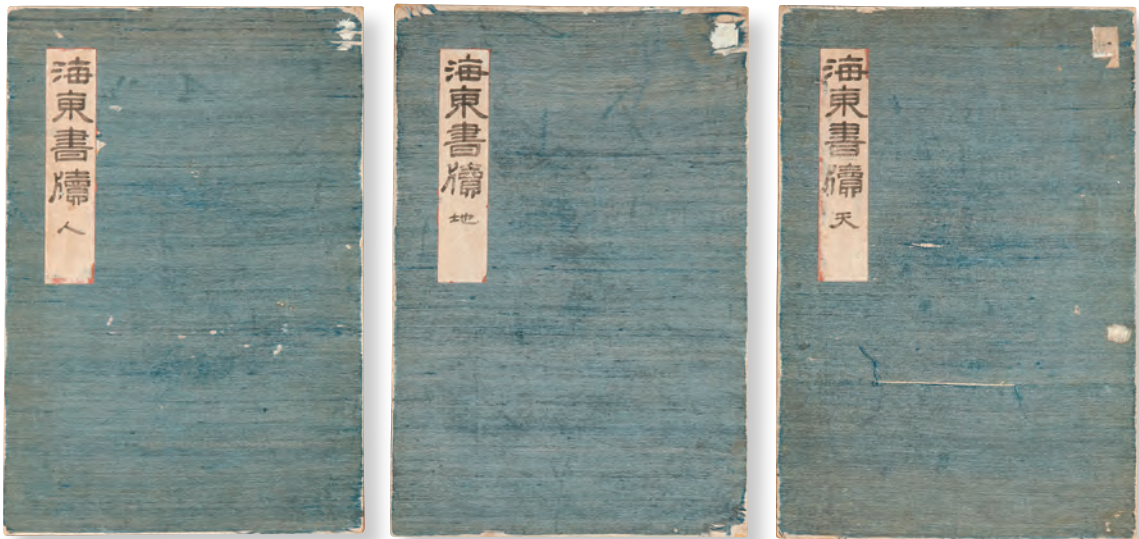


20세기 I 종이에 묵서 I 3첩

세로 46.3 가로(펼침)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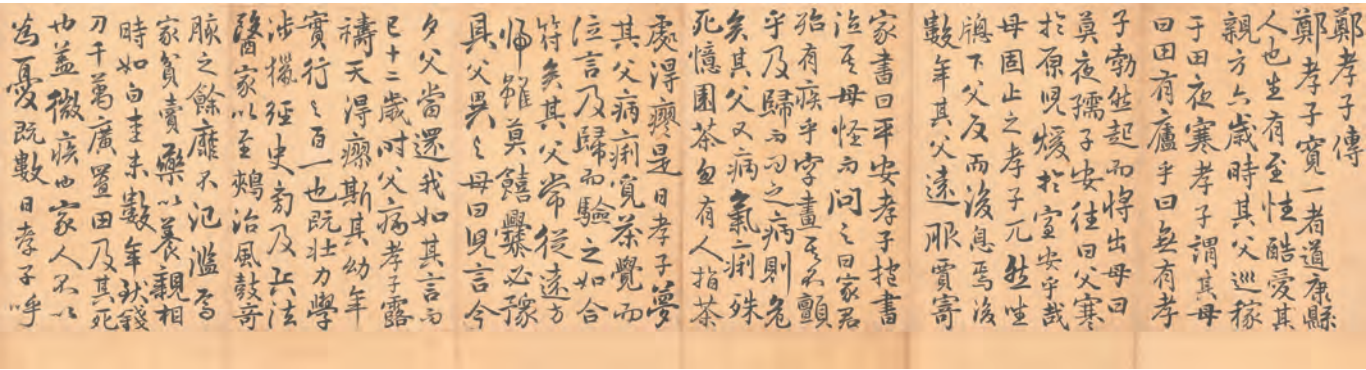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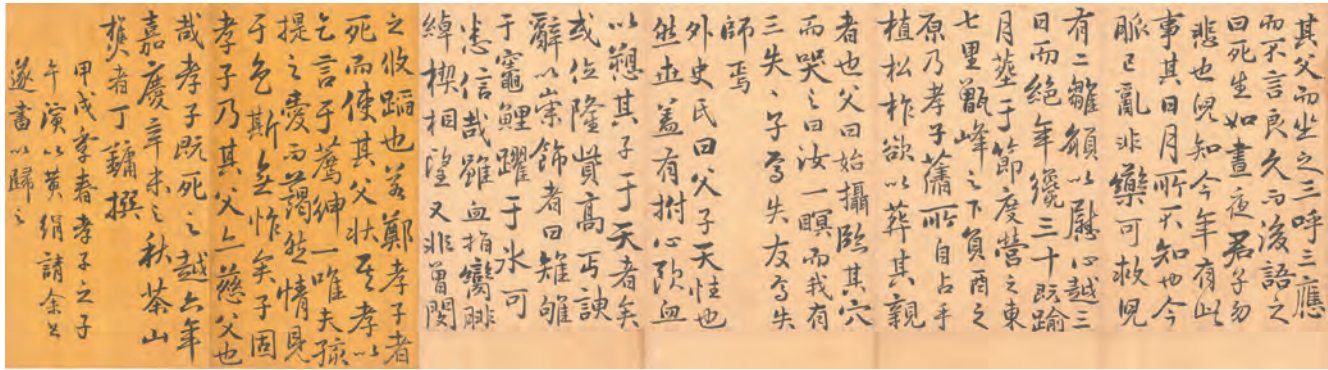
20<sup>th</sup> century I Ink on paper

L. 46.3 W. 6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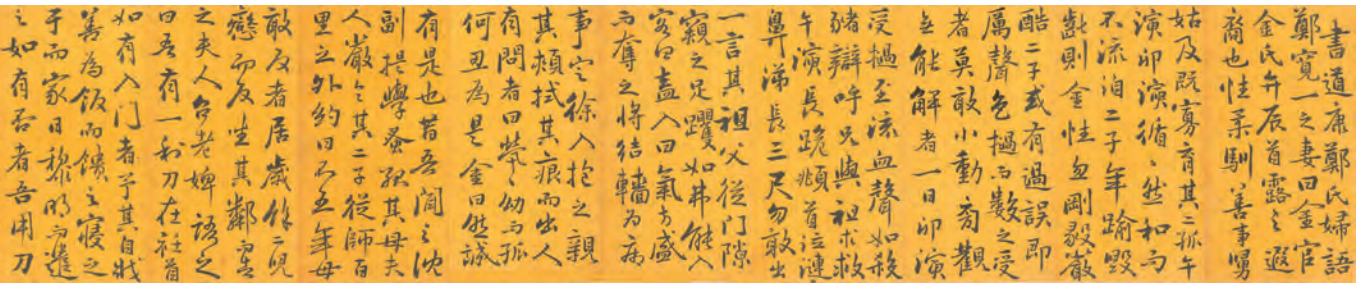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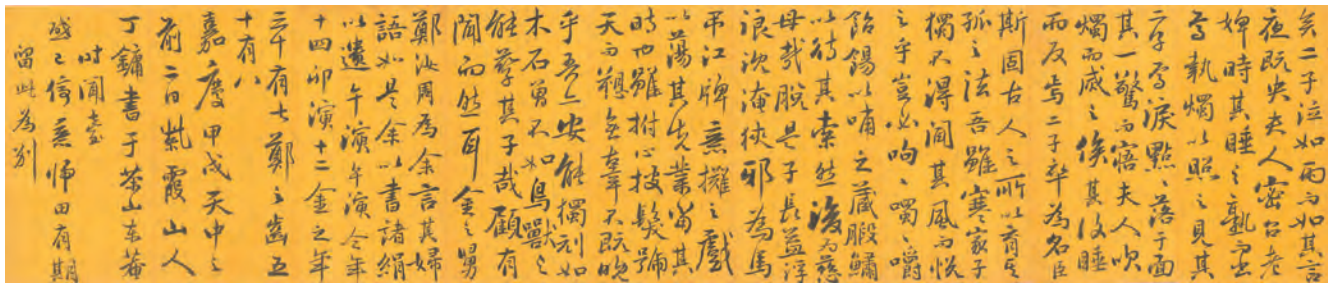




038	<div>건희3752</div> <div>정효자전</div> <div>鄭孝子傳</div> <div> <div>정약용丁若鏞(1762~1836)</div> <div>1814년(순조 14)   비단에 먹</div> <div>세로 17.9 가로 132.4</div> </div>	<div>LKH3752</div> <div>Story of the Jeong Family’s Filial Son</div> <div> <div>Jeong Yakyoung(1762~1836)</div> <div>Joseon dynasty, 1814   Ink on silk</div> <div>L. 17.9 W. 132.4</div> </div>
-----	---	--



039	<div>건희3769</div> <div>정부인전</div> <div>鄭婦人傳</div> <div> <div>정약용丁若鏞(1762~1836)</div> <div>1814년(순조 14)   비단에 먹</div> <div>세로 16.6 가로 160.2</div> </div>	<div>LKH3769</div> <div>Sotory of Jeong Family’s Filial Wife</div> <div> <div>Jeong Yakyoung(1762~1836)</div> <div>Joseon dynasty, 1814   Ink on silk</div> <div>L. 16.6 W. 160.2</div> </div>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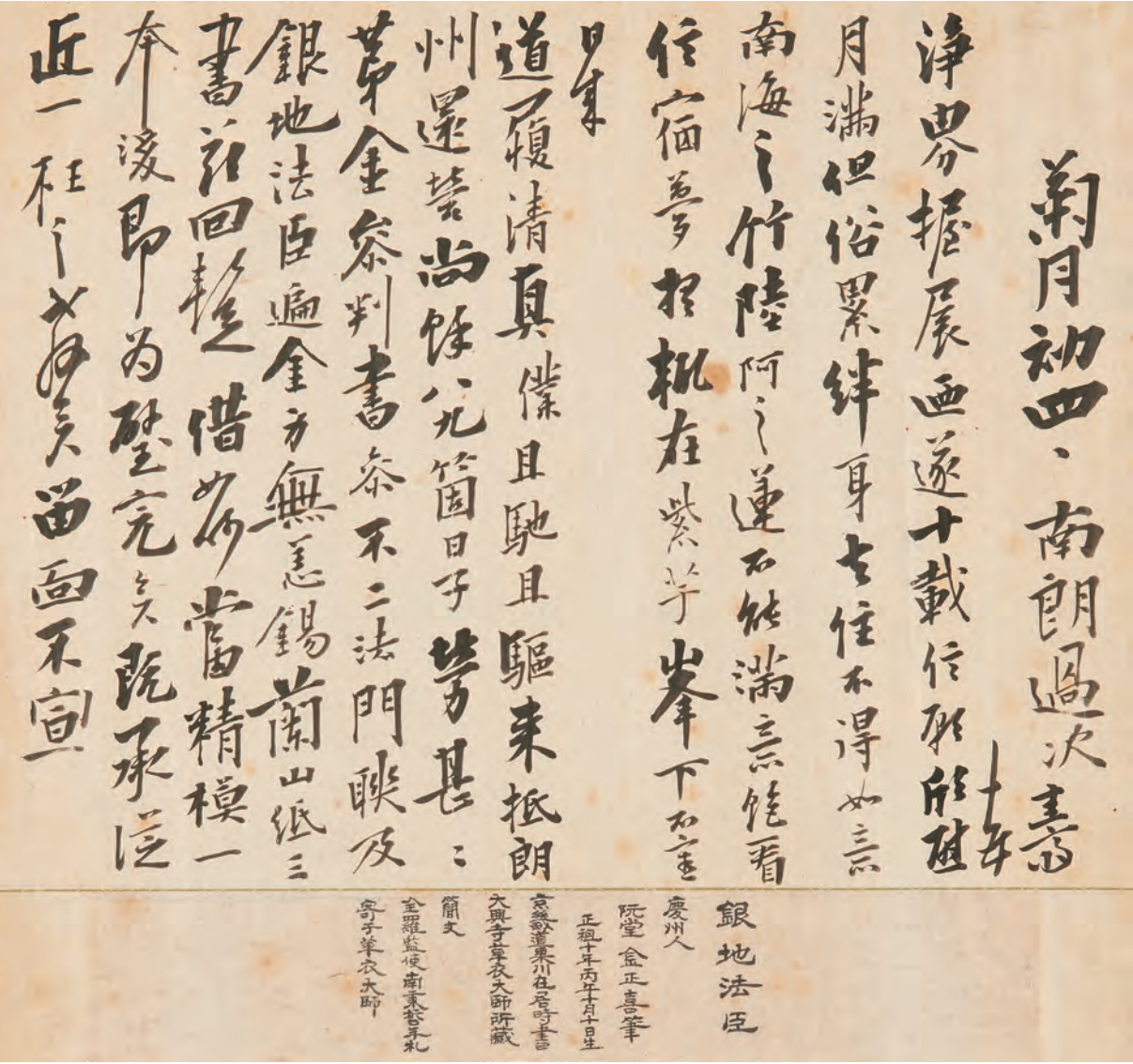
김정희가 쓴 편지

金正喜筆簡札

김정희金正喜(1786~1856)  
조선 19세기 | 종이에 먹  
세로 39.5 가로 42.0

Kim Jeonghui's Letter

Kim Jeonghui(1786~1856)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39.5 W. 4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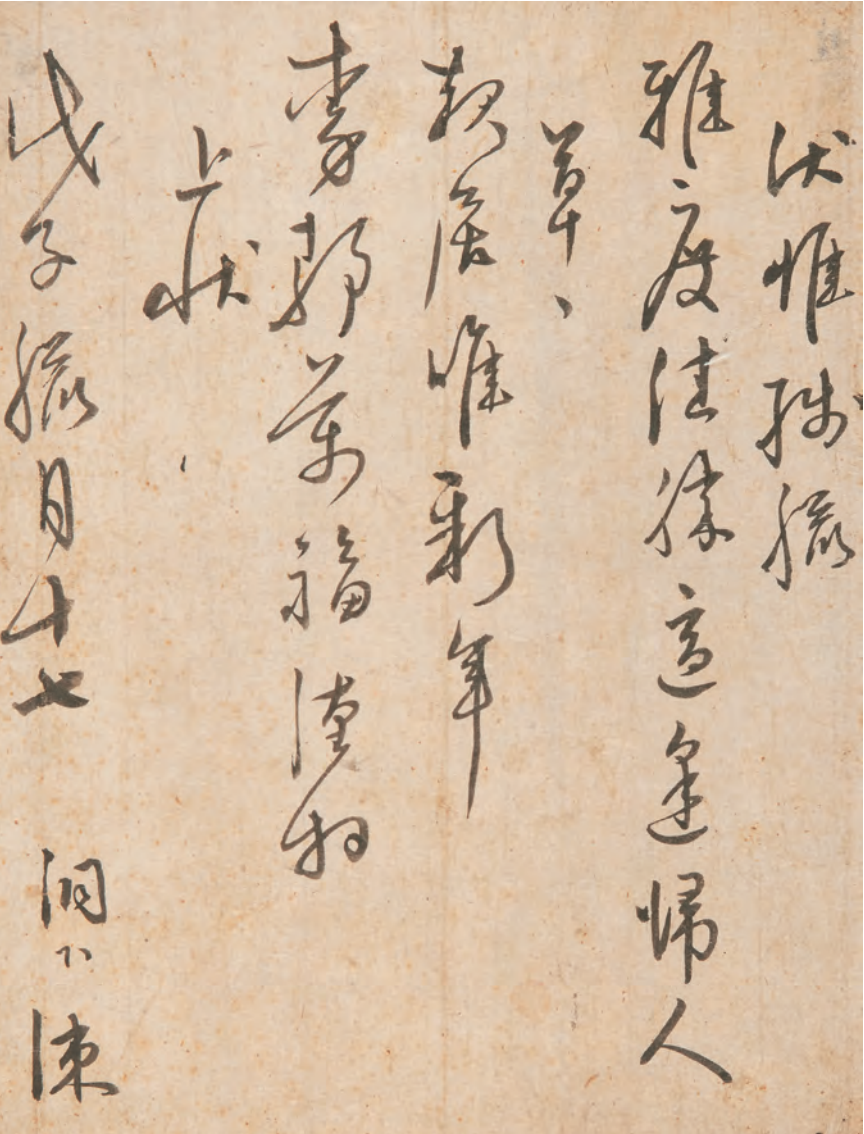
조속이 쓴 편지

趙淾筆簡札

조속趙淾(1595~1668)  
조선 17세기 | 종이에 먹  
세로 22.5 가로 17.0

Jo Sok's Letter

Jo Sok(1595~1668)  
Joseon dynasty, 17<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22.5 W.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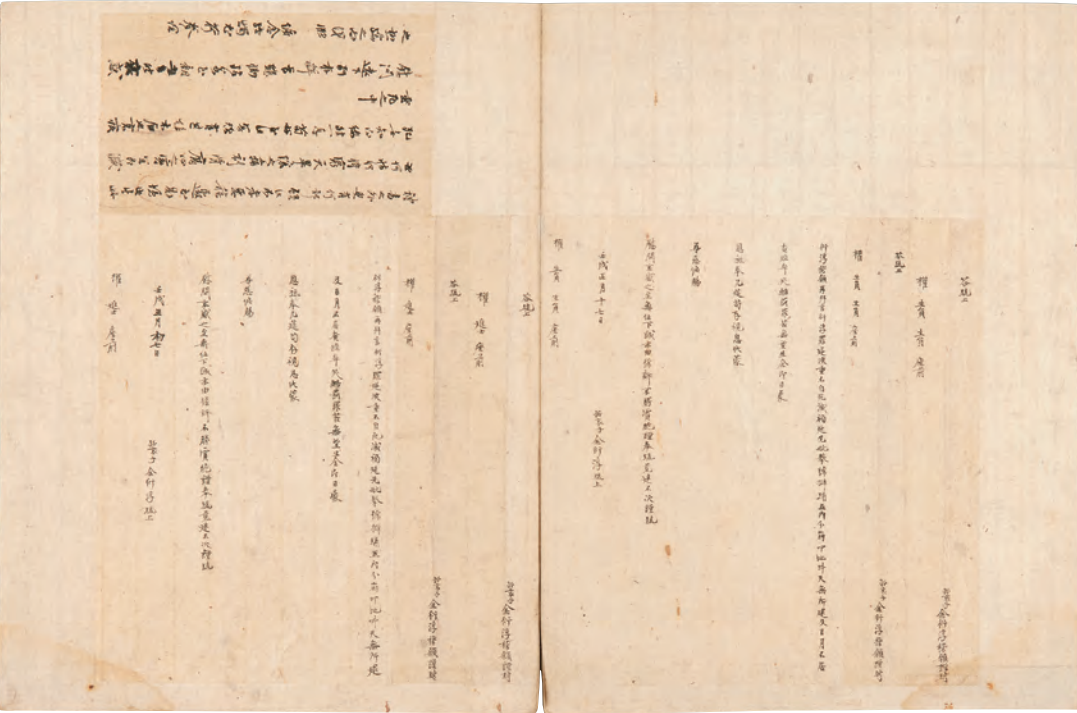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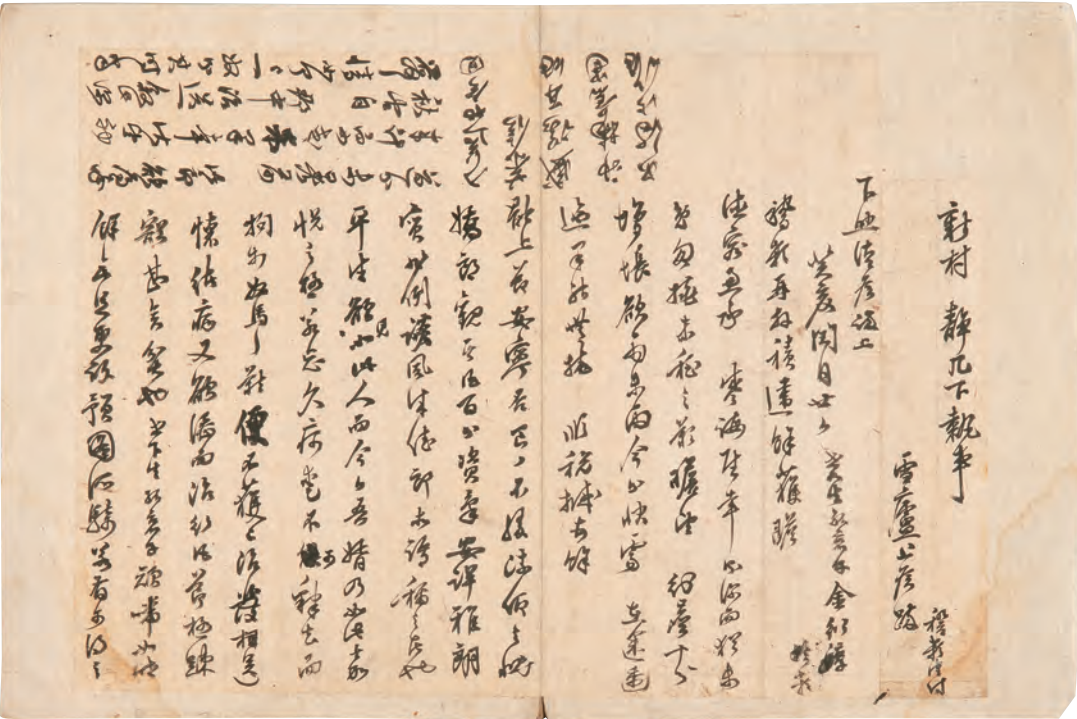


편지첩  
簡札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묵서  
세로 34.6 가로(펼침) 51.6

Collection of Letters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34.6 W. 51.6



편지첩  
簡札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묵서  
세로 33.2 가로(펼침) 40.1

Collection of Let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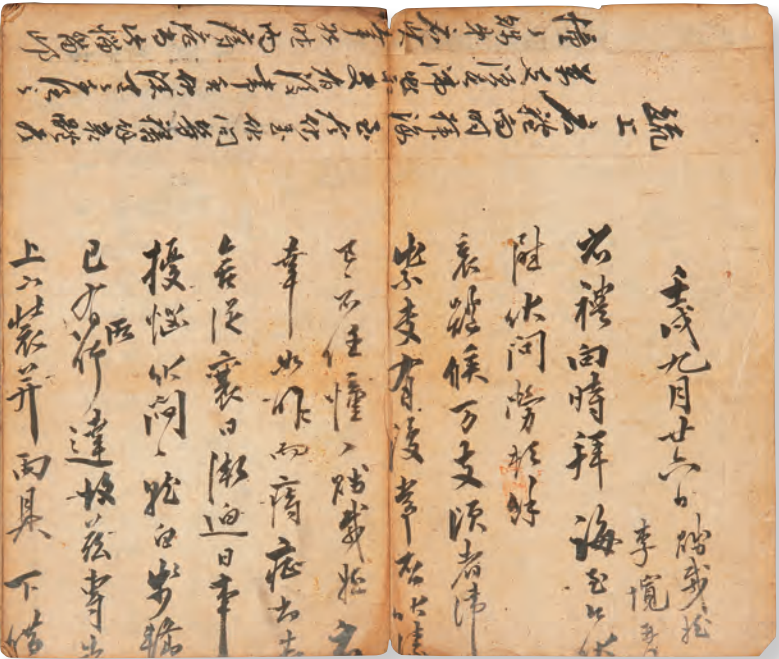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33.2 W. 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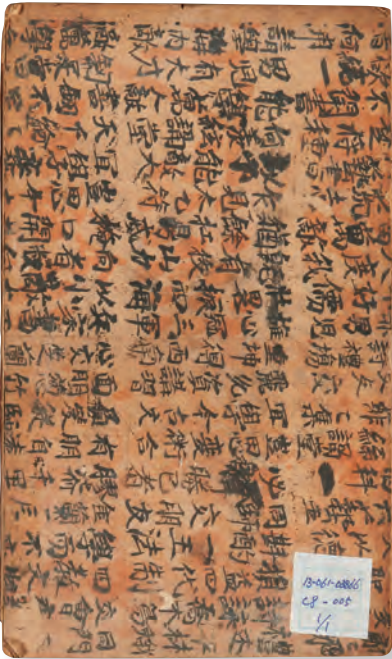
편지첩  
簡札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묵서  
세로 33.1 가로(펼침) 39.5



LKH10324  
Collection of Letters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33.1 W. 39.5



글씨첩  
筆帖

조선 19세기 | 종이에 묵서  
세로 25.8 가로(펼침) 58.5



LKH10325  
Collection of Calligraphies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 Ink on paper  
L. 25.8 W. 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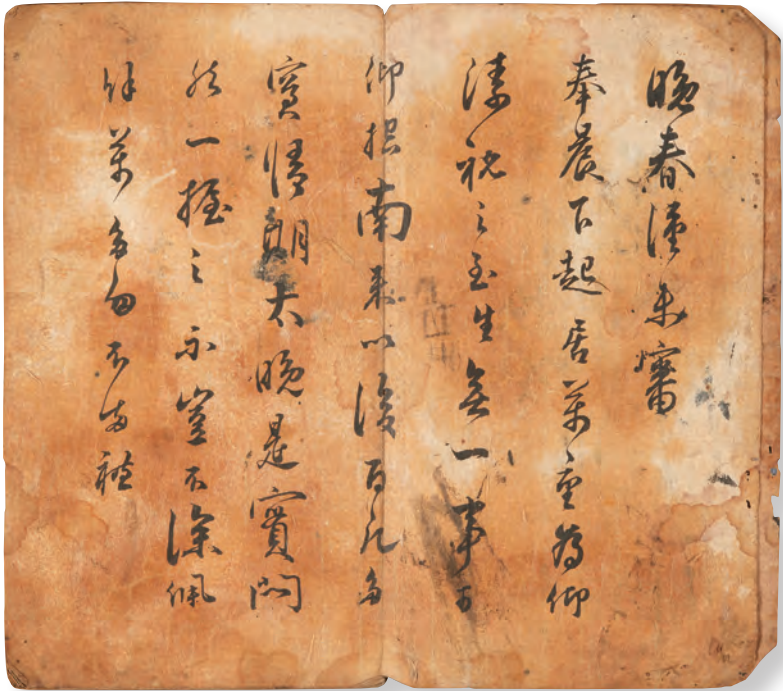
046 건희10326  
편지첩  
簡札帖  
조선 19세기 I 종이에 묵서  
세로 27.5 가로(펼침) 31.2

LKH10326  
Collection of Letters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I Ink on paper  
L. 27.5 W. 31.2



047 건희10327  
편지첩  
簡札帖  
조선 19세기 I 종이에 묵서  
세로 26.1 가로(펼침) 29.2

LKH10327  
Collection of Letters  
Joseon dynasty, 19<sup>th</sup> century I Ink on paper  
L. 26.1 W. 29.2







## VI. 기타

The others





6. 기타

기타에는 5건 5점의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우선 날짜와 절기가 표현된 청화백자(건희1855)와 백자로 만든 앙부일구(건희2127)가 있다. 모두 조선시대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건희1855는 상단에 구멍 두 개가 뚫려 있는데, 그 용도와 기능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건희2127 또한 본래 앙부일구의 용도인 낮 동안의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로 쓰이기에는 영침과 시간선 등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 관상 및 장식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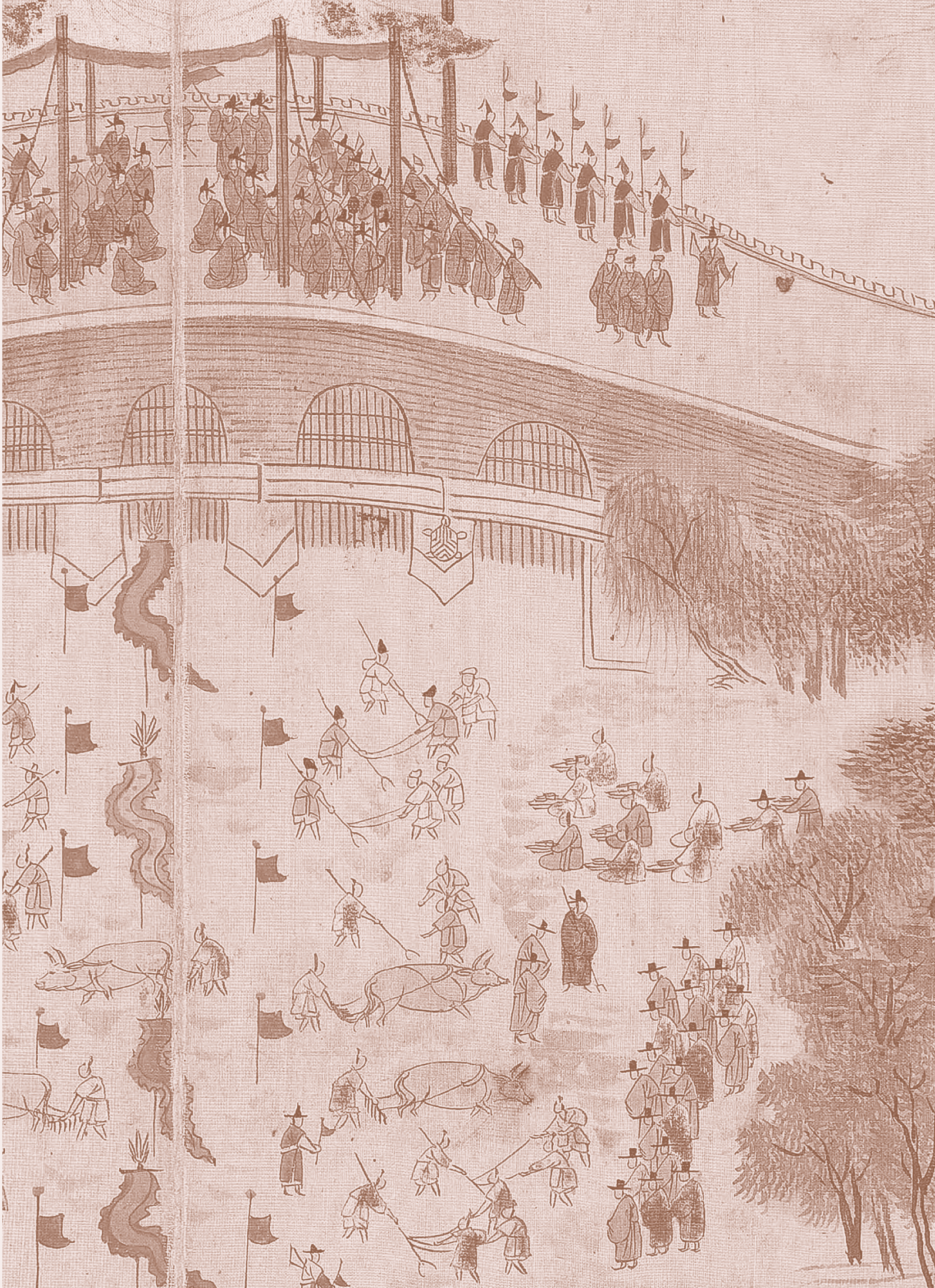
이 외에 세 건의 첩을 기타에 분류하였다. 먼저 영조英祖(재위 1724~1776)와 관련 있는 두 건의 첩이 있다. 영조의 명으로 왕실에서 제작하여 나누어 주었던 것으로 각각 《준천첩漣川帖》(건희3572), 《경현당갱재첩景賢堂廣載帖》(건희3783)이다. 먼저 《준천첩》(건희3572)은 1760년(영조 36) 청계천 준천漣川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영조의 명으로 만든 첩이다. ‘준천漣川’이란 물길을 막는 하천 밑바닥의 토사와 쓰레기를 파내어 물길을 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 한양의 청계천은 바닥에 토사가 쌓여 비가 많이 내리면 자주 범람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영조는 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1760년(영조 36)에 청계천의 바닥을 긁어내는 준천 사업을 50여 일 동안 실시하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던 국가적 사업이었다. 영조는 이 준천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 첩을 만들었다.

《경현당갱재첩》(건희3783)은 1741년(영조 17) 영조가 경희궁慶熙宮 경현당景賢堂에서 신하들과 주고받은 갱재시廣載詩를 실었다. ‘갱재廣載’란 시를 계속 이어서 짓는다는 뜻으로 여기에서는 영조의 어제詩御製詩와 이에 대한 신하들의 연이은 화답시和答詩를 이른다. 영조는 이때 『춘추春秋』의 진강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선운을 베풀고 그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과 갱재시를 첩으로 만들어 참석한 신하들에게 내렸다. 《경현당갱재첩》은 현재 2첩이 전해지는데, 나머지 1첩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나머지 한 건의 첩은 《조선국포군조련연구도朝鮮國炮軍操鍊演規圖》라는 표제를 가진 첩(건희3667)이다. 제목에서 포군砲軍의 훈련을 위해서 만든 훈련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병사들의 대오隊伍와 진陣을 그렸다. 첩의 마지막에는 <속전조대충적기독호령도설速戰調隊衝敵旗幟號令圖說>이 실려 있어, 군사 지휘와 훈련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집 기타 수록 목록

소장품번호	명칭
건희1855	24절기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청화백자靑畫白磁節氣・時間表
건희2127	백자로 만든 앙부일구白磁仰釜日晷
건희3572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화첩漣川帖
건희3667	조선 포군의 훈련도朝鮮國炮軍操鍊演規圖
건희3783	영조가 신하들과 경현당에서 주고받은 시를 기록한 첩景賢堂廣載帖





048    건희18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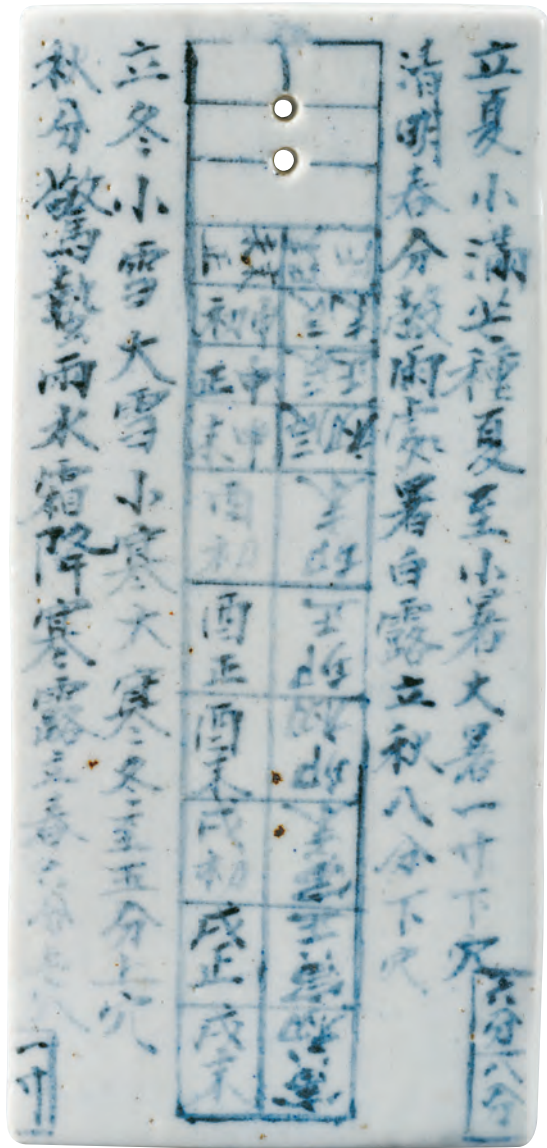
24절기와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청화백자  
靑畫白磁節氣・時間表

조선 | 백자청화  
세로 13.3 가로 6.3

LKH1855

Tablet with 24 Seasons and Time

Joseon dynasty | White porcelain painted underglaze cobalt-blue  
L. 13.3 W. 6.3



049    건희2127

백자로 만든 앙부일구  
白磁仰釜日晷

조선 | 백자  
높이 11.4 입지름 24.8 바닥지름 23.8

LKH2127

Sundial

Joseon dynasty | white porcelain  
H. 11.4 D. 24.8





건희3572  
영조가 청계천 준천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화첩  
濬川帖

1760년(영조 36) | 비단에 묵서, 채색 | 14면  
세로 38.9 가로(펼침) 77.6

LKH3572  
Album for Commemorate Stream  
Improvement Work[Juncheon]

Joseon dynasty, 1760 | Ink and color on silk  
L. 38.9 W. 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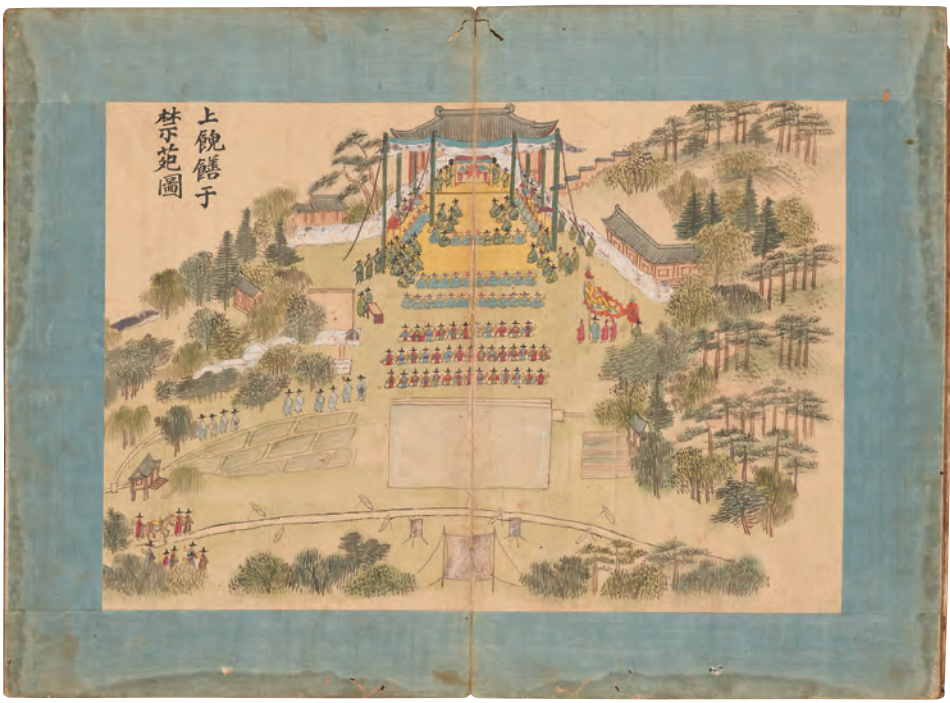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別所監董  
禁衛營千總李漢昌御營廳千總李宜泰申胤沆以上軍門別所  
別所五衛將田昌兩李邦鳳以上內所  
別所牌將  
訓鍊都監哨官趙得琦黃世中旗牌官吳世綱別武士趙蘭壁金璟朴尚遠王起柱禁衛營哨官李煥旗牌官尹琰別武士高泰興朴聖標朴天樞徐益昌吳福命御營廳哨官韓榮錫金振昌金聲律金光潤崔珪教錄官金有副金德鑽申登朱之光申命和高尚稽韓弘暮河宗海別武士朴世茂黃命聘閔貴福金慶暉李光日別抄崔尚祚劉相聘捕盜軍官金夢臣林德潤朱宇塾太景顯以上軍門別所事知韓以敬以上內所  
別所負役  
書吏李弘培等三人書負李震亨等四名庫直高擎座等五名使喚軍金鼎輝等十三名以上軍門別所書吏柳東郁等二人使令朴天載等三名以上內所

11면

京都川渠之開粵在  
英廟世中間修治無可攷而挽近以來填塞為民患者歲益甚焉其勢不得不濬不濬之害固難言而濬亦未可易道蓋民情便否之不齊天時旱澇之不適俱係可憂若始事而中廢則其為害反不如前日之因循苟度也何幸  
睿憲先定僉謀克從濬川之議遂決臣等受命董其役凡六十日民有爭趨之願而惟恐後焉天無竟日之雨而若相助焉使百年未遑

12면

禦侮將軍前行大興郡守以上內所  
禦侮將軍行訓鍊院主簿以上內所  
禦侮將軍行訓鍊院主簿以上內所  
禦侮將軍行副司果以上內所  
別看役  
別軍職李義培李仁培鄭昂世堂上軍官金善誠  
牌將  
兵曹教錄官崔高郁訓鍊都監教錄官高時元金興商鄭以崇印續起別武士金世微金允福李世重李枝成禁衛營教錄官白時彰官世桂張大羽別武士白允起李東建御營廳教錄官文世興鄭翊大別武士金俊盛權順慶金允炯別抄李恒胤卞德基安得文騎士韓得樞李鳳興禁軍鄭運杓林萬舉李洪基安時梓河重圖李東新三軍門策應監官朴道亨南胤正成胤祐編結牌將各軍門將校鄭世僑張瑞真尹衡朴世蕃張緯漢金宗海朴徽亮姜爾載

9면

負役  
書吏鄭大維中景行安光宅全致大崔泰厚陳潤澤金潤大甲得文金時燁韓德胤文德重李興培各所書負宋泰奎李弘根金光來金龜瑞林鳳瑞金載慶洪文績范重彬金壽煥金光純朴德興鄭昌周羅斗燦李景衍高道亨庫直金時秋朴麒麟李萬英金昌錫金萬楫朴興良使令李春興等十二名使喚軍金鼎夏等三十七名文書直朴貴金等三名  
役軍檢數  
坊民三萬二千九百三十二名各軍門將校軍兵五萬一百二名各司負役二萬三千五百五十六名各處市民一萬一千三百四十六名各貢人四千八名各色匠人二千七百六十九名僧軍二千二百七十四名坊民追別自願一萬六千三百八十八名外方自願軍八千七百五十五名募軍六萬三千三百餘名都合二十一萬五千三百八十餘名

1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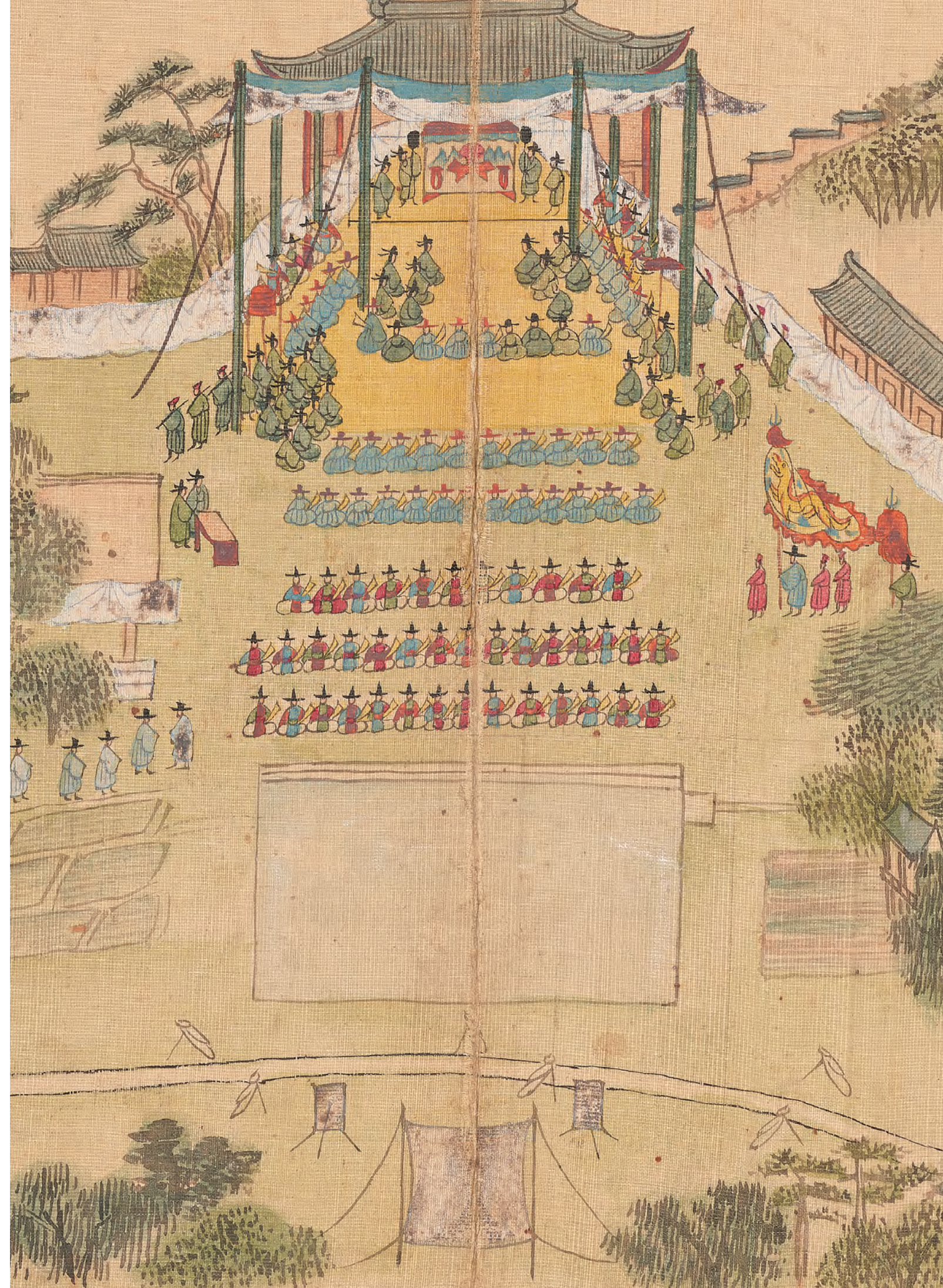


者一朝成就倘非我  
 聖上憂勤之誠格于神明逆使之仁  
 決于黎庶其何以曰賜而賜勿亟  
 子來跡陞濟瀾莫此都民克繼  
 祖宗朝肇開之宏規也哉猗歟休矣  
 上觀役于東門饒膳于 禁苑試才  
 于華館甚 盛舉也 命臣等率  
 董事諸人宴于鍊戎臺 恩至渥  
 也而惟此  
 御製四言一章臣等實受 賜於  
 禁苑晉對之時自念 臣等奉 令承  
 教只幸其無罪有何寸勞之可言而

13면

乃獲此千古曠絕之 恩寵雙擎  
 雲翰聚首惶感踰衆之 褒非敢承  
 當而拱璧之珍寔宜分玩謹茲摹  
 石而印之又繪前後三 盛舉及  
 臣等鍊臺之會列書諸臣姓名於  
 其末作帖以 進又各藏一本此  
 亦承  
 上命也  
 庚辰四月 日  
 行戶曹判書臣洪鳳漢奉  
 教謹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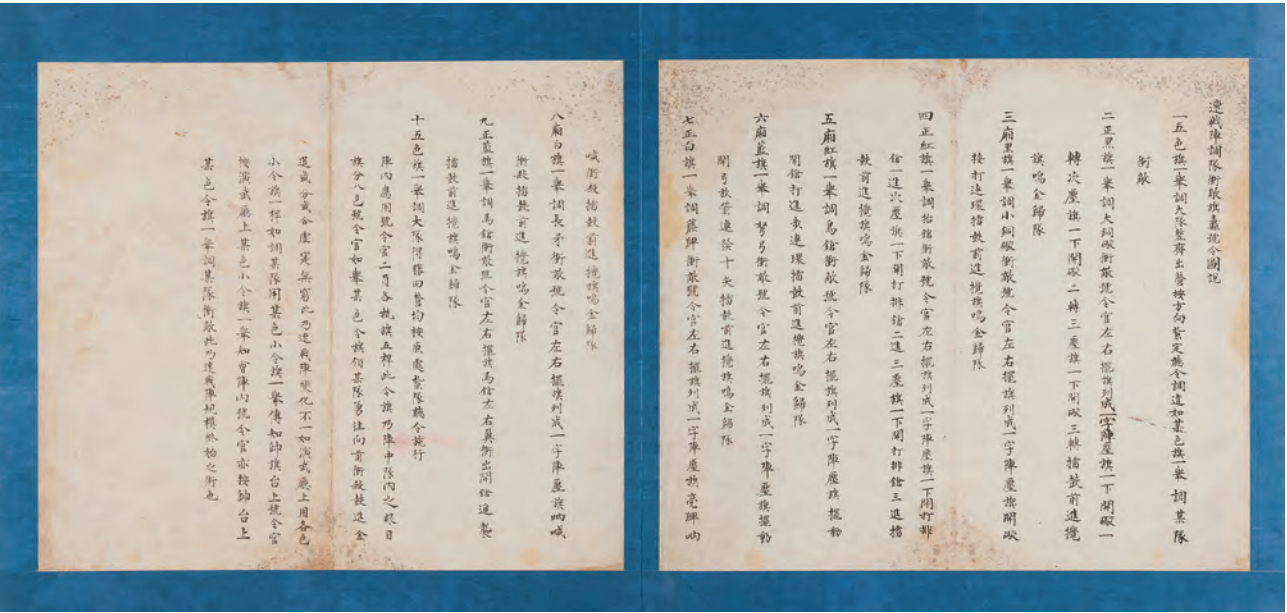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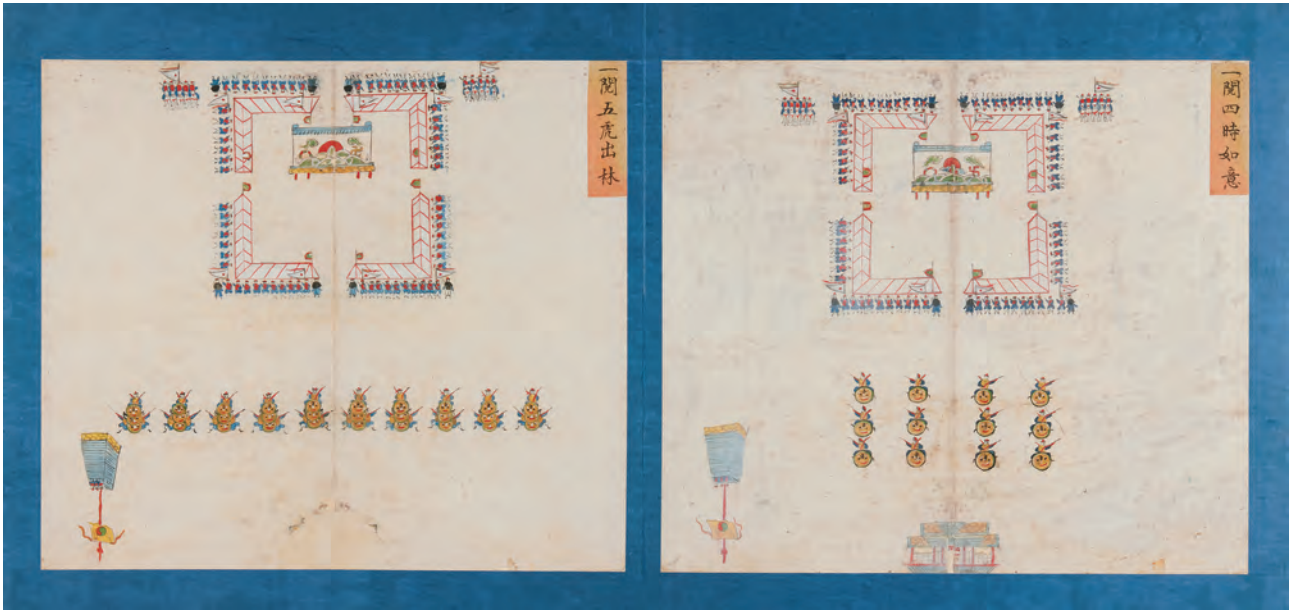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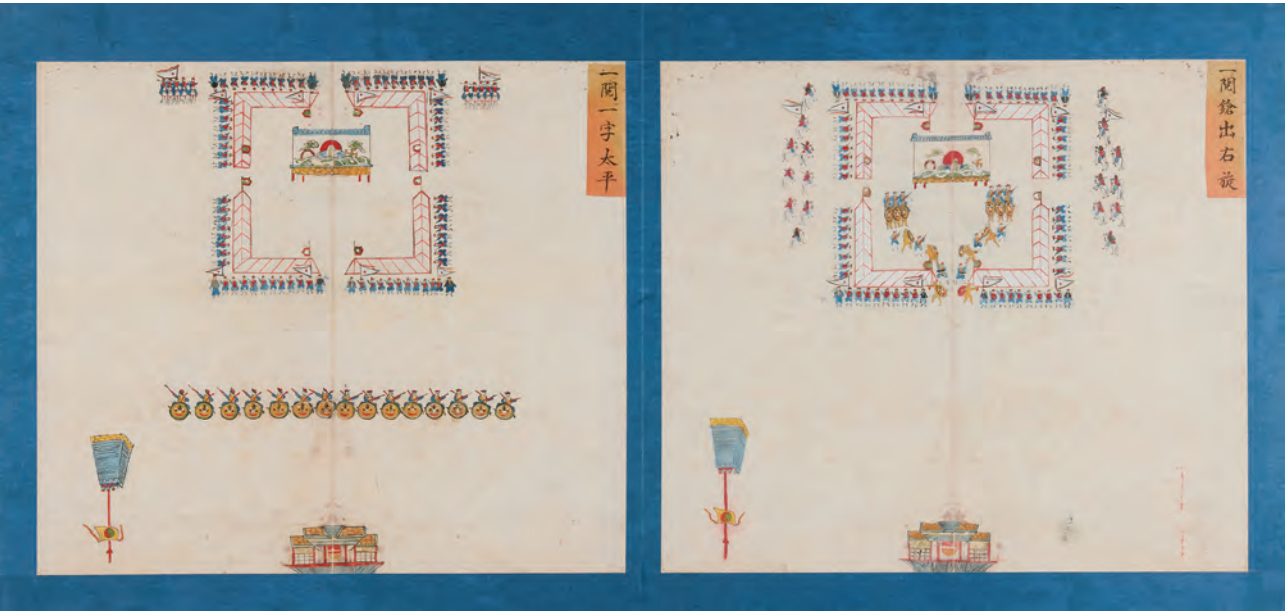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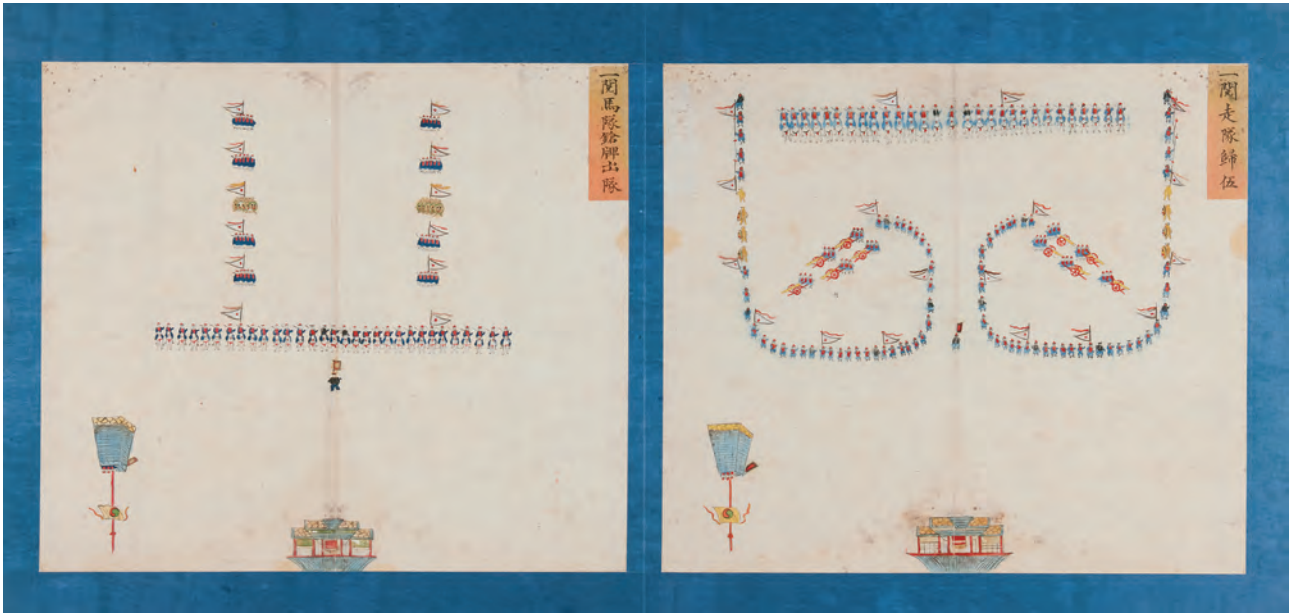
14면





조선 | 종이에 채색  
세로 44.0 가로(펼침) 101.0

Joseon dynasty | Color on paper  
L. 44.0 W. 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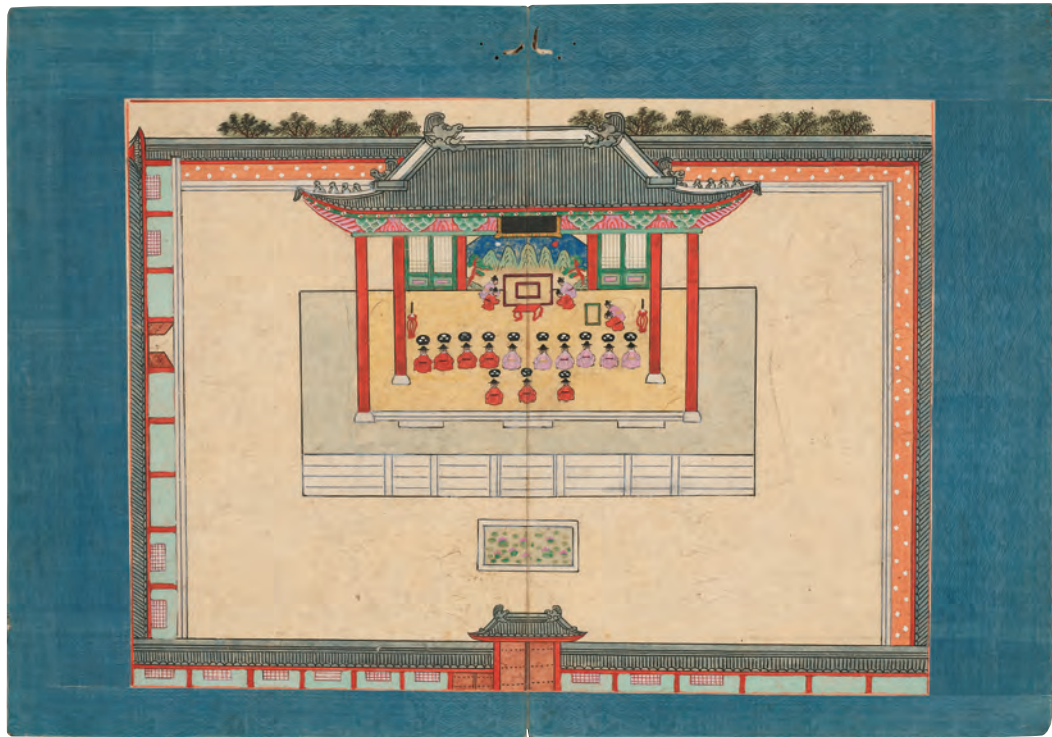
영조가 신하들과 경현당에서 주고받은  
시를 기록한 첩

景賢堂賡載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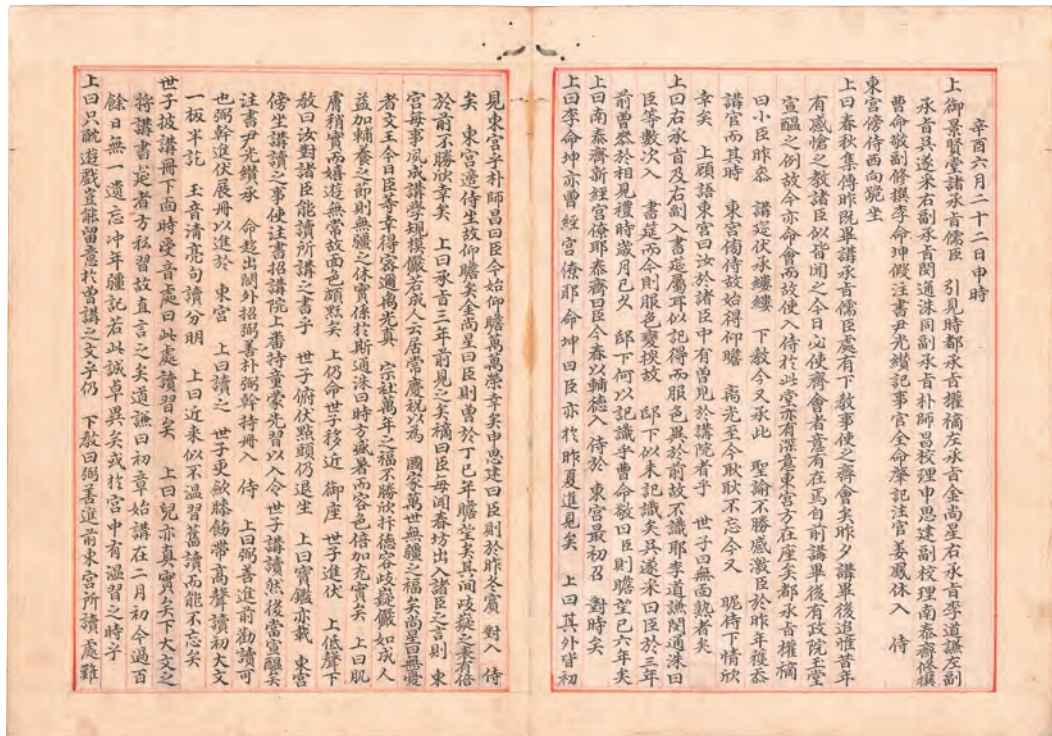
1741년(영조 17) | 종이에 묵서, 채색 | 12면  
세로 38.5 가로(펼침) 55.2

Album for the Poetry-writing Gathering of  
King Yeongjo and Officials in Gyeonghyeondang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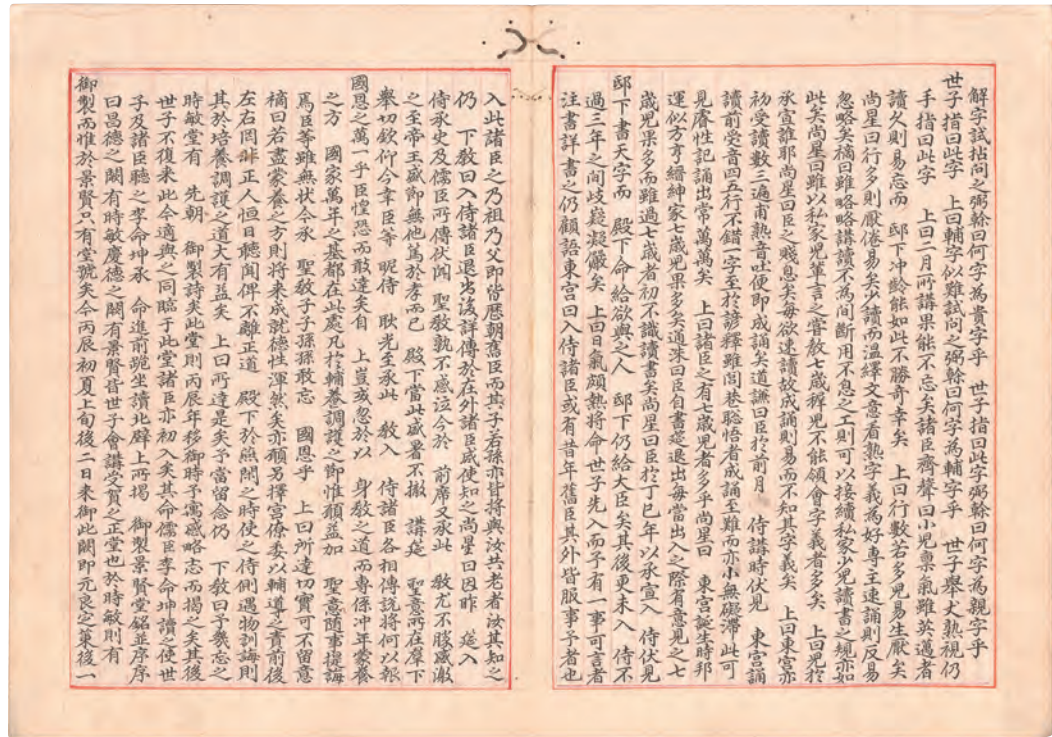
Joseon dynasty, 1741 | Ink and color on paper  
L. 38.5 W.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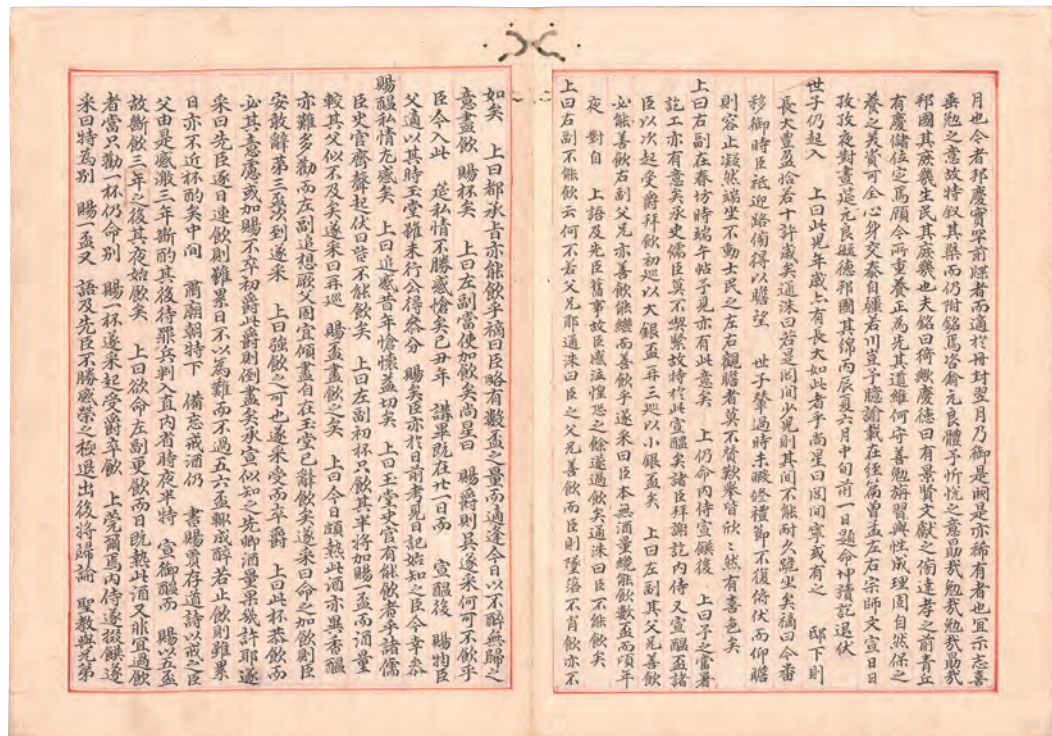
1면



2면



3면



4면



昨夕隣經已訖工  
今辰宣酒一堂中  
春秋大義感懷功  
追憶遼年倍予衷

7면

寧考何年訖講工適追心法一編中羨塙  
聖慕春秋義三復宸章激寸衷  
湯盤千載日新工都在隣經一部中尊主  
此民貽燕義寧王志事感宸衷  
左承旨臣金尚星和進  
右承旨臣李道謙和進

8면

春秋一部法筵工討論猶勤夏月中訖講  
日符前後聖雙擊宸藻激微衷  
左副承旨臣吳遂來和進  
法講三庚不輟工尊周餘義一編中遺經  
更寓羨塙慕節序重回激聖衷  
右副承旨臣閔通洙和進  
實日開筵仰聖王隣經義炳討探中貽謨  
繼志淳之意天語聆來激寸衷  
同副承旨臣朴師昌和進

相對涕泣矣通洙曰俄者自上語及先臣臣不勝感激臣子孰不蒙國恩而豈  
有如臣家之受國恩者乎臣祖三兄弟應事孝顯兩朝臣父兄弟事我  
肅廟為倚重之臣矣今殿下繼肅廟之位而東宮又侍坐臣之情感榮幸當復  
如何今殿下繼肅廟之位而東宮又侍坐臣之情感榮幸當復  
判異何也殿下試思其所以然必以法肅廟為心何以則今日朝者如肅廟  
朝乎何以則今日人心世道如肅廟朝乎以此念念不忘焉如臣之庸陋備數而  
已實無一分報效國恩之道而區區願祝惟在於此矣上曰今聞所達予亦感  
淪矣仍下教曰予之今此宣臨非欲豫大蓋出追感之意故特諭世子者有深意  
而故惜宣臨而諭之矣已丑年先朝畢講時國家無事其時時象亦不過好勝  
之戰豈如今時乎今時則世道如此尤不覺一倍與感矣俄亦諭于元良而今日  
庭中昔年臣子惟都承旨一人其餘即古人子若孫矣猶曰向日臣入畫講以違  
事先朝之意有所下教且有憫老之諭而至伏承戒飭子若孫無負七戚元良  
之教矣今日又承戒飭春宮之諭尤感泣一倍矣尚星曰今日臣等受同僚之  
恩而聖教又至此臣等乃祖乃父皆違事之臣也臣不肖無狀雖未能仰體聖意  
而今日入侍諸臣莫不感泣不必形之於語言而已常以毋忘今日之意銘刻心體  
則豈孤負聖教乎師昌曰臣待罪喉院累入延席固已學奉家宣臨之恩

5면

不意又瞻春邸坡篋之表仍矜清暢之王音實頌萬世無疆之休而至伏承繼  
續聖教予子孫孫咸頌今日之盛舉敢忘國恩乎上曰同副子未詳知矣遂  
來曰故判書泰尚之四寸孫也尚星曰錦州君朴延奉祀孫也上曰然乎申恩建  
回臣以蒙學獲泰經懷前後登延無一裨補而乃於今日蒙被異數脫侍取  
光瞻望東宮一身榮感無與為比俄者聖教提及先朝開講時事臣於此私  
情亦不任感愴者先臣亦於肅廟朝以儒臣多年侍講矣今聞下教一倍感  
泣矣上曰儒臣之父誰也尚星曰故吏曹參議申鏞之子也上曰申鏞即申鏞  
之弟而多兄弟思建回臣父兄弟八人矣泰齊曰昨日延教戒飭丁寧今又伏  
聞下諭於春宮者尤不勝感泣矣上曰入侍諸臣乃祖乃父皆舊臣也都承  
旨而於入侍時有感動之心矣其前則頗有時象之心今見其頤緩而尚有未盡者  
矣昔在已丑朝廷無事時象之戰亦不過好勝自幸主以後如此矣入侍諸臣勸諭  
子若孫勿以時象糾結於心可也若能如此則自可漸愈顧念七戚元良可也予之  
教諭元良賜臨諸臣實有深意顧各念乃祖乃父為儒生之業習為尤難而重外時  
尤最難焉自童外而推至於大官矣當習之聲可不戒哉俄者諭東宮以子若孫將  
與汝共老云者予有意若思元良則尤豈非可戒者乎遂來曰聖教至此為今  
日臣子者若願一毫黨心則天必殛之殿下苦心至誠為臣子者不能仰體此固

6면

臣子無狀之罪也道謙曰聖教至此為今日臣子者莫但於其身雖子若孫孰敢  
為黨習焉尚星曰此真非臣下之罪雖然厚下亦豈以黨心欲負國家乎只是自  
不覺其然矣聖教及此為今日臣子者各相銘刻心骨子子孫孫盡其誠心則思過  
半矣遂來曰當此感著不撤講延畢講日子偶得昔年而伏聞昨日延教下  
情不任感愴矣今日賜臨實是彌舉異但為臣等一身榮光而已春宮同臨  
聖教至此今日入侍信賴絕之盛會矣殿下於經筵盡講古今經傳無有餘  
矣殿下究極經義探討已盡可謂究道經之終始矣經傳則今無可復講者不過  
更加溫古之功聖學之博大極矣雖然聖人之學必資博約無至殿下於博字  
工夫已盡之矣今則惟在乎反之約而已伏願於約字工夫深留意焉上曰昇遂  
來似醉而醉中所述有各理極切實矣猶曰畫講則以四書循環進講召對  
則以朱子綱目進講則好矣綱目則鑑照治亂論語則治推民國充不可不熟講  
矣上曰卿言是矣遂來曰論語曰博我以文約我以禮一約字所可加意處必反  
諸約然後聖學工夫方有終始矣上曰然矣諸臣以次將退出上曰昨日儒  
臣李命坤以春秋大義有所陳戒予於退舊感愴之中適有所作將下廣進之命入  
侍諸臣留待政院和進可也承旨儒臣退出史官以次將退上曰史官亦並和進  
可也諸史官更俯伏聽教後退出已而陳矣



咫尺 為光觀  
家龍紅雲多蒙侍臣從 奎章色映黃金勝法  
酒香濃宮玉鍾萬世洪基輔養千秋義  
仰 朝宗臣之奉 經筵舊歸與朋僚說 際逢  
左承旨金尚星  
晚移 仙仗開蒼龍 寶座難 鶴駕從瑞氣  
慈龍雲一朵 恩波漱灑酒三鍾 謨成建極  
昭 東邱義講尊 王法  
孝宗 聖戒溫諄爭鏤肺千年嘉會幸親逢  
右承旨李道謙

別殿彤雲護六龍  
天顏有喜 聖儲從香飄紅藕董 仙仗榮溢黃  
封倒玉鍾 邦國基隆仰岐嶷王春義述感朝宗  
君恩醒醉近先遇弘露重嗟盛事逢  
左副承旨吳遂采  
日表 為輝儼鳳龍 講筵餘暑易簪從  
天恩洋溢浮樽斚 宸藻洪眷叶律鍾瓊祖  
聖心尊魯史教儲 徽範邁唐宗祇思佩  
服先臣訓 靡粉面酬 曠世逢  
右副承旨閔通洙

重暉瑞彩近 山龍袍笏鳬趨共影從  
外祥雲隨 寶座樽前新 隆奉華  
鍾千年基緒瞻儲貳 一念尊懷慕  
祖宗菲質幸叨諸君後堪誇 感際獲躬逢  
同副承旨朴師昌  
周旋 經幄廁羣龍  
蒲座欣瞻 鶴駕從  
御氣慈龍香觀席 恩波漱灑酒添鍾 心傳堯舜微際  
聖貫春秋義理宗 咫尺花輓承 聖海小臣千一幸連逢  
校理申思建

紫極前星九五龍 通臣榮遇亦雲從 宸  
章耀壁鸞回低 法醞如 春蟻泛鍾 帝  
錫年支綿万世 聖傳精一繼  
三宗鋪張盛事應吾輩千載昌期況罕逢  
修撰曹命敬  
暇日賢堂儼宸範 東宮侍從法臣從  
聖工勤勵仍夙節 御醞薰濃下千鍾  
寧考遺謨思繼述 春王大義愴朝宗才慚蒲  
藪叨鵠列呂戶 宸恩不世逢  
副修撰李命坤

勤講延英仰 曆工經帷猶設伏炎中春秋  
一部傳家法三紀寸迴感 聖衷  
校理臣申思建和 進

講經講訖 詔羣工 聖念近懷冊載中濡  
首小臣無寸效微忱惟欲勉和衷  
副校理臣南泰齊和 進

聖學敦 實下工六經諸史貫通中丁寧勉  
戒銘愚悃繼述宏謨仰 聖衷  
修撰臣曹命敬和 進

一部遺經已了工盛炎不憚履屨中傳家  
自有 尊周義時序相符感 聖衷  
副修撰臣李命坤和 進

炎天初訖細繩工繼述心存一部中紫微光  
觀前呈彩燕翼 綸音倍激衷  
假注書臣尹光贊和 進

群經講訖飭羣際會風雲在此中況侍  
東宮宣 御酒御 恩不覺感恩衷  
工 進

無春秋臣姜鳳休和 進

9면

11면

講訖講經畢百工前星耀彩一筵中 先朝  
舊志今追述如侍 王言感寸衷  
無春秋臣金命肇和 進

猥將一律恭述  
威遇要與登 筵諸賢共之幸毋金玉  
其音也  
爵慈佳氣繞銅龍  
聖后親臨 貳極從政喜 萬筵連  
蒲座仍宣 法醞溢銀鍾 謨深燕翼心  
精一義炳麟 經體 祖宗 天語更  
詢替履舊 三朝感際幸生逢  
行都承旨權 補

次

10면

12면



## 고故 이건희 회장 기증품 목록집

The Lee Kun-Hee Collection at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Vol. 10 Epitaph Tablet · Map · Royal Investiture Book · Seal · Letter

제10집 묘지 · 지도 · 옥책 · 도장 · 글씨 · 편지

발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T. 02.2077.9000 F. 02.2077.9925 www.museum.go.kr
북디자인	편집전문회사 꿈과놀다 04623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5길 12-9 한아빌딩 304호 T. 02.2277.3986 F. 02.2279.3986
Publish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04383, 137 Seobinggo-ro Yongsan-gu, Seoul, Korea Tel. +82.2.2077.9000 Fax. +82.2.2077.9925 www.museum.go.kr
Production	Design Play with Dreams 04623 HanA B/D, 12-9, Seoae-ro 5-gil, Jung-gu, Seoul, Korea Tel. +82.2.2277.3986 Fax. +82.2.2279.3986
초판 인쇄	2023년 11월 25일
초판 발행	2023년 11월 30일
Date of Printing	November 25, 2023
Date of Publication	November 30, 2023

©2023 국립중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3 National Museum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The use of any contents of this book requires permission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SBN 978-89-8164-263-1 94900

ISBN 978-89-8164-245-7 (세트)

비매품/무료